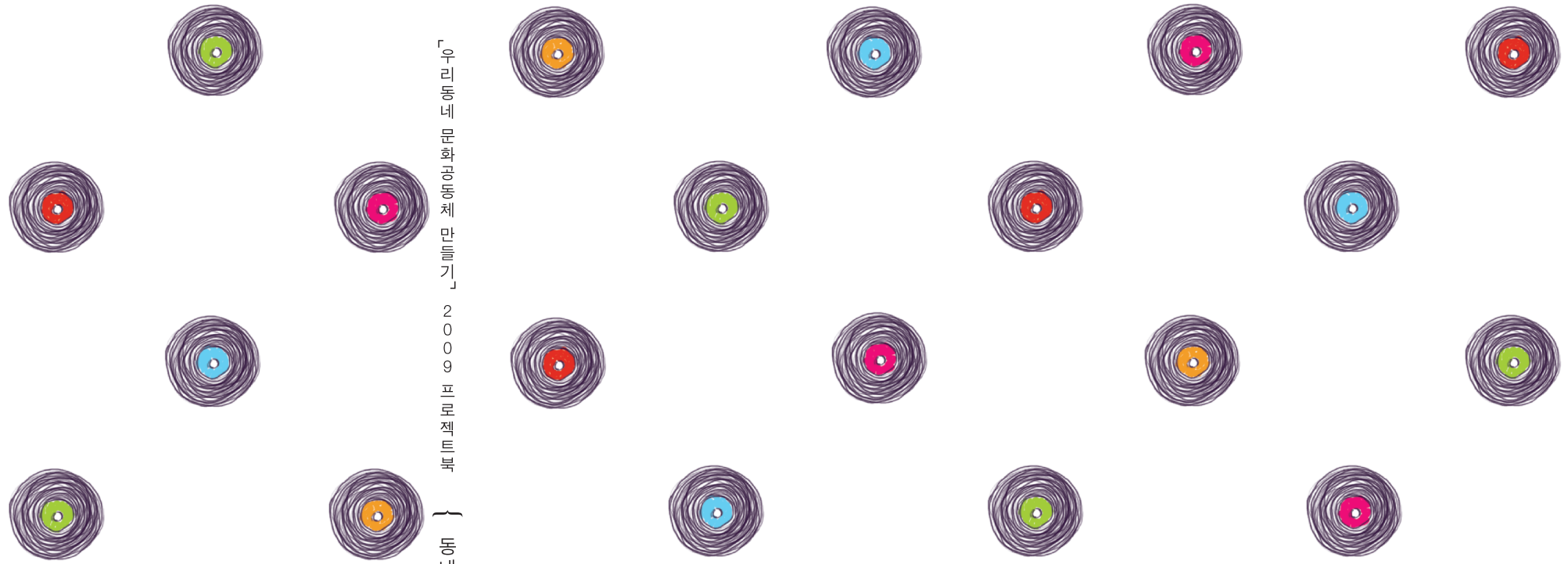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 프로젝트북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 프로젝트북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
사랑마루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 프로젝트북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



x



x



x



x

x



x



x



성남문화재단 2009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북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발 행 인 이대엽, 이종덕
편 집 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 행 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 행 일 2010. 2

글 이초영 (취재도움 김희윤, 서진영, 우장순)
사 진 이초영, 박진영, 서진영, 우장순
디 자 인 나정우
인 쇄 디자인하우스
일러스트 나정우

© 성남문화재단



x



x



x



x



x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 프로젝트북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





contents



I. 이음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이야기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4



I. 이음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이야기 8
01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공모사업 지원부터 선정, 워크숍까지 12
사랑마루에서 만나다 1. 사랑마루 총감독, 은행동 팀장 이상훈 인터뷰 26
같이 = 가치 28
사랑마루에서 만나다 2.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부장 인터뷰 38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40



II. 만듦
도촌동 이야기

II. 만듦 - 도촌동 이야기 52

01 옛날옛날 우리 섬말 55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한 노력 56
첫 만남 _ 가족책 만들기 59
나만의 색상 만들기 63
첫 나들이 _ 중앙공원 지식묘 66
사군자 그리기 70
비가 와서 유물 산포지 못 가다 71
도자기, 팝업 카드 만들기 73
420살 느티나무, 대자연을 느끼다 78
느티나무를 관화에 담다 82
숫대, 직접 만들기 84
마지막 날, 작은발표회를 위한 준비 86
도촌동은 현재진행형 90
사랑마루에서 만나다 3. 도촌동 팀장 박진영 인터뷰 92

III. 나눔
수진동 이야기

III. 나눔 - 수진동 이야기 94
01 수진동 문화배움터 97
신문지공예 (취재, 글 _ 김희윤) 102
9월 12일, 두근두근 그 첫 시간! 102
오늘만큼은 나도 '아티스트' 105
수강생 막내 유경이, 드디어 만나다 107
전시회 준비로 바빴던 12월 12일 109
밴드 드럼반 112
50대 주부들의 드럼사랑 112
색소폰 반 115
매력있는 악기, 색소폰 따라잡기 115
한지공예 119
열정적인 강사와 학생들 119
02 하늘텃밭 128
우리 막내가 옥상 텃밭이 '엄마 마음의 5천평 밭' 이래요. 131
하늘텃밭 설치하던 날 136
하늘텃밭 점심모임 137
03 이젠 물을 주세요! 144
'이젠 물을 주세요!' 의 시작 146
사랑마루에서 만나다 4. 이화섭 작가 인터뷰 152



IV. 키움
태평동 이야기

IV. 키움 - 태평동 이야기 154
01 한울기자단 157
한울신문 기자단과의 첫 만남 160
한울기자단 운영위원회 모임 162
반갑다. 후배들! 164
한울신문의 10월, 11월 166
한울영상 3기 기자들 이야기 167
02 시간의 기록 172
03 태평4동 주민센터 전시회 178
04 태평4동 동네만들기 발표회 154
사랑마루에서 만나다 5. 한울신문 1기 기자 오시영 인터뷰 188



V. 작은발표회

V. 작은 발표회 - 5개동 전체 발표회 190



VI. 부록

VI. 부록 198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워크숍 200
사랑마루 사업홍보물 브로셔 234

사랑마루의 작은 음악회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2005년 10월, 성남문화재단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성남의 동네 곳곳을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총 45개 동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3단계의 15년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1단계 3개년(2006~2008년) 동안 유형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동네별 특성에 맞는 문화공동체 만들기 구체적 실행태를 창조해 나가면서 기초를 다지기로 하였습니다. 한 동네마다 최소한 3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2단계 5개년(2009~2013년)은 문화공동체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는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고 4개의 날개사업(우리동네 생활이야기, 공공(커뮤니티) 예술, 동네클럽 네트워크, 계층별 프로그램)을 축으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3단계 7개년(2014~2020년)은 1단계 시범모델과 2단계의 문화공동체 시스템 성과를 바탕으로 각 동네마다 주민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색깔과 문화상징을 가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창조해 나가는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였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남이라는 도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60년대 말 서울시의 신도시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 도시. 태평4동은 성남출장소가 있던 자리였고, 13평의 바둑판을 촘촘히 그려놓은 듯 산등성이를 일직선으로 갈라놓은 동네. 태평동은 성남이라는 도시가 태생하였던 당시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었고, 1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로

부터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부터 성남의 동네는 문화공동체로 바뀌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예술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은 우리나라 공공예술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999년 성남프로젝트’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성남의 작가들은 ‘성남 과거와 현재의 얼굴’, ‘모란, 그 공간의 의미’ 등의 소재목으로 성남시청과 동네 곳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예술을 펼쳤습니다. 그 반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성남에서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성남프로젝트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성남 지역의 예술가가 성남에서 공공예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네와 도시를 바꾸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지점, 성남의 예술가가 지역의 동네를 문화공동체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외부작가와 지역작가의 결합을 통한 상호 발전을 통해 성남 지역에 뿌리 내리며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의 태평동 프로젝트는 우선, 1999년 성남프로젝트의 작가였던 김태현, 김기수, 임홍순 세 작가와 더불어 경원대학교 김용익 교수께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성수, 이화섭, 박진영 등의 예술가들이 결합하였습니다. ‘벽화 미술관’ 프로그램은 지역작가들이 오래 전부터 구상하였던 작업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지역작가를 중심으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착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작업에서도 이상훈, 민지애, 황세준이 함께 하면서 지역의 정서가 배인 독특한 이야기와 영상미를 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상호 토론 속에서 바람직한 공공예술의 상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잉시티 전용석, 스톤앤워터 이은정, 프리랜서

정은영, 공공미술프리즘 유다희 등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공공예술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를 창조해 내게 된 것입니다.

2007년의 아파트와 공단 유형부터는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작가의 참여와 결합을 전제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은행2동 주공아파트 '풀장환상', 상대원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 시장·상가의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역에 뿌리내리며 지속적 전망을 가지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였습니다.

2009년을 맞아 2단계로 접어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는 이제 지역예술가와 문화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예술 역량을 어떻게 지역의 성과로 결합시킬 것인가는 성남의 중요한 과제로 항상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의 과제는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더욱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풀장환상' 에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원다방 운영위원회를 상대원시장의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문화공동체를 스스로 꾸려나갈 주민의 운영위원회가 탄생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네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는 4개의 날개사업을 축으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우리 동네 생활이야기는 태평동에서 '옥진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영상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풀장환상의 '엄마, 말하는 종이거든', 콩닥콩닥 예술공단의 '메이드 인 성남' 그리고 원다방의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가 이어졌고 2009년에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와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가 펼쳐집니다.

공공(커뮤니티) 예술은 태평동의 무수한 골목길, 은행동의 환상적인 풀장, 공단 버스정류장의 예술벤치, 시장 속 라디오 사랑방 원다방을 탄생시켰습니다. 계층별 프로그램은 코맥스와 시온의 집, 삼성테크원과 우리공동체, 크린토피아와 성남지역 자활센터, 에스콰이어와 성남장애인재활작업장, 동양공업사와 물푸레 어린이도서관이 맺은 '연두리본' 으로 노인, 정신장애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별 프로그램이 있는 동네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동네클럽 네트워크는 4개의 날개사업에서 중심입니다. 문화공동체의 지향이 주민이 동네의 주인공으로,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일진데, 동네를 창조해 나가는 주민의 열린 장은 동네클럽입니다. 클럽들이 동네에서 무수히 생겨나고, 동네의 삶들을 창조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동네는 바깥입니다. 그 씨앗을 키우고 상호 네트워크 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마루' 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는 것도 동네클럽을 중요한 기반으로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주민 속에서 탄생하도록 꾸준히 기반을 형성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12월 수진동성당 사랑방 7호에서 펼쳐진 '사랑마루의 작은음악회' 는 동네클럽 네트워크가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서로가 확인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의 가능성과 미래를 활짝 여는 희망의 노래로 마을과 마을을 따뜻하게 이어주었습니다.

2010년을 기대합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가 더욱 그 뿌리를 내려 튼실한 기반을 만들고, 동네마다 문화공동체의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됩니다.

성남문화재단



I.이음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이야기

이음
[명사]
이어서 합하는 일. 또는 그런 부분.

1

사랑마루가 무엇인가,
사랑마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랑마루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사랑마루가 동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이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사랑마루는
먼저 동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고민합니다.
목소리를 담는 과정에서 주민과 예술가, 활동가, 단체, 관공서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때, 사랑마루는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2006~2008년 시민 중심의 정책, 그 시작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2008년까지 1단계 3개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문화클럽의 발굴 및 교류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기획 확대, 동네 유형별 커뮤니티 육성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방향을 가지고 5대 정책사업으로 구체화시켰다. 이 중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5대 정책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 진행 전, 3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성남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예술관련 커뮤니티가 1,103개에 달했고, 성남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4,000여 개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2005년에 처음 정책사업을 계획하면서 문화예술관련 커뮤니티를 ‘사랑방 문화클럽’이라 명명하고, 2006년부터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관련 커뮤니티를 네트워크화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가 출범’되었고 ‘제 1회 사랑방 클럽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008년, 2009년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방문화클럽의 성장과 함께 ‘지역사랑방’ 지정, 세계문화클럽포럼(WCCF : World Cultural Clubs Forum) 개최, 문화공헌 프로젝트 등의 모범적이고 실험적인 여러 시도를 거쳤다. 현재, 명실상부 ‘시민중심의 성공적인 정책사업’의 모범사례로 여러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공공예술을 매개체로 환경을 새롭게 하고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이끌어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1단계 3개년(2006-2008) 동안 성남시의 공간유형을 골목길, 아파트, 시장, 상가, 공단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 지역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2006년 골목길 유형의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를 시작으로 2007년 아파트 유형인 은행2동 은행주공아파트 ‘폴장환상’, 공단 유형인 상대원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 2008년 시장 상가 유형의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의 성과는 본 사업의 탄탄한 발판이 되었다.



각 동네에서 ‘사랑마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돕는 사람’으로 지낸 6개월 동안, 동네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되새기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이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이전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5개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각 동네의 특징에 맞는 집중적 사업형태였다면,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각각의 동네를 연결해주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48개 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 4개의 날개사업(공공예술, 동네클럽 네트워크, 계층별 프로그램, 우리동네 생활이야기)을 동네마다 본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중점사업이다. 지난 3년간이 동네만들기의 기초를 다지는 1단계라면, 2009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2단계에 들어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새로운 출발이라 볼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은 훌륭한 매개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개인화’된 동네의 삭막함을 ‘우리’ 동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과거와 달리 친분이나 품앗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은 이웃 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은 한 동네 주민들의 소통 매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 더 큰 단위인 주민과 문화클럽, 동네와 동네 사이의 소통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의 동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남이라는 지역 안에서 시민(주민)-예술가-문화클럽-동네-성남시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소통의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음, 사람과 사람을 살피는 일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제일 중요한 요소, 제일 중심은 바로 사람이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대상은 지역주민이며, 실행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사람의 마음, 지역주민의 마음을 살피야 한다. 따라서, ‘사랑마루’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며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도우려 노력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공모사업 지원부터 선정, 워크숍까지

처음

전화가 올랐다. ‘발신: 늘봄 이 상훈실장’.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조영씨,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함께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함께 사업을 진행할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2009년 7월 9일, 장마비가 내리던 여름날,

성남시청 근처에 모여 앉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의 제안서를 나눠 읽었다. 익숙한 얼굴과 초면인 얼굴이 반반 정도 섞여있었다. 먼저 각자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하고 공모 제안서를 함께 읽었다. 모인 사람들은 성남에서 꾸준히 활동한 지역활동가와 작가들이었다. 동네 친구, 학교 선�후배 등의 친한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안면은 없었으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 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각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간 행해진 ‘동네만들기 사업’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들을 나눴다.

우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초기모습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인 2006년 6월부터 경원대학교 김용익 교수, 플라잉씨티 전용석 대표, 경원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협업으로 태평4동의 문화특징을 찾는 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태평4동의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 움직이는 사진관, 쪽마루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공공미술 프리즘’이 태평4동의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골목길을 만들어냈다. 아트클럽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고, 상가를 대상으로 쇼윈도우와 앞길에 꾸며진 아트리움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초기모습은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외부지역 작가와 지역작가들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다 더 새로운 공공예술의 첫 걸음을 내딛고 차츰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는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외부작가와 지역작가의 어울림이야말로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받



음으로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 중 하나이며 사업 연차가 거듭될수록 ‘지역’에 무게중심을 실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남문화재단의 초기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작가와 활동가들이 결합하였고 2009년 사랑마루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작가와 활동가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었다.

이상훈님은 지역활동가와 성남주민으로서 바라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첫째 공공적인 측면, 둘째 예술을 매개로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부지역의 공공예술 전문가와 지역작가 및 동네 문화활동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민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작업이 되어야만 지속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작가와 지역작가와의 협력사업은 여러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콩닥콩닥 예술공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다른 지역에 온 작가들과 성남 토박이 작가들이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남이 내 고향,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성남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그 부분이 작품에까지 잘 반영되지 못했구요.”

옆에서 박진영님이 거든다. 박진영님은 성남에서 꾸준히 벽화를 그린 작가이자, 2007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공단유형 ‘콩닥콩닥 예술공간’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 2008년 ‘藝·社로운 만남’에서 예술감독을 맡았다.

“초기에 했던 공공예술분야의 사업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벽화 미술관 사업취지에 동의했고,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외부작가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점은 동네에서 직접 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죠..”



태평 4동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의 발행인이자, 태평4동 제4복지회관 3층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김성수 님도 말을 보탠다. 김성수 님은 태평4동의 이런저런 많은 봉사의 결과로 개인 작업실을 지원받고 있다. 벽화 미술관 사업 '태평동 환타지'에는 작가로 참여했다.

이상훈 님은 지금 모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남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오랫동안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함께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연계했던 사람들이니 본 사업의 의의와 방향에 동의를 한다면 함께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보자고 제안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이어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여러 동네에서 꾸준히 시행된 동네만들기 사업을 통합적인 체계로 연결해 주고 매개체로서 기능할 문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와 더불어 향후 각 동네의 주인인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support'의 개념인 것이라는 항상 염두에 두자고 했다.

조직구성 및 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역인 '아파트-은행2동', '시장·상가-상대원시장', '사랑방 연계-수진1동'을 기본으로 하고, 태평4동과 도촌동을 포함하여 총 5개동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태평4동은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도촌동은 새롭게 만들어진 동네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 시도해보자는 의도로 선정했다.

성남주민으로서 알고 있는 각 동네별 특징을 살려 각자 1명씩 세부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 계획하기로 했다. 은행2동 은행주공아파트는 기존의 문화배움터, 상대원시장은 신나는 라디오 방송과 원다방, 태평 4동은 한울기자단과 사진동호회 '시간의 기록'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획하기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수진1동은 주민대상의 문화프로그램과 공공예술 영역의 콘텐츠를 찾아보기로 했다. 도촌동은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으로 구상하기로 했다.



또, 빠듯하게 남은 공모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동네별 팀장으로 은행 2동 주공아파트는 이상훈, 상대원시장은 한유진, 수진동은 박윤부, 태평4동은 김성수, 도촌동은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미술 영역에는 박진영,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는 박윤부, 위크숍 및 교육지원은 이수철, 프로젝트북 총괄은 이초영 작가가 맡기로 했다.

공모선정결과와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팀'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묶이게 된 순간이었다. 참석한 장노현 교수님도 '성남출신의 지역활동가들이 직접 동네사업을 한다는 점은 여러모로 뜻 깊은 일이다'고 격려해주셨다. 약 일주일 가량 남은 공모 마감일, 각자 마음이 분주해졌다.

□ 공모 개요

- 공 모 명 : 성남문화재단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프로그램 일반 공모
- 공모내용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합적 체계로 연결해주는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사업지역 : 성남문화재단 3개 유형 시범 사업지(아파트-은행2동, 시장·상가-상대원시장, 사랑방 연계-수진1동)
- 공모금액 : 100,000천원
- 신청자격 :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팀(단체, 개인그룹)
- 심사일정 : · 1차 서류심사 /
· 2차 기획안 프리젠테이션(7월 17일 14:00)
- 최종발표 : 2009년 7월 20일(월) 18:00

□ 공모제안 요청사항

- 1단계 3개년(2006~2008년)에서 동네 개별로 진행되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2단계 5개년(2009~2013년) 동안 통합적 체계로 연결해 주는 사업방향 제시
- 3개 유형별 사업(아파트-은행2동, 시장·상가-상대원시장, 사랑방연계-수진1동)에 대한 추진 계획
- 시범사업지 특성에 따른 선택 프로그램 추진
 - 공공(커뮤니티) 예술 : 전문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문화공동체 예술사업
 - 동네클럽 네트워크 :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결 고리를 마련하여 동네의 핵심 주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 계층별 프로그램 : 동네의 다양한 계층을 연결하는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동네 생활이야기 : 동네별 특성을 살리는 마을 이야기 발굴
- 프로젝트북 원고 및 영상을 통한 결과물 계획
 - 2009년도 3개 유형별 사업의 전체 추진과정을 상세히 담은 프로젝트북 원고(사진 포함)와 영상(각 유형별 '동네소개영상' 및 '이야기영상')을 성과물로 제출할 수 있는 추진 계획

〈성남문화재단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공모 과업지시서, 일부 발췌〉

□ 과업의 배경 | 과업의 해석

1단계 사업의 한계, 과제
 지역 주민들의 동네만들기 사업,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 등에 한 인식 공유 부족
 지역 주체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 사업기획, 홍보, 문화예술전문가 연계, 행정 등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운영 대안 마련의 어려움
 동네만들기 사업 중 성남지역 행정, 문화예술단체, 복지기관 및 시설 등의 소외
 2단계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도시, 시민, 동네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공동체 시스템 형성
 시민주체 사업방식의 안정화와 각 개별 사업의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문화재단, 시민클럽, 동네주민의 참여와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성남시 관련 부서와의 통합적 상 공유와 개별사업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문화도시 정책의 완성 단계인 3단계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대 기반 마련

〈'사랑마루' 제안서, 일부 발췌〉



공모지원

우리 팀 모두에게 너무도 분주한 일주일이 지나갔다. 각 동네별 팀장들은 자료를 모아 웹하드에 올리고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기 쉽게 요약하고 PPT를 만드느라 연이은 밤샘이 계속되었다.

전체 프로젝트의 이름을 ‘문화통합네트워크 사랑마루’라 짓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사업’을 통합적 체계로 연결해주는 구심체로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시스템의 중심으로 확장시켰다.

‘사랑마루’ 조직을 마을사업팀, 공공예술지원팀, 교육지원팀, 기록팀으로 구성하였다. 마을사업팀은 팀장, 공공예술 담당자, 기록담당자(프로젝트북 작가, 영상작가)이 구성원이며 교육지원팀은 시기별, 행사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공공예술지원팀에는 성남문화재단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작가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지원팀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교육 및 동네별 강좌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다. 기록팀은 각 동네별 프로젝트북, 영상제작 담당자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 모든 구성원은 지역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돕고 네트워킹되는 구성원은 성남문화원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협력요청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동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씩 보태지고 완성되는 제안서를 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꽤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더불어 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새로운 시도, ‘새롭다’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설렌다.



각 동네별 세부계획 간단 정리

1.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 ‘폴장환상’

- 2009년 문화배움터에서 8개 강좌 진행 중. 지속적으로 유지
- 화재로 소실된 폴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 재확보

2.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원다방’

- 상대원시장 사랑방 운영위원회 구성 (동호회 반장, 상인회, 주부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운영위원회)
- 원다방 환경개선 리모델링

3. 수진1동: 솟골 사랑방

- 문화배움터 5개 강좌 (한지공예, 신문지공예, 드럼반, 색소폰반, 영상반)
- 소곤소곤 이야기 골목 (골목 안의 아트벤치 및 평상 설치)
- 하늘을 달리는 옥상텃밭 (20여개 가구의 이어진 옥상에 텃밭을 조성 - 이후 수확물 반찬봉사)

4. 태평4동: 한울 사랑방

- 3기 기자단 모집 및 교육
- 사진강좌 개설 및 강좌 진행
- 한울기자단 후원회 및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5. 도촌동: 섬밭 사랑방

-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기획
- 각종 문화예술교육과 동네 역사와 유물을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결과 발표와 워크숍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여 2차 프리젠테이션을 잘 끝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공모결과가 발표되기로 한 날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모여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은 저녁 6시. 6시 직전, 성남문화재단 웹사이트에 공모결과가 발표되었고 우리 사랑마루 팀이 선정되었다! 모인 사람들은 ‘이제 일할 일만 남았네!’ 라고 짧은 농담을 하며 공모선정을 자축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를 가져야 하는가, 사업계획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만들기 사업’은 무엇인가.’ 등의 이슈에 대해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고, 그 결과 다음주에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가지기로 했다.

그 다음주 금요일, 성남시청 앞 미디어공동체 늘봄 사무실에서 12시에 모였다. 태평동을 시작으로 수진동, 은행동, 상대원시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도촌동은 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이 세워지고 협력기관, 단체가 확정되면 답사하기로 했다.

태평동 금빛초등학교의 벽화를 지나서 김성수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태평동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골목길을 함께 걸었다. 그 다음, 한울기자단과 사진동호회 ‘시간의 기록’의 교육이 이뤄진 태평4동 제4복지회관에 위치한 김성수 팀장의 작업실을 들렀다. 태평동 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영장공원. 때마침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한낮의 더위를 씻어내고 있었고 곳곳의 정자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쉽게 걸어나가 물놀이를 즐기고 숲 속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동네 공원, 그런 공원을 가지고 있는 태평 4동 주민들이 참 부러웠다.

수진동 답사에서 제일 처음 들른 곳은 수진동 성당이다. 성남시 최초의 성당으로 60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진동 성당은 주민들의 삶에 한층 가까이 가기 위해 여러가지를 시도를 펴하는



중이었다. 그 중 한 가지가 문화교육 관련 시설을 구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었는데 카페 Angels를 비롯하여 각종 강의실, 컴퓨터 기자재 등을 이용해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사랑방문화클럽이 ‘문화배움터’를 진행하였다. 강좌 종류로는 한지공예, 신문지공예, 밴드부, 영상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회원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강사로 참여한 사랑방문화클럽들도 동호회가 탄탄하게 구성될 때까지 함께 지원활동을 할 의지가 있었다. 따라서 7월 19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문화제’, ‘사랑방 제 7호 조인식’을 기점으로 문화배움터를 1차로 마감하고, 9월부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에서 5개 강좌를 진행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때마침 소강당에는 누군가 기타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번 문화배움터에서 조직된 ‘사랑방 밴드부’에서 활동하던 회원이라고 했다. 이 곳이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큰 소리의 악기를 연습하기에는 적당하다고 한다. 또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Angels Café는 지역사랑방으로 지정되어 협조가 원활하고 넓은 실내를 갖추고 있어 무척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보였다.

이어서, 수진동 골목을 지나, 옥상 텃밭을 밟상케 한 남영옥 님의 집을 방문했다. 수진동은 독특한 가옥구조로 인해 각각의 건물 면적과 높이가 거의 같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옥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평지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옥상을 텃밭으로 꾸미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이가 좋은 이웃끼리는 옥상에서 곧바로 서로의 작물을 나누기도 한다. 손이 뻗으면 닿을만큼 맞닿아 있는 집처럼, 서로의 관계가 집 밖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은 수진동에서 영상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남영옥 님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이상훈 팀장이 ‘하늘텃밭’을 제안하게 되었다. 따라서, 약 20여개 정도 가구의 이어진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화단과 화단이 일렬로 이어지게 배치한다. 텃밭이 가까운 집끼리는 아치형의 넝쿨을 설치해서 이어지게 만들어 더운 여름날, 하늘을 덮어주어 한적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각종 야채를 심어 주민들이 키운 다양한 작물들의 일부는 수진동 성당 봉사반의 반찬봉사에 이용하기로 했다.



‘소곤소곤 이야기골목’은 주민들의 원하는 곳에 아트 벤치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골목마다 대문 앞턱의 계단이나 돛자리, 깔개 등에 앉은 주민들을 위해, 또는 지나가다 힘든 어르신과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과 잠깐 앉아있고 싶은 학생들의 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벤치, 의자마다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적인 쓰임, 스토리를 가지게 하여 편히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혼자서도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려 했다. 실제로 돌아보니 각 골목들이 정확히 이삿짐 차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정도 밖에 되지 않아 벤치, 의자 등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큰 숙제가 생겼다. 차츰 더 구상안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했다.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 풀장에 도착하니 예쁘게 단장되었던 풀장 모습을 담은 현수막이 한쪽 벽에 걸려있었다. 2년 전, 버려진 수영장 탈의실에서 커뮤니티 방으로 새 생명을 찾았던 공간인데 작년 내부 화재로 그늘음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현재 은행 2동 주민센터 및 주변장소를 빌어 꾸준히 문화예술 배움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커뮤니티 방이 다시 생긴다면 정든 이 곳으로 다시 옮겨올 의사가 충분했다. 커뮤니티 방이 생긴다면 사람들의 말소리로 북적일 풀장이 연상되었다.

은행동을 돌아본 후, 상대원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전부터 ‘원다방’에서 라디오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첫 방문이었다. 원다방 내부에는 커뮤니티방과 함께 오른쪽에 작은 스튜디오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당시 방송을 잠시 쉬고 있는 기간이라 스튜디오의 마이크만이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튜디오 정면인 바깥쪽에 비치된 의자와 테이블은 처음의 콘셉트인 ‘다방’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커뮤니티 방에는 그간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의 작품, 기록한 사진 등이 곳곳의 선반에 놓여 있었다. 원다방을 들르는 주민, 상인들은 진짜 옛날 다방 분위기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방에도 수납공간을 늘이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오후 12시부터 약 6시 30분까지 4개 동네답사가 모두 끝났다. 일행들은 모두 이수철 연구원의 누



님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상림마을로 떠났다. 장을 보고 도착하니 8시 가량. 마당 한 켠에 모깃불을 피워놓은 모습은 영락없이 정취있는 시골집이었다. 이수철 연구원의 누님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왜 이리 늦었느냐’며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서둘러 저녁을 먹고, 약 10시 가량부터 동네별 세부계획을 세세하게 살펴기 시작했다. 오늘 동네를 돌아본 소감을 각자 이야기한 후, 동네별 팀장들의 실행 계획을 듣고 사랑마루 팀의 운영, 전체 추진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중간중간 사업진행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 해결책 또는 보완방법, 여러가지 대안 등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어느덧 시간은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잠시 후, 숯불에 구운 고기와 신선한 공기를 안주 삼아 한 두 잔의 술을 기울이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리로 바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사랑마루 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일하는 공동체가 필요했다. 더불어 동네만들기 사업을 위해 사랑마루 팀만이 편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랑마루는 물론, 각 동네마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일하는 동안 즐거움을 만끽하는 존재가 필요했다. 더 나아가 동네별 운영위원회가 바로 세워지면 ‘사랑마루’ 팀은 그 옆에서 거들고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마루 팀원 모두의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같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각자의 비전을 밝히고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 열정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비전을 밝히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그 일이 실현된 후 먼 훗날 지난 이야기에 대해 신나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든든해졌다. 시골의 여름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모깃불은 서서히 꺼져갔다.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프로그램 일반 공
모 종합 심사평

.....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난 3년간 지
역 문화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
시키는 대표적인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 문화공동체 사업이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사업에 그쳤다면,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보다 지속적
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문화참여를 견인해 내는 중요한 성과들을 만
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파트 공동체를 특성화한 은행동, 재
래시장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상대원시장 등 성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려 지속할 만한 대안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이번 공모사업에서 심사위원들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속하면서도, 성남시
의 다른 동네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동네만들기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다. (중
략)

두 번째 제안 사업은 사업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방향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
와 계획의 수립이 잘 되어있었다. 다만, 은행동, 상대원 시장, 수진동
의 3개소 외에 태평동, 도촌동 등 2개소를 추가하여 사업수가 늘어나
서사업기간과 예산을 대비해 볼 때 모든 사업을 고르게 수행해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었지만,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고새로운 문화공동체의 발굴을 기대할 수 있었다. 사업계획 전

반을 살펴 볼 때 동네사업에서의 예술적 상상력을 더욱 발현할 수 있
는 방안의 강구와 동네마다의 핵심사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매
우 중요하며, 그를 위해 예산에 대한 조정 및 세부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문화기획자들의 발굴과 교육에 있어 강좌 프로그램만으로 부족
하다는 심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을 통해서 지역의 실무자들을 양성하는<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 사업은 현실적인 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연구와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9. 7. 20

2009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일반 공모 심사위원회

.....

□ 2009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프로그램 일반 공모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
백기영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팀장)
심사위원
서정문(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김석홍(구로문화재단 공연사업팀장)
오진이(서울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우상훈(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

INTERVIEW

“저와 아내가 다녔던
학교를 제 아이도 다니
고 있습니다.”
사랑마루 총감독
은행동 팀장 이상훈

“2006년이었어요. 태평동에서 동네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무렵이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미디어공동체 ‘늘봄’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태평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셨지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태평동의 모습은 태평동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찍으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침부터 비가 추적이던 8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상대원시장 원다방에서 사랑마루 정기 운영 회의를 막 끝낸 이상훈 감독이 선풍기바람 아래 한숨을 돌리며 밝은 말이다. 이상훈 감독은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프로젝트 총감독이자 5개 동네별 사업 중 은행동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도시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 프로젝트로부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함께 했던 이상훈 팀장이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타 지역 공공예술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많았던데 반해, 성남의 동네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체로 활동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랑마루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네트워크입니다. 원래 제안서 낼 때 당시 이름은 ‘이웃이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랑방과 사랑방을 연결해주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랑마루’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과 팀 이름을 ‘사랑마루’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감독이 말하는 ‘사랑마루’라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외부에서 초청한 전문가들의 노하우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일정 기간 참여한 후에는 지역과 멀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사랑마루는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의 예술가, 작가, 기획자, 활동가들이 모여 ‘내 고향, 내 고장 성남’을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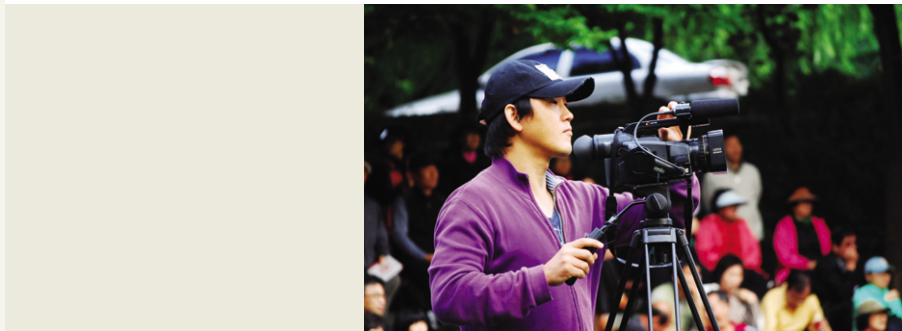
“1992년도쯤이었죠.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였어요. 당시 터사랑 청년회라는 곳에서 청년학교를 열었어요. 풍물, 문학, 역사 등의 문화강좌가 개설되었죠. 이후, 1996년도에 청년학교가 청년대학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약 14개 동아리로 구성된 연대모임이 있었는데, 직접 활동하면서 든 생각이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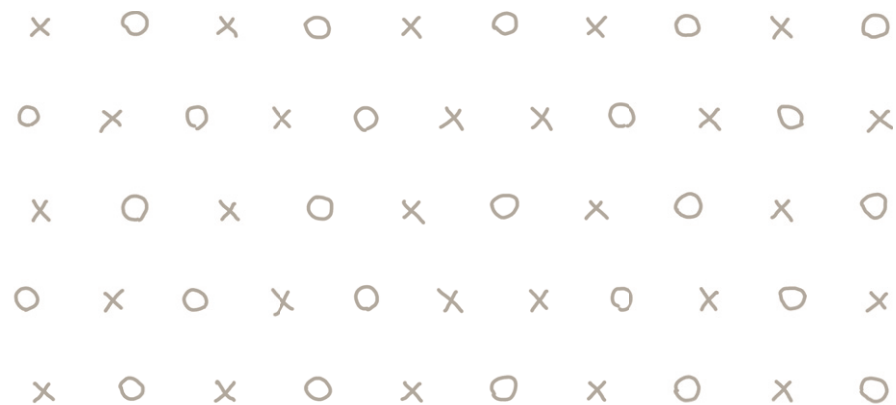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온라인 동호회가 붐이었던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에서 ‘성남’을 키워드로 동호회 검색을 한 이상훈 팀장은 검색된 온라인동호회가 수 백 개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 동호회들과 같이 청년문화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그는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소박하게 사건도 치고 고민도 하던 차에 미디어공동체 ‘늘봄’을 만들었다. 늘봄은 2005년부터 공동체 소통을 위한 미디어교육과, 마을, 동네단위의 미디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쪽 성남에서 살고 있어요. 제 아이도 저와 제 아내가 다녔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한 번도 성남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떠나서 살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저에게 성남은 그야말로 ‘터’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이상과 삶의 목표를 함께하는 곳입니다.”

(인터뷰어 _ 서진영)





같이 = 가치

사랑마루는 동네별로 자발적인 활동이 꾸준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네별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고 동네를 이루고 있는 주민과 유관 기관, 단체 등이 서로 네트워킹 되어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네별 조직을 구성할 때,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력자, 조절자의 역할을 사랑마루의 몫으로 여겼다.

사랑마루 팀은 어떤 대상과 네트워킹했는지, 어떤 협력자와 일을 도모했는지, 사랑마루 팀원들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함께 하자

5개 동네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동네별 팀장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점은 '관계맺기'이다. 우선 동네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했다. 협력의사를 가진 기관 및 단체들과 '동네만들기 사업'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자'고 청했다. 이렇다 보니, 협력기관 및 단체, 주민모임의 허브인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제일 많은 정성을 쏟았다. 여기서 뜻을 모은 구성원들이 훗날, 동네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최우선, 최후의 목표로 활동했다. 동네별 운영위원회는 강제성은 없으나 자발성을 토대로 한 유연한 조직이어야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사랑마루 팀은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별 주민센터, 학교, 기관, 사회단체 등을 만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주민모임과 문화배움터 참여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공공예술을 담당할 지역 작가들에게 예술활동의 즐거움과 공공성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지속적인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사랑방문화클럽과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했다. 이 안에서 엮이는 관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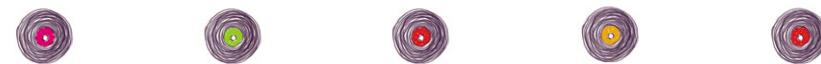




은행동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함께 한 '폴장환상'의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주부들이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는 은행주공아파트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서서히 자리잡아 나갔다. 내 아이, 우리동네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차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이웃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스스로 찾고 발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은행2동 주민센터, 배움터 회원의 집과 사설공간 등을 이용하여 화재로 잃은 폴장 내 커뮤니티 공간의 간극을 메우고 있었으며 지난 2년간 은행주공문화축제에 여러 개의 사랑방문화클럽이 찬조출연했다.

폴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되살리고 점차적으로 성장해가는 주민들의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은행주공사랑방 폴장환상' 운영팀을 구성하여 실무 운영을 담당하며, 은행주공아파트 지역 문화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상대원시장의 경우, 현재 '원다방 라디오'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주부모임'과 '상대원시장 상인회'의 상인들, 지역관련 인사 및 기관으로 이뤄진 '상대원 사랑방 운영위원회'의 조직을 목표로 삼았다. 상대원시장을 삶터라는 이름으로, 일터라는 이름으로 교집합을 삼고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화합이 절대로 필요했다. 라디오방송이라는 콘텐츠는 시장의 활성화와 삶의 즐거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든 변함이 없으며 모두의 관심과 노고가 조금씩 축적되어야만 빛나는 순간들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에 앞서 원다방 내 공간을 새롭게 꾸며달라는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수진동은 수진동 성당과 김동진 주민신부님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사랑방 7호’ 인 수진동성당 Angels café를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그에 따른 빠르고 유연한 협조 등은 앞으로 공간 쓰임의 좋은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 주민들의 채널역할을 해 준 수진1동 주민센터 행정지원팀, 통장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주민자치 조직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태평 4동의 경우는 다른 동네와는 차이점이 있다. 2009년부터 한울기자단과 사진동호회 ‘시간의 기록’은 태평4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정식 등록되어 교육장소가 확보되었다. 또, ‘시간의 기록’은 한울기자단의 어머니들이 활동하는 동호회로서 태평4동, 한울기자단, 사진이라는 3가지 매개체를 중심으로 한울기자단과 ‘시간의 기록’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의 기록’의 회원으로 태평4동 유광영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박건화 위원장, 최성은 시의원이 참여하여 주민들과 사적인 친분을 쌓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지역적 문제와 현상까지도 두루 살피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다.

현재, 한울기자단 학부모 모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의 기록 회원, 관심 있는 주민들까지 포함된 태평동 사랑방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고민 중이다.



도촌동은 새롭게 조성된 동네라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도촌동의 특색과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이 때, 찾아간 성남 YMCA에서 아파트 단지별 특징과 구성원의 비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새날복지회는 동네만들기 사업에 충분히 공감하며 흔쾌히 장소를 협조해주었다. 특히, 도촌동 내에 즐길만한 문화예술적 환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된 ‘옛날옛날 우리섬말’ 프로그램은 모임 구성원의 높은 참석율과 단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동생, 또 그 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모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첫 시도에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랑마루 프로젝트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매주 회의하고 함께 점심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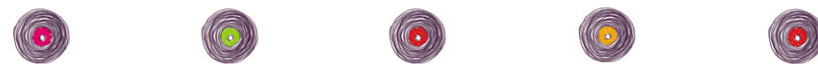
사랑마루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다. 회의 장소는 동네별로 바뀌가면서 열었는데 은행주공아파트 풀장환상, 수진동성당 사랑방 7호, 상대원시장 원다방 등에 모여 회의가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덕에 수진동 성당에서 내려가다가 왼쪽에 위치한 '시골밥상'의 어머니가 음식솜씨가 뛰어난 것을, 상대원시장 원다방 1층의 명인만두 음식이 무척 맛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 2역은 기본

사랑마루 팀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다른 역할을 보태서 활동했다. 박진영 팀장은 은행동 풀장 건물 외벽 디자인과 리모델링, 수진동 텃밭들과 화단 제작을, 이상훈 팀장은 태평4동 영상반 강사를 맡았고 상대원시장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상대원시장을 자주 오갔다. 박윤부 팀장은 동네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에 사랑방문화클럽 찬조출연의 섭외를 맡았고 태평4동 김성수 팀장은 12월 17일에 있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작은발표회의 전시과트를 맡았다. 한유진 팀장은 은행동 풀장단장과 수진동 화단 제작에 함께 동참했다. 이수철님은 도촌동 프로그램 중 지식모 지역답사 강의를 맡았고 나는 도촌동 섬말 프로그램에서 책 내용을 꾸밀 수 있는 갖가지 작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은행동 프로젝트 작가인 김소연님은 은행동 사진반과 함께 남이섬으로 출사도 가고, 상대원시장 음악회에서 진행된 장수사진을 촬영할 어르신들께는 예쁘게 화장을 해드렸다.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북 작가인 정혜원님은 취재하면서 친해진 주부들과 함께 밥을 나눠먹는 사이가 되었고 상대원시장의 영상을 담당한 윤혜숙님은 도촌동에서 책만들기 강사로 활약했다.

이처럼 사랑마루 팀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과 동네에 국한하지 않고 사랑마루 팀의 일이라면 모두 내 일 인양 나눠서 열심히 일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프로젝트였음을, 주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실행 프로젝트였음을,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성남을 위한 미래 프로젝트였음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마루 팀원 뿐 아니라, 함께 한 주민들, 관계자, 단체, 기관들도 앞으로 진행될 '사랑마루'의 행보에 더욱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힘으로 돌아오는지를 알게 될 '사랑마루'의 10년 후를 기약해 본다.



사랑마루 월별 이슈 정리

7월

- 각 동네별 실현가능한 세부계획 수립 및 협조가능한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 방문.
- 아카이브 및 웹 홍보기능을 겸한 사랑마루 블로그 및 카페 개설함.

8월

- 동네별 세부계획 수립.
- 은행동
풀장 내 건물공사 완료.
여름방학 특강(어린이 문인화, 아이클레이, 주부대상 리본공예)을 풀장에서 시작함.
- 수진동
문화배움터 강좌 홍보 시작.(현수막 게시, 성당 주보, 신문 삽지)
하늘텃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통장회의 참석, 통장 및 반장 면담 예정.
수진 1동 행정지원팀장 만나서 하늘텃밭 및 소곤소곤 이야기 골목에 대한 브리핑.
- 상대원시장
장비점검기간을 가지기 위해 라디오방송 중단된 상황이며, 원다방 내부공간 리모델링 구상.
아나듀오 양성과정 시작.
- 도촌동
가족단위 역사탐방 프로그램 '옛날옛날 우리섬말' 기획안 확정.
협력 단체 및 장소 물색.
- 태평동
한울기자단 3기 모집 및 한울기자단 후원회 모임.
- '사랑마루' 블로그 완성(www.onlinesarang). 월 1회 뉴스레터 형식의 게재용 콘텐츠 작성함.
- 사랑마루 팀의 소통창구는 '사랑마루' 카페(café.naver.com/sarangmaru)의 '스텝게시판'을 이용.

9월

- 은행동
풀장 내 커뮤니티 공간 오픈식 개최. (다과회 형식)
- 수진동
문화배움터 강좌 시작.
밴드부를 드럼반으로 변경.
하늘텃밭과 소곤소곤 이야기골목은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신청받아 하늘텃밭 15가구, 이야기 골목 1곳 설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1곳에 시범적으로 화단 설치하기로 결정.
하늘텃밭 화단을 제작 완료.
- 상대원시장
원다방 내부공사 완료.
- 도촌동
모임 장소, 새날복지회 공간으로 결정.
프로그램 포스터와 리플릿을 도촌초등학교, 새날복지회, YMCA, 아파트 2.4.8.9단지에 전달.
- 태평동
한울신문 13호, 신문발행 완료.
사진동호회 '시간의 기록' 강좌 시작.
한울기자단 후원회 모임.
- 문화매개자 교육 '나도야 문화예술코디네이터' : 2회 워크숍으로 구성.
- 프로젝트북 및 영상 전체 콘셉트 논의

10월

- 은행동
'은행주공문화축제'를 풀장에서 개최 (수진동 사랑방 밴드팀이 은행동 밴드팀과 함께 공연)
- 수진동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화단 조성 완료, 하늘텃밭 화단을 운반 및 설치 완료,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4곳 답사
- 상대원시장
시장음악회 개최 (반짝세일, 상인참여 프로그램, 웃음사진 전시회, 무료검진, 영정사진 촬영 등 행사가 동시에 진행됨)
- 도촌동
옛날옛날 우리섬말, 프로그램 시작.
1회 야외답사 (중앙공원 지석묘)
- 태평동
한울신문 14호, 신문발행 완료.
신입기자(신문, 영상) 교육 중, 영상의 경우 첫 촬영.
사진동호회 '시간의 기록' 첫 출사.
한울신문, 한울영상, 시간의 기록 전시 및 취재, 촬영 (태평4동 주민센터 작품발표회, 영장공원)
- 사랑마루 전체 홍보물 : 10월 말 시점에서 결과중심으로 정리.

11월

- 수진동
텃밭모임 : 하늘텃밭 참가자들과 함께 점심식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4곳 답사 후, 협의 조율된 5곳 설치 완료.
하늘텃밭 모임에서 건의한 '흙'운반 및 배달
- 상대원시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 간담회 개최
- 도촌동
야외답사 (매화마을 단지 내 느티나무)
섬말 사랑방 구성을 위해 학부모 1차 모임.
- 태평동
사진강좌 종료.
한울신문 15호, 신문발행 완료

12월

- 수진동
2010년 1월 중순까지 문화배움터 진행.
- 상대원시장
송년회 및 '원다방' 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가칭) 구성.
- 도촌동
프로그램 10차시 종료.
참여한 학부모들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인 모임으로 발전함.
- 태평동
'사랑마루' 태평4동 프로젝트 보고회 : 한울기자단 3기 기자임명식 / 영상발표회
'시간의 기록' 전시 (태평4동 주민센터 내)--
- 문화매개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1차, 2차 워크숍 개최
- '사랑마루' 뉴스레터 총 7호 발행 후 종료.
- 5개동 발표회 개최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작은 발표회

INTERVIEW

"더 큰 상상력을 가집
시다."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부장

“자발적 활동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굳이 알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는 활동이 공공의 성격을 띤 영향력있는 지역사회 활동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박승현 부장은 모든 주민, 모든 커뮤니티가 정책사업의 테두리로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공유하면서도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다.

“성남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마을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창조도시, 성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이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 관련 클럽, 동호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동네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공적인 활동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지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역 예술가(활동가)들과 주민, 재단, 지역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하였다. 내·외부의 전문가들의 결합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아이디어를 주고 빠르게 변하는 흐름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이며, 발전적인 방향들을 서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중심으로 시선을 옮겨 주민과 활동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사는 동네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역할은 매우 주요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예술가, 문화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 ‘사랑마루’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문화클럽, 주민과 동네, 동네와 동네의 소통고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박승현 부장은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만들기 사업의 주체가 되고 지역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성남에서는 수진1동, 태평4동, 상대원시장, 은행주공아파트, 도촌동 등 5개 동네에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동네마다 있는 사랑방문화클럽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공연 및 전시 등을 통해 동네에 거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리는 더 큰 상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갈등, 욕망, 욕구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네를 바꿔나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동네에 무엇이 부족하고 나의 삶을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열망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면 거기에 바로 답이 있지 않을까요.”

박승현 부장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은 상상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더 나은 우리(성남)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어 _ 서진영)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 워크숍 1,2차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는 사랑마루 팀원 스스로의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3년간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발성’은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의 핵심 동력이다. 5대 정책사업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여 스스로 사업 실행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핵심역량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마루 팀원들은 ‘진정한 동네 만들기는 동네에 사는 주민과 작가,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함께 동네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코디네이터가 육성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들을 어떻게, 어떤 교육 내용으로, 누가 교육해야 하는지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1차 워크숍_ 12월 3일 상대원시장 원다방

워크숍의 진행을 맡은 이수철 님의 인사로 1차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을 8월부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원센터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지원(Support)과 네트워킹(Networking)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동네단위의 활동가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생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약 5개월간 사업을 이끌어 간 사랑마루 팀원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여 ‘앞으로 어떻게 동네단위의 활동가, 즉 문화예술 매개자를 양성해야 할 것인가?’ 가 이번 워크숍의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첫 순서로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부장이 발제하였다.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이 밑바탕 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의 실행 전·후의 문화적 온도차를 체감하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가를 고민했고 그 결과 동호회, 커뮤니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동호회와 동네라는 지역 내 동호회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와 커뮤니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가 고민지점입니다.”



다음은 심보선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의 발제로 이어졌다. 심보선 교수는 성남문화재단의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인 ‘창조도시, 창조공간, 창조시민’ 정책연구에 참여하였다.

“시민의 자발적인 힘을 마을로 연결시키려 노력하고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난 연구결과, 자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동호회일수록 마을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만들어진 동호회가 실제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해외 사례는 문제 해결의 좋은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

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영국의 경우, 지역활동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나 자기 조직 내의 삶의 질, 생활의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미국은 전문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아트 운동의 형식을 띠고 주민들은 동원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만족도는 높지만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점을 들었다. 외부 사례를 보며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면서 사랑마루 자체 기획을 만들라는 의견을 주었다.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 등 다양한 연구에 참여한 전수환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날, 기업 대상의 활동에서 자발성은 조직발전에 핵심요소이자 에너지지원임을 인식했다고 한다. 현재 성남은 ‘자발성이 중심이 되는 실행공동체(CoP=Community of Practice)’가 핵심이며 사랑마루의 경우,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CoP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리더들은 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매개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이 모든 연결고리에서 촉진자, 매개자 역할을 해야 전략적 CoP와 더불어 함께 잘 운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은 동네와 커뮤니티, 유관기관과의 점점역할을 사랑마루가 담당하였다. 구성원 하나하나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로 동네로 들어가 연계자, 조율자, 전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각 마을은 공통적으로 사업 구성원들의 관계, 참여자들 간의 갈등, 실행에서 오는 마찰,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 각 동네별 팀장들은 현재 진행된 사업 경과와 잘된 점, 아쉬운 점에 대해 발표했다.

동네별 발표를 들은 심보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라는 새로운 관계, 공동체가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그



렇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의식,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가 주요 이야기 꺼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전수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생활 속 예술이라는 것은 지역이라는 맥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아이덴티티,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술적인 도구를 써서 해결할 수도 있어야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 사랑마루에서 이야기하는 갈등, 커뮤니케이션 등의 문제를 커리큘럼으로 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접학문들과 이론적 체계들을가지고 적용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고민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래의 학문, 지역적 맥락, 사례, 솔루션이 쌓이면 교과, 커리큘럼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박승현 부장은 ‘현실 역량의 이야기보다는 시민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물음을 던졌고, 이상훈 팀장은 ‘주민들이 어느 선까지 문화기획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답변했다. 이 이야기에 전수환 교수는 ‘사랑마루는 문화의 역량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구성을 의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CoP는 티칭(teaching)이 아니라 러닝(learning)입니다. 일터교육이라는 뜻이죠. 즉, 두잉(Doing)이 있는 티칭(teaching)입니다. 여기에 따로 커리큘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주도형 수업의 매커니즘이에요. 즉, 전제는 ‘되어가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랑마루는 성남에서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 지역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남 내부 자원으로 역량을 키운 후 다음 세대에게 그림을 완성시켜 줘야 합니다. 외부 전문 활동가가 여러 지역을 돌면서 활동하는 것은 지속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승현 부장은 현재 시민문화활동가 육성프로그램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랑마루차원에서 그 고민을 놓치지 말고 함께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상훈 팀장은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시스템이나 내용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과정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전수환 교수는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은 실행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며 참여주만 프로그램과 주관하는사람들의 프로그램,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에서 뽑아낸 콘텐츠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실행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승현 부장의 이야기를 끝으로 장장 3시간에 걸친 1차 워크숍이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것을 스스로 계속 확인,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아 나아갈 것이냐에 따라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시민예술가, 문화예술매개자라는 개념이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 지금 상상력이 필요한 사점입니다.”



다음 2차 워크숍에서는 ‘문화예술매개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2차 워크숍 _ 12월 30일 상대원시장 원다방

2차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 교육 대상, 교육 내용등에 대해 토론했다.



제일 처음 전수환 교수가 1980, 90년대의 예술경영의 대두와 문화예술 매개자의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술 생산자 중심의 지원정책과 행정 중심의 도구적인 문화예술 매개자의 형태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예술정책과 예술현장을 연결해주는 문화예술 기획자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대학, 민간 등에 우후죽순으로 '예술경영'이 등장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문화예술 기획인력이 과잉 생산 되었고 본래 의미의 문화예술 매개자의 위치 찾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예술가 그룹과 정부, 기관의 중재역할,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자 갈등 해결의 솔루션의 역할까지 문화예술 매개자의 의미는 더욱 더 다차원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예를 들어,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예술 콘텐츠와 사회적 스킬 등의 필요역량을 그룹화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술에 대한 식견과 소양, 경영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외국어 역량 등의 종류로 나눠서 역량을 매핑(mapping)합니다. 역량맵 구성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랑마루 팀원들과 주민들, 참여자들의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후, 현장에서 뛰는 주민들(실행자), 사랑마루 팀(연계자, 조율자)의 역량맵을 2가지로 따로 구성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이후, 교육을 통해 차츰 요구하는 역량과 바뀌어야 할 역량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커리큘럼을 수정, 보완해가면 되죠. 문화예술 매개자의 유형을 정하고 각 유형마다 연계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이 종료되면 학습성과를 평가한 후, 레벨링합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더 교육해야 하는지, 지원해야 하는지가 밝혀지게 되죠. 여기서 지원은 보상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최종 평가와 보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되는 문화예술 기획자 육성 시스템입니다."

심보선 교수는 미국에서의 문화 매개자의 의미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미국에서의 문화매개자는 60-70년대 문화 노동자(cultural worker)라 불리는 일종의 동네 예술가였습니다. 이러한 동네 예술가는 예술을 매개로 커뮤니티의 발전을 추구했죠. 정부 차원에서 문화민주주의 담론이 등장하면서 문화매개자를 지원하는 정부기구인 NEA가 설립되었고 지역 문화를 매개로 하여 발전을 거듭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적인 교육 영역에서 예술 경영이 등장하였고 예술교육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문화 매개자들은 사랑마루의 구성원과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주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공적인 교육 영역에서는 이들을 교육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합니다."



이상훈 팀장은 은행동 사업에 참여했던 주부들이 사업초기에 기획 및 행정업무 등을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되물었다.

"동네에서 주부, 아줌마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죠. 참여하는 객체가 참여하는 주체로 위치가 바뀌다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도 생기고요. 프로그램 기획, 조직 및 커뮤니티 구성, 원활한 행정처리 등이 요구되고 실제로 능숙해야 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커리큘럼도 구성이 가능하겠죠?"



이 물음에 전수환 교수는 앞서 이야기에 설명을 덧붙여 사업 참여자들의 유형을 4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 리더, 행정 서포터, 전문가 서포터 등으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심보선 교수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교육과정은 역량을 갖춰나가는 동시에 왜 그 역량이 의미가 있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체성이며 능력과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상대원시장 한유진 팀장은 성남에서 꾸준히 공동체 운동, 문화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성남문화재단이 동네만들기 사업의 지형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시킬 것인가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랑마루 팀과 같은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민간과 정책의 틀 안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시사점을 던졌다.



이상훈 팀장은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의 교류할만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동네 커뮤니티를 엮어내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고 이야기하며 사업 참여자들의 동기화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 조직화 되어갈 때, 참여자의 동기 부여와 인력양성 두 가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수환 교수는 이상훈 팀장의 의견을 받아 ‘자발적 영역에서 하는 활동을 행정적인 부담을 안으며 공적으로 활동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고 하며 문화예술 기획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을 이루는 네트워크에 대해 여론을 만들어내고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민활동가 또는 문화예술 매개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 정체성에 근거한 예술가들이 활동하시니까,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사회의 담론들을 논하고 있다가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마루 팀이 할 수있는 특별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현 부장은 자발적인 역할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구상해 볼 수 있겠구나’, 즉 본인의 역할을 스스로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일깨우는 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화시켜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현 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초영 작가가 체계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랑마루 팀이 직접 겪은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책, 체험담과 조언을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커리큘럼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네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지역기반의 사업과 활동을 했던 경험자 등으로 층위를 나눠, 이러한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접근하기 어려워 하는 초보 문화예술 매개자를 사업 유경험자들이 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잘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 등, 양성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잘하는 역량이 발휘되고 그 역량 위주로 업무와 역할을 주면 됩니다. 부족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 보충하면 되고요.”

심보선 교수는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히 지식전달과 양성보다는 지역사업의 공론과 담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각자 본인이 잘하는 역량을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역할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교육 내용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안에서의 역할 정의와 책임감 부여 등이 중요합니다. 거점이 되고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려면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역할 바꾸기, 자리 바꾸기가 있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당신들이 교사를 해라. 책임을 가져라’ 라는 과감한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진영 팀장은 도촌동의 예를 들어 발표했다.

“도촌동에 참여한 가족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참여하신 어머니들에서도



인재가 있어요. 동화구연하는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마지막 시간에 동화구연을 들었죠. 프로그램이 끝나도 꾸준히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1월부터 자발적인 모임을 가지며 비즈공예를 하신 어머니, 천연비누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실 수 있는 어머니,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스스로가 가진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기금 지원 문제이죠.”



시작한 지 2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이제 워크숍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상훈 팀장은 내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코디네이터’는 커리큘럼 구성 이전에 현황파악과 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지역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들이,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황분석자료를 토대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커리큘럼을 보면서 주민들도 ‘앗, 내가 저것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자발성은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요, 올해 2차에 걸친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코디네이터’를 통해 제시된 방향으로 내년에는 전문가들의 참여로 실제 커리큘럼이 구성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대상이나 동네,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감안하여 정리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성남문화재단 이종필 님은 기획자보다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남 내의 구성원이 더욱 많아 ‘문화예술 기획자’ 보다는 ‘문화예술 매개자’라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2010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을 구상하면서 구체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정체성에 기인한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구성이 사업 성과이며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 각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박승현 부장의 말을 끝으로 2차 워크숍이 끝났다.

사업 구성원의 자발성, 자발성을 이끌어 낼 도구와 매체, 도구와 매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치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활동하며 성장하는 사업 구성원들. 2번의 워크숍을 통해 이런 순환 구조가 정책 안에서 실행되고 정착하는 그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다. 빨리 그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II. 만듦 - 도촌동 이야기

만듦
['만들다' 의 명사형]
만들다
: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
새로운 상태를 이루어 내다.



‘옛날옛날 우리섬밭’ 이 10주 동안 어떤 시간으로 꾸러졌는지,
참여한 아이들은 무슨 경험을 했는지,
함께한 어머니들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만듦’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사랑마루는
동네가 원하는 생활문화예술 공간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공예품을 만드는 행위에서부터
작품을 선보이고, 이웃에게 가르쳐주는 행위까지 전 과정을 모두가 함께 합니다.



II. 만들

도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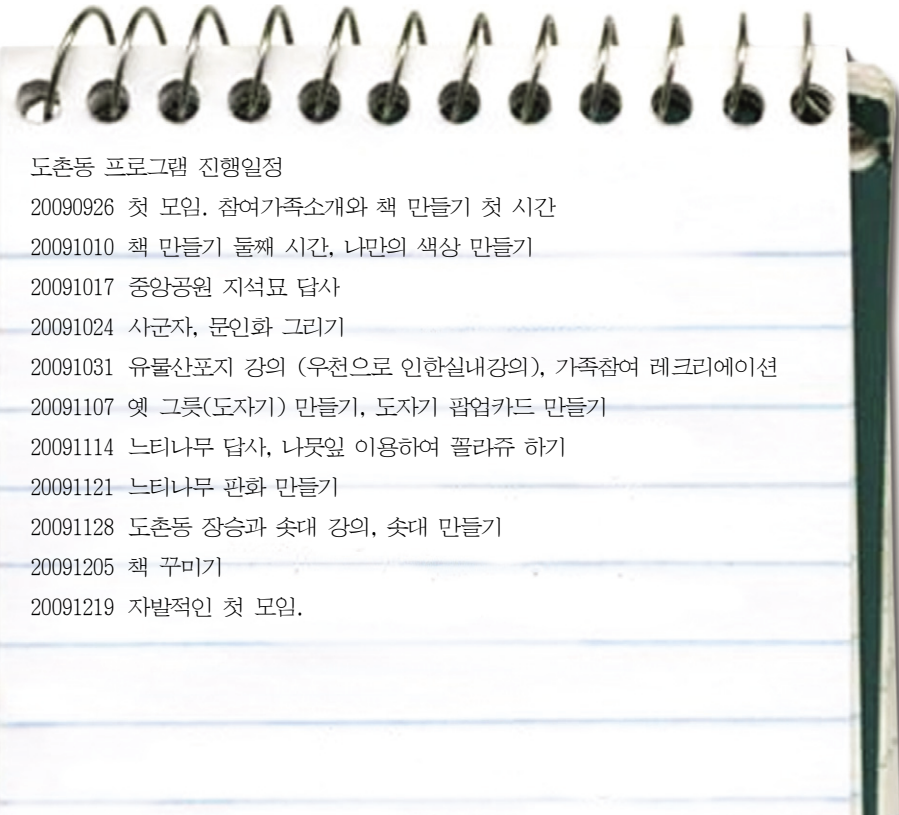
섬말은 도촌동의 옛 이름으로 마을의 앞과 뒤에 하천이 있어서 마치 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마을만 섬처럼 남아 '섬마을' 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화한 것이라고도 한다. 현재 도촌지구 개발로 인해, 도촌동의 주민 구성원 대부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모인 새 가족들이다.



도촌동 문화예술 프로그램명

옛날옛날 우리 섬말

도촌동에서 진행된 '옛날옛날 우리 섬말' 은 초등학교생과 부모님이 한 팀을 이뤄 도촌동 내 유적을 답사하고 관련 유물을 본떠 만드는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이다. 한 주씩 번갈아 실외 답사 1회, 실내 체험프로그램 1회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에서 내가 사는 동네의 역사를 알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사는 동네의 역사를 배우고 이웃간 모이는 자리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동네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촌동 프로그램 진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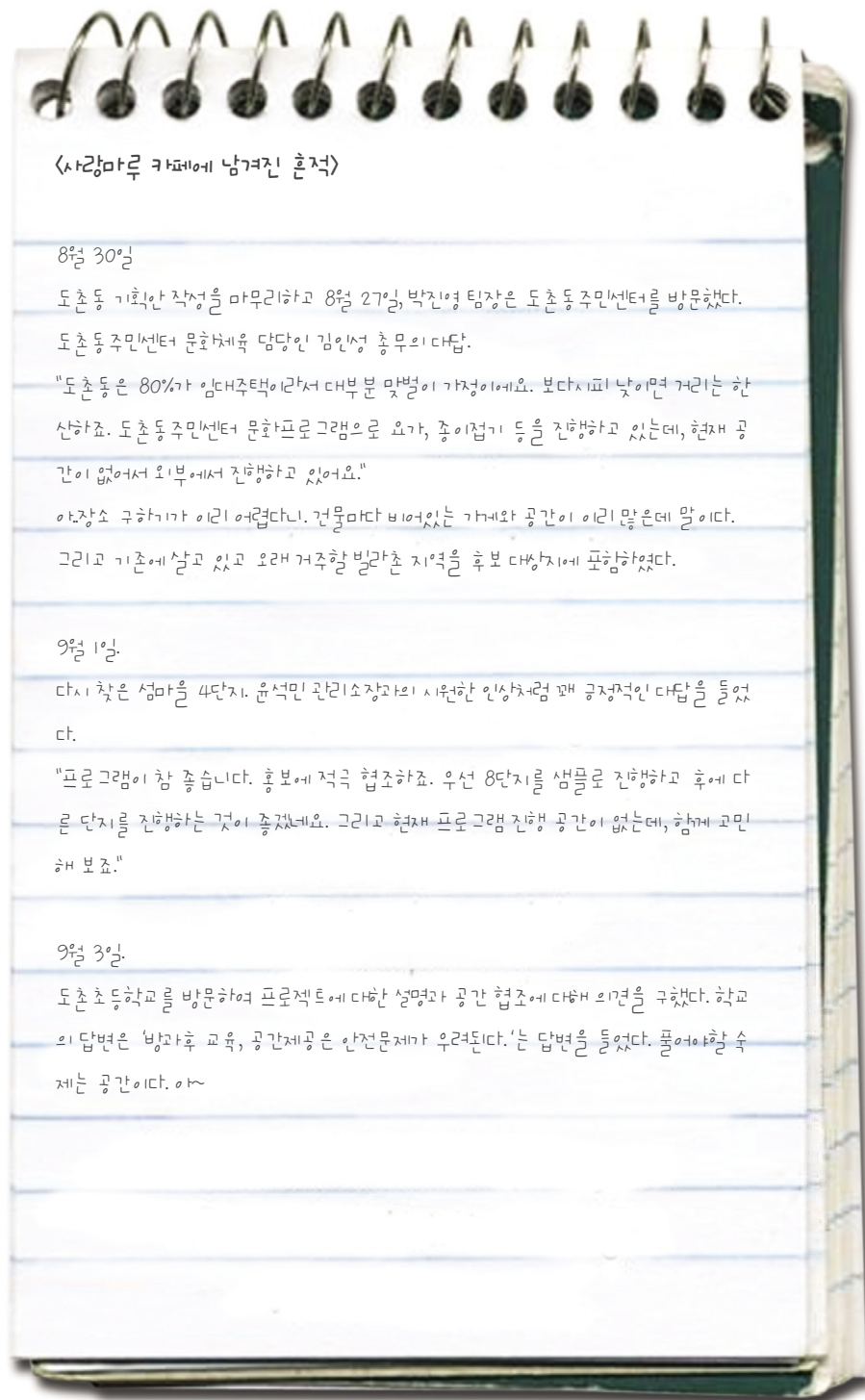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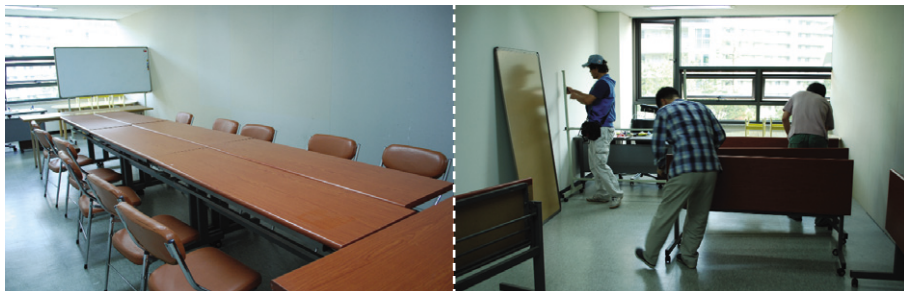
- 20090926 첫 모임. 참여가족소개와 책 만들기 첫 시간
- 20091010 책 만들기 둘째 시간, 나만의 색상 만들기
- 20091017 중앙공원 지식묘 답사
- 20091024 사군자, 문인화 그리기
- 20091031 유물산포지 강의 (우천으로 인한실내강의), 가족참여 레크리에이션
- 20091107 옛 그릇(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팝업카드 만들기
- 20091114 느티나무 답사, 나뭇잎 이용하여 콜라주 하기
- 20091121 느티나무 관화 만들기
- 20091128 도촌동 장승과 솟대 강의, 솟대 만들기
- 20091205 책 꾸미기
- 20091219 자발적인 첫 모임.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한 노력

8월부터 9월까지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박진영 팀장의 활동이 사랑마루 온라인 카페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랑마루 사업이 확정된 후, 도촌 YMCA에 사랑마루 팀원 모두가 방문했다. 모임공간에 대한 의논과 지역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했는데, 반갑게 맞이준 김희정 간사는 도촌동 아파트 단지별 특징과 지역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많은 도움말을 주었다. 모임장소로 적당한 강의실이 있었으나 도촌 YMCA의 이사 문제가 있어서 장소가 변경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다른 장소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후, 모임공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박진영 팀장, 박윤부 팀장, 이초영 작가 3명이 새날복지회를 방문했다. 새날복지회의 입구 옆, 매체실로 쓰고 있는 10평 남짓한 강의실이 교육공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에 필요한 테이블과 의자들의 집기는 '늘봄' 사무실에 있는 여분의 책상과 의자를 옮겼다. 의자가 인원수보다 모자랐는데, 때마침 상대원시장 원다방을 리모델링하여 남게 된 의자까지 공수하니 10가족이 이용할 만한 적당한 규모의 강의실이 완성되었다.

× ○ × ○ × ○ × × ○ × ○





함께 할 가족, 모이세요!

9월 17일, 현재 총 10가족, 24명이 신청했다. 처음에 기준으로 정했던 3학년 이상이 아닌, 2학년 학생들과 참여 아이들이 2명인 가족도 포함시켰다. 참가신청한 모든 가족들에게 박진영 팀장이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하여 첫 수업시간에 대한 안내를 전달했다. ‘옛날옛날 우리섬말’의 첫 시간은 ‘사랑마루’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담길 나만의 책, 가족책을 만들기로 했다.

첫 만남 _가족책 만들기

9월 26일, 토요일. 새날복지회 강의실에 한 가족씩 모이기 시작했다. 첫 시간, 처음 보는 가족들끼리 서먹한 시간이 잠시 흘렀다. 이상훈 팀장과 박진영 팀장이 ‘옛날 옛날 우리 섬말’ 프로그램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과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설명을 마친 후, 두번째 모임인 다음 주까지 10동안의 프로그램 전체 결과를 기록할 나만의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 책 만들기 강사는 상대원시장 영상담당으로 참여 중인 ‘늘봄’ 윤혜숙 실장이 책 만들기 강사로 수고해주기로 했다.

최도현 · 지은이 남매, 김대현 · 서현이 남매, 임기수 · 혜수 남매, 장현성, 박서현(서현이는 모두 3남매인데 약 6주차부터 3남매가 모두 참여했다.), 김지수, 김민정, 총 7가족이 참석한 첫 수업은 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었다. 기수와 현성이, 서현이와 민정이는 서로 같은 반 친구이다.

책을 만들기 위해, 처음 주어진 과제는 ‘우리 가족 문양 만들기’였다. 책의 표지를 천으로 커버링하기 전에 두터운 종이를 이용해서 볼록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가족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담고 싶은 문양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윤혜숙 선생님이 샘플로 만든 책에는 ‘우리 섬말’이라는 글씨가 볼록하고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책 겉표지에 볼록글씨로 ‘우리 섬말’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우리 가족의 문양이나 책에 담을 내용이 나타나는 글씨나 그림, 또는 만들고 싶은 모양을 조금 얇은 도화지에 그리고 오려주세요. 책 겉표지 위에 붙이고 그 위를 천으로 커버링 작업할 거예요.”

문양을 고안하고, 고안한 문양에 맞춰 그림을 그려 오린 후, 문양이 양각으로 잘 나오기 위해 천으로 커버링하고, 작은 틈새 하나하나를 잘 문질러 주니, 2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 다음 두번째

모임에서는 내지에 책뭉음을 위한 구멍을 내고, 고서적 제본 방식으로 책을 묶어 완성할 예정이다.

오늘은 첫 시간이
니만큼, 어머니
와 어린이가 서
로의 모습을 폴
라로이드 사진에
담고 사진을 붙여 자기
소개와 가족소개를 작성해
서 다른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이들은 먼저, 문양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가족소개를 했다.

대현이는 책 표지에 사슴벌레를 꽤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유도 참 재밌다.

“우리 집에선 하루에 한번씩,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하루에 한번씩 싸우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 ‘사슴벌레’라는 4글자를 다 쓰고 싶었는데, 사슴벌레를 가운데 큼직하게 자리잡게 만들었더니 ‘벌레’ 글씨를 넣을 공간이 적어졌단다. 특히, 사슴벌레의 앞발 톱니가 생생하게 잘 표현되었다. 대현이 어머니인 ‘박선헤’님은 동화구연가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도현이는 로켓트, 지은이는 하트 문양을 만들었는데, 도현이의 장래희망은 로켓트 디자이너란다. 지은이는 온 가족이 하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트로 꾸몄다고 했다. 도현이 어머니인 ‘정승자’님은 본인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딸인 지은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기쁘다고 하시며, 가족들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발표로 자기소개와 가족소개를 마쳤다.

현성이는 ‘I ♥ K & J’라고 꾸몄다. 엄마와 아빠의 이니셜 첫 알파벳을 넣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한다. 현성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현성이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수와 혜수 남매는 각자 개미와 큰 별로 표지를 장식했다. 장래희망이 영화감독인 기수는 ‘우리



가족이 부지런해서’, 가수가 꿈인 혜수는 ‘가족이 항상 별처럼 밝아서’라고 설명했다. 기수, 혜수 어머니인 송금숙님의 장래희망은 현모양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모양처’의 꿈을 이룬 것으로 보였다.

큰 버섯부터 작은 버섯까지 3개를 나란히 배치하고 아래쪽에 ‘H ♥ H’라고 표현한 지수는, ‘Happy House’의 준말로 ‘행복한 집’을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버섯 3개는 아빠, 엄마, 지수를 나타낸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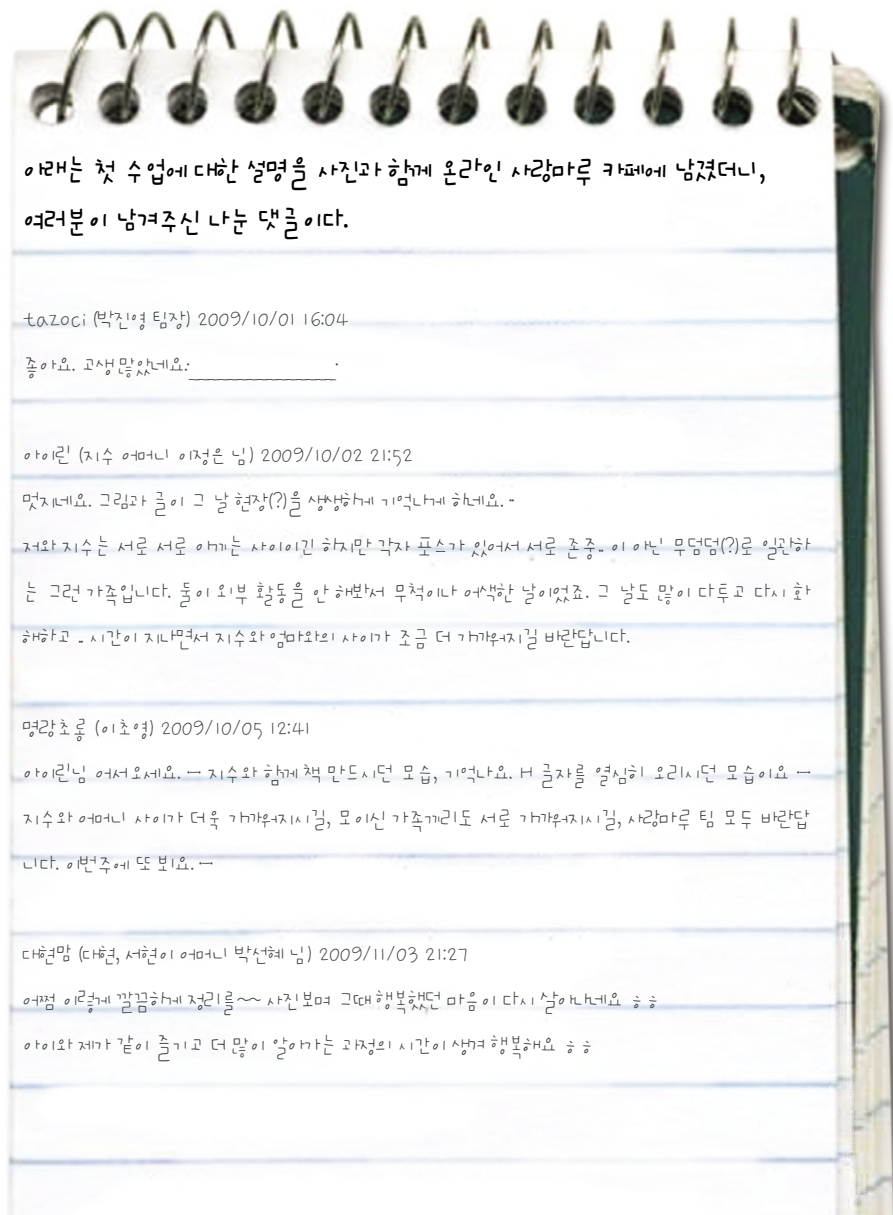
엄마와 무척 닮은 서현이는 ‘LOVE’라는 글자와 함께 5개의 햇살이 있는 태양을 표현했다. 5개의 햇살은 가족 5명을 의미하며, 표지 전체에 ‘태양처럼 뜨겁게 사랑하자’라는 가훈을 나타냈다고 한다. 서현이는 그림과 강아지를 좋아하며 장래희망은 화가라고 했다.

‘독서 Book’이라는 글씨로 표현한 민정이는 집에 책이 많고 항상 책을 읽기 때문에 ‘독서’라는 단어로 꾸몄다고 한다.

엄마와 아이들이 폴라로이드로 서로의 모습을 담은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라는 가까운 사이가 서로의 피사체가 되는 경험은 색다른 경험이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수많은 사진을 찍는 나 역시도 피사체가 되는 순간을 그다지 즐기지 못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



이 찍어주는 사진은 괜히 썩스럽다. 내가 크는 시절만해도 ‘고로 사진이란 특별한 날 찍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손쉽게 찍어 인터넷 공간에까지 올릴 수 있는 시대이다. 현재의 아이들, 어머니들이 서로의 피사체가 되는 순간은 꽤 익숙해 보였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눈에 대고 포즈를 코치 해주면서 렌즈 넘어 보이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는 광경은 유쾌한 토요일 오후를 기억 하기에 충분했다.



나만의 색상 만들기

10월 10일, 박서현 동생인 상혁이가 함께 참석했다. 상혁이는 대현이와 친구이다. 지은이의 동네 친구인 주영이도 놀러왔다. 주영이의 헤어스타일은 파인애플이 연상되는 스타일로 꽤 발랄한 느낌을 주었다.

두번째 시간은 첫 시간에 만들었던 표지와 내지를 모아 고서적 묶음으로 제본하는 방법을 배웠다. 내지의 구멍을 내기 위해선 아이들과 엄마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야 했다. 50장이 넘는 속지의 구멍에 맞춰 타공한 후, 제본 바늘로 책을 꿰매서 묶어냈다. 바느질은 어머니들의 몫으로 넘어갔으나, 지은이는 손수 자신이 하겠다며 스스로 끝마쳤다. 작고 어린 손으로 어쩔 지리 여물고 꼼꼼하게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늦게 온 민정이의 책 바인딩을 위해 대현이 어머니 박선헌 님이 민정이가 어머니인 신기순 님께 꿰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도 보였다.

바인딩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해, ‘나만의 색 만들기’ 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 물감을 이용해서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의 느낌을 표현한 색상을 만들고, 그 색상에 이름을 붙이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색상을 여러 차례 섞어보고, 어떤 이름을 붙일까 고민했다.

섬말 프로그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민정이는 진분홍빛의 색상을 만들었고 ‘붉은 노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노을 색상을 좋아한다고 했다. 물을 너무 좋아하는 기수는 수영장 생각이 나는 한여름색, 혜수는 손톱에 남는 봉숭아 꽃잎색상인 살봉숭아색을 만들었다. 지수는 질푸른 색을 만들었는데 “이 색은 ‘어두운 밤의 바닷가’ 입니다. 어두운 밤에 바닷물 색상을 본 적은 없지만 수영장 물을 보고서 연상했어요.”라고 발표해 지수의 창의력을 살짝 엿보게 해주었다.

현성이는 서로 다른 톤의 색상이 3가지 층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나의 에너지’ 를 표현한 색상이란다. 더욱 더 건강해져서 힘을 키우기 위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색상에서 실제로 역동하는 이미지가 연상되었다. 도현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색상을, 지은이는 ‘아름다운 색의 변화’ 라는 색상을 만들고 설명했다.

이 날, 서현이와 상혁이 납매가 큰 웃음을 주었다. 서현이는 ‘갈매기’ 라는 색상을 만들었는데, 강화도로 놀러갔을 때, 상혁이가 팔에 갈매기가 똥을 싸던 일이 인상 깊었던다. 상혁이는 옆에서 “똥

이 뜨거웠어요!”라고 말해 강의실은 더욱 큰 웃음으로 가득 찼다.

다음주는 중앙공원 지석묘(고인돌) 답사를 위해 야외로 나가는 첫 시간이다.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현이 어머니 박선헌 님이 ‘아이들이 먹을만한 양의 김밥과 물은 가족끼리 준비해서 모두 함께 버스로 이동하자’고 제안했고 그대로 결정되었다.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 아이들 모두 신난 눈치였다. 다음 주 토요일, 절대 비오지 마라!





× ○ × ○ × ○

첫 나들이 _ 중앙공원 지식묘

모이기로 약속한 도촌 농협 앞. 2시가 되니 총 9가족, 25명이 모였다. 이 날은 김준호, 다은이 남매와 조성민, 주영이 남매 가족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도촌동 초입에서 버스를 타고 중앙공원으로 이동했다. 버스 안에는 우리 섬말 가족들로 가득했다.

중앙공원에 도착해서 사랑마루 이수철 님의 지식묘(고인돌) 강의를 들었다. 강의가 끝나서는 풀밭에 편하게 앉아 간식을 먹었는데, 김밥,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메뉴가 등장했다. 간식을 먹은 후, 아이들은 풀밭 옆 운동시설에서 열심히 놀기 시작했다. 사실 아이들에게 강의보다는 뛰어 노는 공간과 시간이 더욱 기억이 남을지도 모르겠다.

이 날, 함께 동행한 한 우장순 작가의 글로 그 날의 분위기를 다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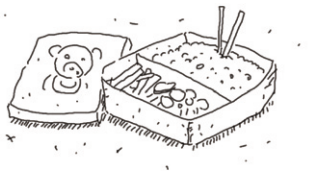
지식묘 답사 (글, 사진 _ 우장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분다. 일찍 도착해서 도촌동 지식묘 답사팀을 기다렸다. 파란하늘과 따스한 가을햇살을 맞으며 가을 기분에 내다보니 시간은 금새 지나고, 이윽고 제법 많은 수의 엄마와 아이들을 만났다. 이 인원이 버스로 이동하느라 수고했다고, 피곤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싱글벙글, 재잘재잘 잘도 뛰어 놀고 있다. 기우였다.

과연 오늘 강의를 통해 이 돌덩이(지식묘)를 알게 되면 이 녀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잠깐 재미난 상상을 해 봤다. 강사로 활약해 줄 이수철 선생님이 도착하셨고, 박진영 팀장님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큰 돌덩어리 위로 올라 만세도 부르고, 저마다 서로 부딪치며 오르던 아이들을 모으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잠시 후, 이수철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수철 선생님은 사랑마루 팀원 이면서 성남문화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 × ○ × ○ × ○ × ○ ×
× ○ × ○ × ○ × × ○ × ○



“여러분이 좀 전에 뛰어 놀던 큰 돌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 고인돌이요~” 성민이가 대뜸 대답했다.

“오~ 고인돌이 뭘데?”

“옛날 사람 무덤이요~”, “거대한 돌을 세워요,” 아이들의 대답이 이어졌다.

지석묘는 도촌동을 비롯해 분당일대에 170여 개가 발굴되었고, 이 중 보존가치가 있는 10여기를 이곳에 옮겨 놓았다고 한다. 형식은 남방식 지석묘로 매장 유물은 없단다. 대부분의 유물들이 분당 개발시기에 발견된 것으로 유물탐사를 통해 발굴되지 못하고, 개발업자들에 의한 것으로 잘 보존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수철 강사의 질문이 이어진다.

“고인돌은 왜 만들었을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묘가 있었을까?”

여기저기서 “예!”, “아니요!” 갑자기 의견이 분분하다.

옛날 사람들은 건축술과 건축도구가 미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인력으로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연스럽게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후에 지위를 과시하거나 권력집단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간 강사 선생님을 주시하던 기수와 성민이는 메모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며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수철 선생님의 강의가 끝난 후, 모두가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 어머니들이 손수 준비한 간식과 도시락을 맛있게 나눠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이를 만들어 뛰어 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었다. 프로그램 이야기며, 다음 모임에서 할 일들.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 학교에서 인사도 주고 받고 많이 친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옛날 우리 섬말’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도촌동 마을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박진영 팀장의 조용하면서도 부지런한 모습, 추진력에 칭찬이 이어졌다. 얼굴이 붉어진 박 팀장님은 괜히 창피했는지 커피를 뿜는다고 자리를 피했다. 팀장님이 배달한 커피의 온기가 따스했다.



그 모습이 좋아 기념사진을 제안했다. 아이들을 빼놓고 엄마들만의 편안한 대화시간이 좋아서 제안한 어른들만의 단체사진. 모두가 수줍은 듯 시선은 도망가고, 아이들이 빠진 사진을 무척 낯설어하는 모습들이었다. 몇 컷을 찍고 난 후에야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유일한 청일점인 박진영 팀장님의 수줍은 표정도 좋았다.

“윤도현 님이었네요? 팀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머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야~”

엄마들의 웃음소리가 커진다.

저물어가는 해 때문인지 가을 바람이 차갑다. 더 놀고 싶다는 아이들을 추슬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20명이 넘는 일행이 다음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안은 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올 때도 함께, 갈 때도 함께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섬말 가족의 첫 나들이, 즐거운 한 때로 기억될 것이다.



사군자 그리기

10월 24일, 오늘 프로그램은 조상의 화법을 배우는 수묵화로 사군자 그리기이다. 전통 수묵화 기법도 배우고, 지난 시간에 답사한 지식묘를 따라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양화 작가이자 캘리그래퍼인 유명현 선생님이 오늘 강사로 선뜻 나서 주셨다.

“붓은 이렇게 잡고... 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유명현 선생님과 보조강사로 도와주신 조은진 선생님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손을 잡고 지식묘와 난초그리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함께 옆에서 째짤이 같이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먹과 붓을 잡았으니 아이들이 조금 점잖아지길 바랬지만,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보다.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나면서 지루해진 개구쟁이들은 복도를 놀이터 삼아 강의실을 들락날락 한다.

완성작을 보니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지식묘를 잘 표현했다. 지식묘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선생님들께 배운 사군자를 그리기도 했다. 대현이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뎡이를 수묵화로 그렸고, 지은이는 지식묘의 모습을 매우 잘 표현해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유명현 선생님은 오늘 참석한 가족들에게 가훈을 써주셨다. 가족들의 가훈이 하나씩 써 내려가는 시간 동안, 친구들이 함께 지내는 토요일 오후가 또 한 번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비가 와서 유물 산포지 못 가다

10월 31일, 아침에 일어나니 밖이 많이 어둡다. 오늘은 도촌동에서 가까운 유물산포지에 가는 날인데, 아무래도 실외 답사는 힘들 모양이다. 12시가 가까워지니 비가 더 많이 오는 듯 하다. 오늘은 실내강의로 진행하고, 답사기록하는 방법 강의와 책 꾸미기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책 꾸미기는 이초영 작가가 담당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기록에 대해 어떤 도움말을 줘야할 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며칠동안 준비하고 정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재료를 꼼꼼히 메모한 수첩을 보며 책을 꾸밀 수 있는 문구류를 구입했다.

가족단위, 아이들 수를 고려해서 다양한 재료를 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여러가지 모양스티커, 스탬프, 색지, 갖가지 형태와 색상의 포스트잇, 디자인테이프, 다이모 등을 골랐다. 되도록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번 생각하고 골랐다.

도촌동 새날복지회에 도착하니 날씨가 꺾어서인지 2시 10분이 되어가는데도 2가족만이 참석했다. 아무래도 신종플루와 날씨 영향인가 하는 순간, 1가족씩 차례대로 들어오더니 2시 30분께 8가족이 자리를 채웠다. ‘참 대단한 열의를 가진 가족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척 감사했다.

이 날 첫 순서로 도촌동 유물 산포지에 대한 이상훈 팀장의 강의를 시작되었다. 도촌동 유물 산포지는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산포지로 여수천과 광주방면의 넓은 지역에4개소의 유물 산포지가 조사되었다고 한다. 모든 지역에서 토기,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는데 분묘에 함께 넣은 부장유물 또는 건물지의 생활식기 등의 유적으로 유추된다고 한다.

유물 산포지의 설명에 이어 참뽕 게임을 했다. 가족마다 참 2개, 거짓 1개를 적은 문장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다른 가족들이 거짓을 찾는 게임으로, 상대 가족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어 가족간의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뽕 게임 덕에, 도현·지은이 남매가 총 4식구인 것, 지수네는 햄스터가 엄청 살고 있고, 기수·혜수네 집은 TV를 보며 함께 잘 웃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정이 가족은 모두 교회를 다니며, 준호네 식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와 함께 사는 7명의 대가족인 것도 알았다. 서현·상혁이네 집에는 서현이 어머니님과 서현이만 안경을 썼단다. 성민이는 야구를 좋아하고 대현·서현이 가족

은 1년에 바닷가와 갯벌을 10번 이상 가는 열혈 바다사랑 가족인 것도 알게 되었다.

게임 시작 전에 어떤 가족이 많이 맞출까를 내기했는데 제일 많이 맞춘 가족은 성민이 가족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이초영 작가가 ‘기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강의했다. 기록은 있었던 일을 조사해서 남기는 일이며 글, 사진, 그림, 영상 등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섬말 프로그램의 경우, 답사와 프로그램이 1주씩 번갈아 진행되기 때문에 기록하기 쉬운 6하원칙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6하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지난 번의 지식포 답사를 예로 들어 6하원칙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기록에 대한 강의 후에 이전부터 꾸미지 못했던 책 내용을 기록하고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재료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책을 꾸미기 시작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도자기, 팝업 카드 만들기

11월 7일, 오늘은 도자기를 만드는 날이다. 이 날은 민정이의 교회언니인 예진이가 함께 놀러 왔다. 오늘 강사를 맡은 도예가 김소형 선생님이 만들기에 앞서 흔히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백자, 청자 등의 간단한 도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만들 도자기는 분청자기이다. 흙을 동글게 말아서 올리는 기법은 코일링 기법, 조물조물 주물러서 만드는 기법은 펀치 기법인데, 2가지 기법 중 원하는 기법으로 작은 사발을 만들기로 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분청토를 만져 그릇모양을 빚기 시작했다. 동그랗게 말아서 쌓기도 하고 놀러서 오목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묻히며 빈 공간 없이 메우는 작업을 했다. 각자 그릇 아래쪽에 쓰고 싶은 글씨로 흙을 냈는데 7살 서현이는 그릇 아래쪽에 예쁜 꽃을 그렸고 혜수는 ‘옛날옛날 우리 섬말’이라고 썼다. 현성이는 자기 이름을, 다은이는 눈을 정구하며 웃는 구름을 그렸다.

그릇을 다 만든 아이들은 화장토를 발랐다. 화장토를 바른 부분은 하얀색을 띠게 되어 분청색과 대비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 붓질하는 기법은 귀얄기법이라고 불린다. 조금 더 특이하게 주영이는 화장토를 바른 후에 작은 네모 조각을 그릇의 바깥쪽에 붙여서 장식했다..

이 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이 온 날이다.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님과 성남투데이 오인호 기자님,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작가 이선희님이 도촌동 프로그램을 취재차 들렀다. 무엇보다 반가운 얼굴들이 도촌동을 찾아주었는데, 한울신문 1,2기 기자들이다. 한울신문에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 대한 기사를 실을 예정이며, 현장취재기사로 도촌동을 택했다는 것이다.

도자기 만들기에 이어서, 내가 진행하는 도자기 팝업 카드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보급 도자기 중, 약 10여종의 도자기 사진과 정보를 담은 프린트물을 나눠준 후, 본인이 원하는 도자기 모양을 그렸다. 도자기 팝업 카드는 도자기를 그린 후, 오려내 카드 안쪽에 부착하여 카드를 열고 닫을 때 세워질 수 있는 효과를 준 것으로 도자기를 그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기수는 반짝이 스티커가 촘촘히 붙어있는 현대적인 도자기를 그렸고, 지수는 ‘백자철화매죽문호’ 안에 대나무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도현이는 내게 장미 그리는 법을 배워서 풍성하게 만개한 장미가 그려진 화려한 매병을 완성시켰다.

○ × ○ × ○ × ○ × ○ ×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울신문의 취재가 있었다. 기수, 혜수 남매와 어머니 송금숙님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어는 시영이, 승민이, 은하였고, 혜빈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부터 여러 각도에서 터를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표로 인터뷰해서 좋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섬말을 잘 알게 되었어요. 3월에 이사를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게 되어서 좋아요.”라며 혜수가 답한다. 기수는 도촌동이 왜 도촌동이 되었고, ‘섬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한울신문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옛날에 홍수가 났는데 하천이 양쪽으로 흘러 섬모양으로 떠 있어서 섬말이라고 했대요.”

어머니 송금숙님은 “우리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 알리고 싶어요. 유료, 무료 문화체험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섬말 프로그램은 정말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박진영 팀장님과 인터뷰도 있었다. ‘옛날옛날 우리 섬말’을 기획하게 된 계기, 참여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자들은 꼼꼼히 메모했다.

섬말 가족에게는 이제 앞으로 4주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 프로그램 중반을 넘긴 ‘옛날옛날 우리 섬말’의 아쉬운 토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다.



〈한울신문 15호에 나온 기수, 해수 가족의 기사〉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문화 역사 탐험으로!

나뭇잎 냄새가 솔솔 피어올라오는 아침이다. 도촌동의 아침은 맑다. 특히 도자기를 조물락대는 아이들의 표정이 아주 맑다.

11월 아침부터 조그마한 손으로 도자기를 세심하게 만들고 있는 가족들이 보인다. 그들이 어찌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나? 그것은 성남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도촌동의 자그마한 프로젝트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문화 역사 탐험 프로그램' 때문. 도촌동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섬 마을이다. 평범한 곳이었던 도촌동이 섬 마을이 된 이유는 홍수가 났을 때 하천이 양쪽으로 퍼진 그 모양이 섬을 닮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사 온 사람들은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마저도 높다높은 아파트 사이에서 생활하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이다. 도촌동에 이사 온 사람들끼리 친해져서 정이 넘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지내기에는 아직 어색하니까, 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박진영(42)씨는 이상훈씨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총 10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했으며, 지금 6차시 모임 차례인데, 그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프로젝트에 참가한 임기수(12), 임혜수(10) 어린이의 가족에 대해서 취재했다. 두 어린이에게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을 묻자, 먼저 딸똥해 보이는 오빠 임기수(12)어린이는 "지식묘에 답사간 것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옛날 역사를 더 재밌고, 쉽게 배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고, 덧붙여서 "이 마을은 그냥 평범한 마을이 아니고 특별한 마을이에요, 그것을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마지막 남은 때까지 정말 열심히 참여 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요." 한편 귀엽게 생긴 동생 임혜수(10)어린이는 "오늘 만든 북아트와 도자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이 재미있거든요." 이에 아이들의 엄마는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한 것을 주제로 발표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했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주 재미있었던데요." 라며 프로젝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료이면서 알찬 프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보다 더 나중에 도촌동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오래 프로그램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다. 도촌동의 가족들에겐 이번 10주 동안의 프로젝트는 머리 깊은 속까지 기억할 만한, 그런 의미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진영(42)씨 역시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나중에는 도촌동 사람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도촌동과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름다운 섬 마을 도촌동, 아름다운 정도 넘쳐났으면 좋겠다.

〈오시영, 김승민, 김은하 기자〉

“지식묘에 답사간 것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옛날 역사를 더 재밌고, 쉽게 배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만든 북아트와 도자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이 재미있거든요.”

“무료이면서 알찬 프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보다 더 나중에 도촌동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오래 프로그램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420살 느티나무, 대자연을 느끼다.

느티나무 답사가 있던 11월 14일, 햇볕은 따뜻했으나 칼바람이 불어 날씨가 제법 차가웠다. 추운 날씨를 뚫고 참여한 5가족은 매화마을 3단지 305동 뒤에 서 있는 420살 느티나무의 아래에 서 있었다. 성남역사문화답사회 회장 손병주님은 성남에 대한 역사, 느티나무와 수호목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품계는 '시나무', 약 18m 높이의 수령은 420살이며 예로부터 죽은 가지라도 집에 가져가 사용하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고 하여 명절이나 제사 때는 꼭 고사를 지내 태평을 기원했던 마을의 수호목이라고 한다. 느티나무와 수호목에 대한 강의를 마친 손병주 선생님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다른 각도로 느티나무와 주변을 바라보길 권했다. 느티나무 앞쪽 광경은 여러 개 동이 뻗뻗히 들어찬 아파트였는데, 느티나무 뒷동산은 건물하나 없는 넓은 풀밭이었다. 그 풀밭을 죽히 10미터 넘어보이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비 내리듯이 흩날리며 장관을 이뤘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따뜻한 봄날의 느낌마저 들었다.



올라간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경사가 급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잔디 썰매를 타기에 바빴다. 발 밑에는 색색가지 낙엽이 쌓여 폭신했고 아이들은 잔디썰매로 바지 엉덩이가 흠투성이가 되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타고 타고 또 탔다. 어머니들은 손병주님이 설명하는 그 일대의 역사와 지형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신나게 놀아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신나게 논 아이들에게 색색가지 낙엽, 여러가지 모양의 낙엽을 주워가자고 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재료이다.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떨어져 있는 단풍잎, 은행잎, 갈색으로 변한 갖가지 낙엽을 주워 주머니와 가방에 넣기도 하고 책 사이에 끼우기도 했다. 그리고 새날복지회를 향해 출발했다.





약 15분정도 새날복지회를 함께 걷는 동안, 민정이 어머니인 신기순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 민정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본인은 독서 지도를 주로 했으며, 다른 어머니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분야와 과목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 현재 섬말 프로그램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적절히 합쳐져서 참 좋다는 등의 소감을 말씀해주셨다. 잠깐의 대화에서 섬말 프로그램에 모인 어머니들의 열정과 의식, 신념 등을 알 수 있었다.



낙엽형태 살려서 표현하기

새날복지회에 도착하여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주워 온 낙엽과 나뭇잎으로 그림 만들기를 진행했다. 나는 동그란 모양의 낙엽으로 '하늘을 나는 기구'를 표현하는 예를 들어주면서, 지금 앞에 있는 나뭇잎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바를 표현해보라고 했다. 대현이는 술가지를 사자 갈기로 표현하는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줬으며, 지수는 잔가지들을 모아 마녀의 빗자루로 표현했다. 성민이는 장수풍뎡이의 몸통과 다리를 낙엽으로 표현했고, 상혁이는 작은 잎들이 모인 침엽수 낙엽을 흠뻑 붙여 사슴의 머리카락을 나타냈다. 7살 서현이는 낙엽들을 일렬로 붙여 나무로 표현했으며 민정이는 단풍잎을 겹쳐 붙여서 공작의 화려한 깃털을 표현했다. 아이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성을 보며 이런 감성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간직되고 발휘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느티나무를 판화에 담다

11월 21일, 오늘은 8가족이 참석했다. 지난주에 오지 못한 가족을 위해, 느티나무 사진과 자료 등을 나눠줬다. 가까운 거리니만큼 걸어서 한 번씩은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도 전했다. 외할머니 생신 때문에 지난주에 오지 못한 기수, 혜수는 무척 아쉬워하며 느티나무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적었다. 혜수는 느티나무를 소재로 동시를 지었는데 자연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예뻐했다.

오전에는 부모님 간담회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도촌동 칼국수 집에서 내년 프로젝트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희망했고 함께 동참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박서현 어머니인 김은숙님을 반장으로, 기수,혜수 어머니인 송금숙님을 총무로 선출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답사한 느티나무를 판화로 표현하는 시간이다. 서양화가 김선희 선생님이 판화 수업을 진행했다. 볼록판화 중 고무판화를 하기로 했다. 김선희 선생님은 판화의 종류와 작업 순서, 조각도 사용법을 설명했다. 고무판에 연필로 스케치한 후, 조각도를 이용하여 고무판을 깎았다. 아이들의 고무판 안에는 풍성한 느티나무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힘을 주면서 고무판을 판 나머지 지수가 조각도에 손을 다쳤다.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자리이고, 크게 위험한 장비를 쓰진 않았으나 언제든지 아이들이 다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막상 지수가 다치니 마음이 참 안 좋았다. 하지만 특유의 씩씩한 말투와 살짝 띠미소로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 지수.

완성된 판화에 검은 물감과 녹색 물감 등을 묻힌 후, 흰색 판화지, 녹색 색상지를 올려 손가락으로 균일하게 문질러 여러 장을 찍었다. 찍힌 종이에 찍은 순서와 제목, 사인을 하니 판화가 완성되었다. 아이들이 완성한 판화를 보니 400살이 넘는 느티나무가 무척 큰 위엄 있는 나무로 보인다. 풍성한 느티나무, 가지가 여러 개로 뻗은 느티나무, 등걸이 한아름 넘게 표현된 느티나무 등, 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르게 느끼는 아이들의 눈은 어른보다 정확할 때가 있어 가끔 깜짝 놀라곤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섬말 아이들에게 놀라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가히 기분 좋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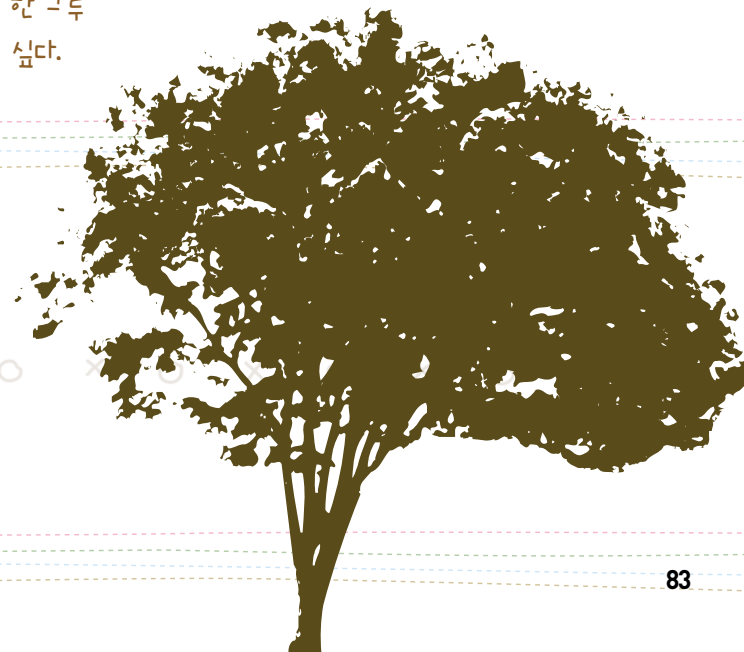
느티나무 한 그루 _ 임혜수

멋진 느티나무
한 그루

420년 동안 혼자
외롭게 덩그러니
사람들이 왔다가도

사진만 찰칵 찰칵 찍고
집으로~

외로운 느티나무 한 그루
내가 친구해주고 싶다.





숫대, 직접 만들기

11월 28일, 실내에서 장승과 숫대 강의를 1시간 가량 손병주 선생님이 진행하시고, 3시부터 직접 숫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새날복지회 옆의 빈 공간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장승, 숫대 강의를 시작했다. 지난 느티나무 강의 때, 아이들의 주목도를 아쉬워하셨던 손병주 선생님은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했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 이정표, 경계표시 등의 역할을 하며 숫대는 마을과 개인의 안녕을 위한 상징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다.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염원하고 지켜주는 수호의 의미를 가진 장승과 숫대는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다. 우리 선조의 삶에서 배울 점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장승으로 유명한 곳들을 이야기해주시고 도촌동 근방에서 장승과 숫대를 볼 수 있는 곳, 장승으로 유명한 곳 등을 함께 일러주셨다.

강의에 이어 숫대만들기를 했다. 숫대 만들기는 서양화가이자 예술심리치료사인 남궁희 선생님이 맡아주었다. 준비해 온 박달나무와 공구 등을 꺼내어 제작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새를 올릴 장대 모양을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 다른 나뭇가지에 있는 새 모양을 찾아야 해요.”

머리와 몸의 조각이 새 모양처럼 보이면서 서로 어울리면 OK! 몸과 머리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이어준 후, 먼저 골라놓은 장대에 새가 앉을 자리를 정해서 그 자리에 고정시키면 된다. 아이들은 처음에 새 모양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더니 금새 찾고 잘라내어 곧잘 머리와 몸을 잇는다.

몸과 머리를 잇는 작업을 도와주는 남궁희 선생님과, 장대를 세워 숫대 받침으로 쓰일 나무 토막에 드릴로 작업하는 박진영 팀장님의 손이 더욱 바빠졌다. 자르고, 뚫고, 붙이는 작업이 계속 되



면서 아이들은 새를 한 마리에서 가족 수만큼 올리겠다고 점점 더 많이 만들었다. 남매들끼리는 총 가족 수를 적절히 나눠서 자신의 장대에 새를 올렸다. 도현이, 지은이 남매는 각각 2마리씩 올렸고, 서현이 상혁이 남매도 3마리, 2마리를 올렸다. 성민이, 주영이 가족은 총 7명이라 각자의 장대에 4마리, 3마리를 올렸다.

숫대 만들기를 일찍 끝낸 아이들은 나무조각 목걸이 만들기를 했다. 나무조각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더 작은 나무 조각을 목공용 본드로 붙여서 입체적인 모양을 내기도 했다. 완성한 목걸이를 하나씩 목에 걸고 어머니들이 기차여행에 대한 회의를 하는 동안 복도를 열심히 뛰어다녔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어머니들은 12월 12일에 계획한 기차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들 모두 강원도 쪽을 원하고 있으나 2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청량리까지 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인터넷으로 각자들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날, 현성이 어머니인 강미정 님은 기차여행 회의 때문에 늦은 시간에 오셔서 숫대 강의 후 나뭇가지와 톱밥으로 잔뜩 어질러진 강의실을 손수 쓸어 깔끔히 청소해 주셨다.





마지막 날, 작은발표회를 위한 준비

12월 5일, 마지막 모임시간이다. 이 날은 대현,서현 어머니인 박선훈 님의 동화구연으로 시작되었다. 역시 전문가의 동화구연답게 동화를 듣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다. 이어서 12월 17일에 열릴 '작은 발표회'에서 도촌동의 발표내용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대현이 동생 7살 서현이가 구현동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촌동 대표로 '우리는 단짝친구, 우와와치'라는 구현동화를 하기로 했다. 한번 보자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박수소리에 서현이는 쑥쓰러워 하며 동화구연을 시작하였다. 7살 어린 나이답지 않게 말투와 표정을 어찌나 맛깔나게 잘 살리는지... 끝나고 나서는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동화구연가인 어머니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했다. 그리고 각 동네별 작품이 전시되는 전시 테이블에 10번의 모임이 고스란히 담긴 아이들의 책과 솟대, 도자기 등을 전시하기로 했다.



이 날은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옛날옛날 우리 섬말은 ㅇㅇㅇ이다'라는 글귀를 채워 각자 섬말 프로그램을 정리, 정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ㅇㅇㅇ'에는 들어갈 말은 섬말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과 느낌 또는 적고 싶은 적당한 낱말을 여러 잡지에서 따다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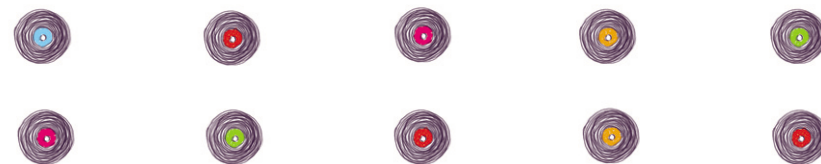
처음에 아이들은 잡지를 이리저리 펼쳐보며 잔뜩 고심을 했는데 1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여러 아이디어들이 솟아나왔다. 지수는 옛날옛날 우리 섬말 프로그램이 '타고난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미 도촌동에 자리잡아 타고난 유적과 유물들을 찾는 프로그램이라 '타고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라고 멋진 답변을 한다. 기수는 유명가수들의 사진을 오려붙인 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꾸민 책에 대한 칭찬으로 재미나게 꾸몄다. 7살 서현이는 나무줄기 모양을 이용한 그림을 오려 붙인 후, "옛날옛날 우리 섬말은 '행복한 놀이터' 예요"라고 했다. 그 위에는 '나는 옛날옛날 우리 섬말에 와서 만들기가 제일 재미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대현이는 63빌딩, 바다, 한강다리, 동네, 식당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지능력을 63빌딩처럼 높게 키워주기 때문에, 바다처럼 행복함이 느껴지고, 한강다리처럼 진도가 팍팍 나가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주니까, 식당은 다채로운 재미를 먹고 가니까' 라는 재치있는 답변을 해주었다. 다은이는 '꿈' 이라고 대답했는데, "해보지 않았던 여러가지를 섬말을 통해 해본 것이 꿈 같아요"라며 멋진 대답을 해줬다. 상혁이는 행복한 생활공간, 자유롭다, Art(예술), 동네사람들 이라고 대답했다. 각각의 단어에 모두 중요한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토요일이면 동네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오고, 오면 이런저런 만들기와 꾸미기 등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라고 덧붙였다. 상혁이 누나 서현이는 협동의 세계, 삶의 에너지라 답했는데 엄마랑 함께 협동하고 나를 밝혀주는 곳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다. 도현이는 사랑, 나침반, 거점이다, 특별한 것이 있다, 등으로 표현했는데 특히 재미난 단어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전히 하하하', 언제나 함께 만나서 하하하 웃자는 의미인 것일까?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 표현과 부딪히니 마음이 잔해졌다. 지은이는 '에너지' 라고 대답했다. 사진을 자르고 오리고 붙이는 과정이 아날로그의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섬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절약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에너지라고 했다. 지은이는 섬말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고 특별했다는 소감을 함께 적었다.



이 날, 엄마들은 12월 12일로 계획한 기차여행을 대신하여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먼저 가기로 했다. 12월 19일, 야탑종합운동장의 실내수영장에서 첫 모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먼저 간단히 수영장으로 시작하자는 지수 어머니 이정은 님의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이 날 저녁, 홍짜장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 박진영 팀장, 이초영 작가가 모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짜장면과 찹쌀탕수육로 배부른 아이들은 노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들은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박진영 팀장은 지속적으로 모임이 이어져 나가야 2010년의 지원이 더욱 더 쉬울 것이며, 시범사례로 잘 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점이 있을 것이라 귀띔했다. 어머니들은 장소만 있다면 모임을 꾸준히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며, 장소를 직접 섭외해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첫 시간에 서로 서먹해 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도촌동은 현재진행형

12월 17일에 열린 5개동 작은발표회에 총 8가족이 참석했다. 도촌동에서만 아이들 포함하여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이다. 아이들은 본인들의 책과 도자기, 솟대가 다른 동네 작품들과 나란히 전시되어 있으니 뭔가 색다른 느낌을 받는 듯 보였다.

12월 19일에는 일전에 계획한 수영장 모임이 진행되었다. 도촌동 아이들의 전용과 다름 없었다는 글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시 한 번 가자는 글들을 보니 그 날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12월 26일에는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열리는 덕 브루너의 전시를 함께 모여서 관람했다고 한다. 2010년 1월부터는 커뮤니티 공간이 해결되는 대로 실내·외모임을 지속적으로 나갈 예정이라는 글이 사랑마루 카페에 올라와 있다.

어릴 적, 친구들 집에 모여 앉아 커다란 4절 스케치북에 주제 발표자료를 만들며 반 친구, 동네 친구들과 친해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요즘 세대들은 팀별, 조별 활동을 통해 친구의 집을 방문하면서 사이가 돈독해지는 경험을 좀처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섬말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친구의 개념을 알려주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

진짜 즐거움, 진짜 통하는 사이, 진짜 함께 할 사람들을 마주치는 순간은 쉽게 오지 않지만, 어렵게 오지도 않는다. 우선 나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직접 행동하고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옛날옛날 우리섬말' 프로그램이 모인 가족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섬말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와 미래, 언제나 도촌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옆에서 '살 빠진 윤도현이예요' 라고 놀리는 사랑마루 사람들의 말에 수줍은 듯 미소를 짓는 박진영 작가님은 사랑마루 최고의 꽃미남 품절남이다.

"사랑마루 5개 사업중 도촌동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은행동 수진동에서는 참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촌동은 마을 토박이보다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아서 서먹한 관계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밝게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동에서는 '풀장환상' 프로젝트에서 풀장을 꾸미는 일을 하고, 수진동에서는 하늘텃밭을 꾸미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박진영 작가는 10년 가까이 벽화작업을 해온 프리랜서 디자이너이다. 2007년 상대원 공단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미술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지만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오랜 기간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하는 작업을 해왔다.

"사랑마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훈 팀장께서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꾸려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실, 돈으로 따지면 밀지는 장사이죠. 2007년부터 2년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느낀 것이 참 많았어요. 보람이 있었죠.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남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박진영 작가가 말하는 성남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사랑마루 프로젝트를 비롯한 문화 사업을 통해 만난 작가들과 작업을 하면서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역량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겠지만 그것은 겸손의 말씀이 아닐까. 성남은 그만큼 역량이 있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네트워크를 꾸리고 함께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사랑마루 프로젝트에도 10년 전 부터 함께 벽화작업을 하고 있는 이화섭, 정삼선 작가가 동참하였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컨셉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함께 공간을 구성하고 있지요. 모두 그리기와 만들기에 능한 작가들입니다. 은행동의 '풀장환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공간이 완성된 이후에도 손 털고 그냥 가는 법이 없죠."

박진영 작가는 개인적으로 공부방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시설에는 그나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공부방은 아무래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적은데 '사회적 관계 개선'이라는 큰 의미 안에서 앞으로 이 분야에도 지원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박진영 작가의 말처럼 앞으로는 더욱 폭넓은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꽃필 수 있었으면 한다.

(인터뷰어 _ 서진영)





III 나눔 - 수진동 이야기

나눔

['나누다' 의 명사형]

나누다

: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

3

수진동 문화배움터에 참여한 회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늘텃밭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로 만들어진 화단 때문에 쓰레기는 없어졌는지,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사랑마루는
동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나'와 '이웃',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성남을
구상합니다.
시민(주민) - 예술가 - 문화클럽 - 동네 - 성남시로 이어지는 자유로운 소통문화의
형성을 거둬고
동네에서 행복을 찾는 주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III. 나눔

수진동

수진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세종대왕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대왕의 아들인 평원대군이 18살이라는 나이로 요절하자, 영장산 남쪽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묘를 돌보게 하기 위해 수진궁(壽進宮)을 지은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유난히 언덕과 골목이 많은 수진동에는 오래된 가게, 문단은 가게, 새로 생긴 가게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 사이 1층에 상점이 자리잡은 건물도 있어서 천천히 걷다보면 주택가 중간에서 불쑥 큰 간판을 만날 수도 있다. 수진역 4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가는 길, 60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지역 명소로 자리잡은 수진동 성당이 있다. 수진동 성당은 지역사랑방의 거점을 고민할 때, 기꺼이 문화배움터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협력의사를 밝혔고 7호 지역사랑방으로 지정되어 공간나눔을 약속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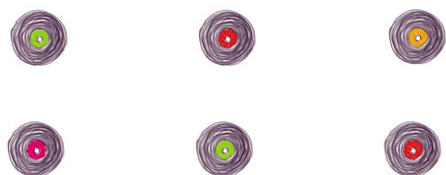
수진동 문화예술 프로그램명

수진동 문화배움터

하늘을 달리는 옥상 텃밭 (‘하늘텃밭’)

이젠 물을 주세요! (소곤소곤 ‘이야기골목’ 대체 프로그램)

수진동 사업 진행일정	
20090908 ~ 2010. 1월 문화배움터 강좌 (매주 수,목,금,토)	
20090901 ~ 10	하늘텃밭 신청 완료
20090917	하늘텃밭 실측
20090918 ~ 28	텃밭틀 제작
20090930 ~ 20091002	하늘텃밭 설치
20091007	2879번지 화단 1호 설치
20091103 ~ 05	화단 설치 장소 답사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20091118 ~ 20	화단 설치 (4곳, 총 5곳 설치)



수진동 문화배움터 시작

*일

강습을 이어가는 취지를 가지고 한지공예와 신문지공예는 수요일과 토요일로 강습시간이 정해졌다. 한지공예는 사랑방문화클럽의 한지마을 회원이자 한지공예가로 활약 중인 김명희 선생님, 한지마을에서 함께 활동 중인 최은주 선생님이 강사로 참여했다. 신문지공예 역시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신문지공예클럽으로 활동 중인 박선희 선생님이 강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했고, 밴드 드럼반도 상반기에 밴드부 강사를 맡았던 이도희 선생님이 지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강좌시간은 한지공예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신문지공예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밴드 드럼반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색소폰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영상 금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로 시간이 편성되었다.

한지공예와 신문지공예는 회원을 새롭게 모집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진행한 회원과 새로운 신입회원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해도 거의 1:1 수업방식이라 학습진도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었다. 밴드 드럼반의 경우에는 여러 악기파트를 구해서 밴드부 구성을 염두에 두고 모집했으나 참여회원들 모두가 드럼강습을 원하게 되어 드럼반으로 강좌내용을 바꾸었다. 그래서, 여름에 열린 문화사랑방의 밴드부는 회원들 스스로 강습비를 마련하여 다른 연습장소에서 강습을 진행하고, 목요일 드럼반만 성당 소강당에서 강사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새롭게 개설된 색소폰 반의 경우, 1달 악기임대료를 개인부담으로 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사랑방문화클럽 신구원드색소폰의 서현자 선생님이 강사를 맡아주셨다. 영상반은 수진동 문화배움터 예산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신입회원들의 결합도 좋다고 하여 모집광고 및 홍보물에 함께 모집하기로 했다. 영상반 강사는 사랑마루 총감독이자 은행동 팀장인 이상훈 팀장님이 맡아서 진행해주셨다.

8월 한 달동안 문화배움터 홍보 및 회원 모집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9월 8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무단결석을 줄이고 일정 정도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 강좌마다 자율적으로 개인부담 명목의 비용을 정해 모든 인원들이 약간씩 부담하여 재료비 또는 모임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색소폰 반의 경우, 악기가 없는 회원이 악기 대여료를 부담했으며 신문지공예반은 일정금액의 회비를 걷어 공동 재료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 ○ × ○ × ○ × ○ × ○ ×



홍보는 수진동 성당 Angels cafe 앞 쪽에 문화배움터 강좌 시작과 회원모집용 알림 현수막을 게재했고, 성당 주보에 모집 광고를 실었으며 홍보지를 만들어 신문에 삽지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참여를 더욱 유도했다.

9월 8일부터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생각보다 회원 수가 적었다. 회원 수가 적은 이유로 홍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수진동 성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상반기 무료강좌에서 반해 하반기에는 악기 대여료, 재료비 등의 비용 부담이 있어 참여도가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동네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홍보방법이 좋을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 듯 하다.

문화배움터를 시작한 첫 주는 한지공예 3명, 신문지공예 5명, 드림반 2명, 색소폰 4명이 참가했다. 참여자들이 수가 적어도 강좌를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강좌를 확산시키고 홍보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회원 중심으로 안정적인 강좌로 이어지게 만들자는 것을 문화배움터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참여자들의 의지가 매우 강한 점이 큰 힘이 되었으며, 이제 막 홍보가 되기 시작했는지 문화배움터에 대한 전화문의가 간간히 들어왔기 때문에 수업진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회원들을 더 받기로 했다. 아울러 홍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 회원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회원들의 책임감을 위해서 일부 비용의 유



○ × ○ × ○ × ○ × ○ × ○



료화는 지키기로 결정했다.

2009년 9월부터 시작된 문화배움터는 2010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현재, 한지공예 8명, 신문지공예 10명, 드림반 6명, 색소폰 반 5명, 영상 8명이 문화배움터에서 강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수진동 문화배움터의 경우, 영상반을 제외하고는 각 강좌별 커뮤니티가 자발적인 소모임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동호회로 활동하고 있는 영상반의 경우, 강사였던 이상훈 팀장의 노력과 함께 동참하는 핵심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핵심 인력의 발굴, 강사의 열의, 회원들의 기량 향상이 동네별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의 3가지 핵심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인력은 참여한 주민들을 결집시켜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열정 있는 강사는 커뮤니티의 안팎을 살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을 복돋아준다. 기량 향상은 향후 동네 주민이 강사로 배출되는 순환 시스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댄 수진동 문화배움터를 통해 회원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더불어, 앞으로 동네별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문지공예 (글, 사진_김희윤)

9월 12일, 두근두근 첫 시간!

아침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여유로운 토요일 아침. 수진동 문화 사랑방의 '신문지공예' 수업이 시작되었다. 경력 6년, 이미 상반기에도 수진동 신문지공예를 진행하신 박선희 선생님은 첫 수업이라 그런지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새로 오는 학생들을 기다리셨다. 지난번에 비해 조금 적어진 수강생 수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할 때쯤, 한 분 두 분씩 새로운 얼굴들이 강의실 문을 두들겼다.

수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서로 인사도 하지 못 한 채 바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을 위해 테이블에 고무판을 쭉 깔고, 신문지 공예의 필수품인 신문지를 나눠가졌다.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다들 신문지를 돌돌돌 말기 시작했다. 빙글빙글, 돌돌돌, 뱅글뱅글, 돌돌돌 ♪

열심히 신문지를 돌돌 말다가 뒤늦게 각자 소개를 하게 되었다. 오늘 수업에 참가한 수강생은 총 5명.

만언니 임동숙 님. 임동숙 님은 지난 강좌에서 신문지공예 수업을 함께 했던 경력자이다. 박선희 선생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신문지공예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으로 손재주가 뛰어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다용도함, 화장품함을 손수 신문지공예로 만드시는 능력자이다. 병풍과 창문의 발까지 신문지공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모두의 추천으로 신문지공예반 반장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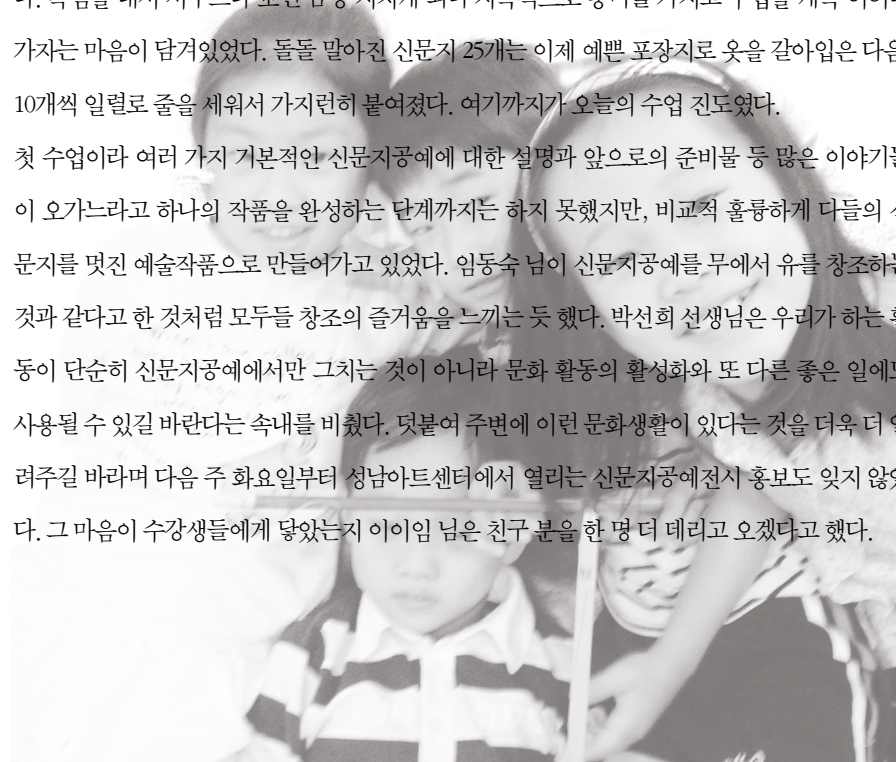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온 이이임 님. 지난번 수강 신청 시기를 놓쳐서 아쉬웠던 마음 때문인지 시작부터 차근차근 정성을 다해 신문지를 맡았다. 항상 웃음을 띠고 적극적으로 임하던 장미정 님

은 수강경험이 있어서인지 질문도 많았다. 그러면서 슬쩍 꺼낸 속마음은 언젠가 전시회에서 만났던 멋진 상을 본인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미 큰 포부가 있어서 그런지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들어온 허희영 님은 이이임 님의 권유로 함께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매주 좋은 인연을 계속 만들어가자는 훈훈한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즐거운 대화가 끊이질 않았다.

빠른 손놀림을 가진 임동숙님 앞에는 금새 신문지 말이가 한 다발 만들어졌다. 모두들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자, 선생님은 조금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며 수강생들을 다독겨주었다. 욕심을 내서 서두르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니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마음이 담겨있었다. 돌돌 말아진 신문지 25개는 이제 예쁜 포장지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 10개씩 일렬로 줄을 세워서 가지런히 붙여졌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진도였다.

첫 수업이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신문지공예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준비물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느라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훌륭하게 다들의 신문지를 멋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임동숙 님이 신문지공예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처럼 모두들 창조의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다. 박선희 선생님은 우리가 하는 활동이 단순히 신문지공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활동의 활성화와 또 다른 좋은 일에도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는 속내를 비쳤다. 덧붙여 주변에 이런 문화생활이 있다는 것을 더욱 더 알려주길 바라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신문지공예전시 홍보도 잊지 않았다. 그마음이 수강생들에게 닿았는지 이이임 님은 친구 분을 한 명 더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수진동의 신문지공예 수업은 시작할 때의 어색함보다는 점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무르익어갔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했던 수업은 오후 1시 30분이 되어서야 마무리단계가 되었다. 수업이 이루어진 공간이 카페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불편함도 다소 있었지만,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덕분에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고 마음에 흥겨움을 더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20회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많으면 여덟 작품, 적어도 다섯 작품은 만든다고 한다. 오늘 같은 열정이 지속된다면 멋진 예술작품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의 작품들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수업 뒷이야기

수업 저편에서는 아침부터 함께 한 이이임 님과 허희영 님의 아이들도 이번 첫 수업을 같이 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엄마가 얼마나 잘 만드나 관심도 많았고, 자기들도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기웃기웃했는데 아기자기한 하트가 잔뜩 그려진 연두색 포장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지작거리며 예쁘다는 탄성을 자아냈다. 다음에 엄마에게 이런 포장지로 만들어달라고 청하라는 말에 “저희 엄마는 이런 밝은 색은 때 탄다고 어두운 색으로만 하세요.”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공감한 듯 웃음보가 터졌다.

오늘만큼은 나도 ‘아티스트!’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수진동 문화배움터의 신문지공예 수업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오래간만에 찾아가는 수업이라 반가움 마음에 발걸음도 덩달아가벼웠다.

가자마자 반갑게 인사해주시던 박선희 선생님은 수강생이 9명으로 늘어났다고 기분 좋은 자랑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하는 분위기가 훨씬 풍기고 수업하는 공간도 꽤 찬 느낌이 들었다. 그 사이 신문지공예 수업에서는 Good news가 있었다. 수강생 중에 중학생이 2명 들어온 것이다. 놀라움의 감탄사 외마디를 외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중학생처럼 보이는 수강생들은 없었다. 안타깝게도 이 날은 셋째 주 토요일인 놀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러한 문화배움터의 기회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신문지공예의 공식 첫 번째 작품은 연필꽂이였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소에도 수업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문지공예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서 수업시간에 쓸 수 있게 놓아두셨다. 자신이 만들고 직접 사용하는 기쁨이란.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두 번째 작품은 바로 두루마리 휴지걸이이다. 장미정 님이 두루마리 휴지걸이를 만드는





중이었다. 늦게 만든 만큼 색상에 신경을 썼다면서 완성의 기쁨이 누구보다도 컸다. 더불어 한 번의 결석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지 몰랐다면서 아쉬움의 마음도 함께 내보였다. 그리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작품은 세 번째 작품인 휴지케이스다. 이미 만들기를 끝낸 회원들은 지인의 선물로 혹은 집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 만들 작품을 미리 보여주셨다. 너무나도 귀여운 그림이 들어가 있는 입체액자였다.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드는 액자에 넣을 사진 이야기로 대화가 꽃피웠다. 가족사진, 아이들 사진을 넣을 것이라면서 그것에 어울리는 빛깔의 포장지를 고르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문지공예 시간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다 보면 다들 작품에 욕심이 생겨서 집에서도 온종일 신문지공예에 푹 빠져계신다고 한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느라 하루에 장장 8시간을 신문지공예와 함께 하기도 한단다. 어느 아티스트 부럽지 않은 열정이다. 수업이 끝난 후 뒷정리도 잊지 않고 말끔하게 흔적들을 없앤다. 하루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오늘 작품, 다음시간 준비

물,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끝나는 시간보다 30분은 기본으로 연장이 된다. 지금도 수진동 문화 사랑방 신문지공예 아티스트들은 열심히 신문지를 말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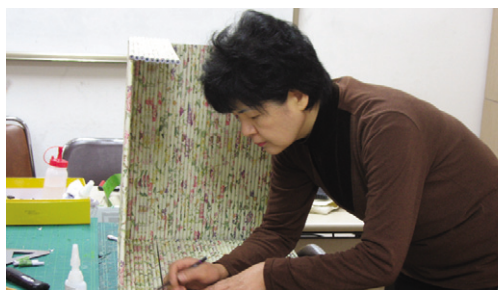
수업 뒷이야기

첫날 상의한대로 열심히 회비를 걷고 계신다고 한다. 회비는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재료비로 쓰인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른 친목도모를 위한 용도로도 쓸까 생각해보셨지만 다들 너무 바쁜 관계로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다. 토요일 하루 수업을 빠지지 않고 나오기도 쉽지 않아 아쉽게도 수업중심의 커뮤니티가 중점이 되어 있었다.

매번 정신없이 나오는 날만 사진을 찍으러 온다고 불평하시던 분들도 있었다. 빈말로 들릴지라도 열심히 작품을 만드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빛이 난다고, 살짝 말씀드리고 싶다.

막내 유경이, 드디어 만나다

11월 28일, 성당의 김장으로 인해 세미나 실로 잠시 옮겨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순님은 친구분들의 소개로 10번째 수강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범생이다. 결국 먼저 소개시켜주신 분들은 수업에 못 오시고 오히려 영순님이 열심히란다. 늦게 시



작한 만큼 따라가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배우는 즐거움이 훨씬 커 보였다.

이 날은 드디어 수강생 중 막내, 중학생 유경이를 만났다. 놀토라 수업에 맞춰 올 수 있었던 유경이. 유경이가 신문지공예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먼저 한지공예를 배운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고 싶다고 한다. 또 유경이가 하는 것을 본 친구가 함께 신문지공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경이는 아무래도 매주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였지만 아무진 손으로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다니느라고 힘들면 어머니랑 같이 신문지말이를 하라고 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자 유경이는 혼자서 다 한다고 대답했다. 공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유경이가 오늘 완성된 휴지케이스를 들고 웃어주었다. 아마도 이 날 가서 엄마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자랑을 할 듯 하다.

이 날은 수강생 세 명이 모두 다른 작품을 하고 있었다. 유경이는 첫 단계인 휴지케이스를 만들었고 영순님은 CD보관함을 만들었다. 임동숙님은 화장품 보관함을 만들어서 선생님은 각각의 진도에 맞춰 개별지도를 하셨다. 2장말이, 반장말이, 프레임짜기 등 생각보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오고 갔고 늦게 들어온 수강생들에게는 아직 낯설어 실수로 신문지말이 개수가 부족했고 선생님은 새롭게 포장지를 더 나눠 주었다. 효과적으로 포장지를 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공유했다.

다음 시간에는 여치집트리와 X-MAS리스를 만든다고 했다. 여치집트리의 준비물로 새끼를 꼬듯

신문지로 새끼 꼬기를 해오는 것이 숙제였다. 다음 시간에는 부디 더 많은 분들이 수업에 참석하길 바라며 오늘의 신문지공예 수업을 마쳤다.

수업 뒷이야기

“사랑마루가 대체 뭐죠?” 매번 바뀌는 수강생들 덕분에 취재나온 이유와 사랑마루를 소개해야 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질문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주위를 서성이는 나에게 ‘사랑마루’에 대해 물으셨다.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다른 동네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하나씩 소개해드렸다. 옥상 하늘텃밭 만들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반가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과 사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 하셨고 사랑마루 블로그를 소개해드렸다. 마치 신문지가 꼬리를 물며 말아가듯이 신문지공예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리 동네,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기분이 들어 무척 기뻐다.

전시회 준비로 바빴던 12월 12일

2009년의 끝자락에서 신문지공예 수업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임동숙님은 창작 작품을 하고 계셨다. 창작 작품은 실용성이 높아 보이는 전선 정리함이었다. 아드님이 컴퓨터 할 때, 멀티 태핑 중심으로 온갖 전선들이 정신 없이 얹혀있던 것을 보고 착안한 거라고 하신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고려할 점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하니, 당연하다면서 이것도 콘셉트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너비인지, 공간을 얼마나 차지할지, 그리고 아드님이 컴퓨터를 하면서 발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까지 모두 예상하고 만든다고 하셨다. 다른 분들도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들을 집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다. 집에서 사용하면서 자꾸 바라보고, 자꾸 뿌듯해진다고 한다. “화장품보관함 같은 것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만든 것과 값어치를 비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 ‘정말 좋아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든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신문지공예를 하다보면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세심함, 작두를 사용할 때 드는 팔 힘, 완성된 작품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필요한 공간 지각력, 한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신문지말이 개수의 오차가 생기지 않기 위한 수학적 능력까지. 여기에 포장지를 고르는 미적 능력도 더해져야 한다. 한 가지 수업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신문지공예의 매력에 빠지는 듯 하다. 가끔은 동그랗게 말린 신문지말이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 발로 밟아야 할 때도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작두를 타는 모습까지 연상케 했다.

이제는 취재 온 나를 반갑게 반겨주신다. 와서 구경만 하느라고 심심하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다

들 수업을 하느라고 챙겨주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네주신다. 아무래도 만드는 일이라서 한번 빠지면 고도의 집중력을 기울인다고. 무언가에 푹 빠져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 같다. 그리고 짧은 수업 시간 동안에 조금씩 완성되는 작품을 지켜보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었다.

12월 17일 목요일에 있을 ‘사랑마루 전체 발표회’를 위해 다들 열심이었다. 작품을 완성해야 하기에 1시가 넘어서까지 모든 분이 집에 가지지 않고 남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유독 바쁘고 정신 없는 수업이었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웃음과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함께 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직 점심 한 번 같이 못 먹었다면서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면서 조만간 자리를 한 번 마련하려는 분위기였다. 첫날의 어색함은 이제 온데 간데없고 훈훈한 이웃사촌들의 모임 같다. 신문지를 돌돌 말듯, 어느덧 서로간의 관계도 돌돌 말아져 단단해졌다.

수업 뒷이야기

이 날은 회원님들의 남편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다. 아무래도 크기가 큰 화장품 보관함을 만들다 보니, 혼자 들기가 어려운 손수 옮겨다 주시기도 했다. 또 깜박 잊은 준비물 주려고 전화 한 통에 냉큼 달려오시기도 했다.





밴드 드럼반

50대 주부들의 드럼사랑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한 성당 소강당을 들어선다. 드럼반의 열성회원인 박연영 님이 정면에 보이는 드럼에 앉아 드럼스틱을 잡고 연습이 한창이다. 이 날은, 강인숙 님, 최정숙 님, 김정희 님이 장고를 세로로 세워서 드럼 스틱으로 두드리는 연습을 하고 계셨다. 수강 회원 중 유정애 님과 이영주 님은 오늘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단 연습이 시작되면 두드리는 소리에 전체 공간이 울려서 서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연습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박자의 간격을 유지하며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번은 조금 더 세게 두드리려고 손목의 스냅 정도를 달리해 바운스를 다르게 이용해보기도 한다. 굳게 다문 입술과 위·아래로 흔드는 고개는 박자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몸짓이다.

연습 중인 회원들은 모두 40~50대 주부들로 성남에 오래 사신 분들이었다. ‘드럼’이라는 악기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수강회원이 주부라서 참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드럼반에 모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유에서 드럼반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하셨다. 드럼반 회원 중 단 한 번의 결석도 없고, 다른 회원들에게 드럼반을 적극 추천한 열혈 회원. 박연영 님은 피아노를 꾸준히 배웠다고 하신다. 문화배움터 초기엔 밴드반이라고 해서 건반 포지션을 맡으려 왔다가 색다른 악기를 다루고 싶어 드럼을 선택했다고 한다, 색소폰도 해봤는데 폐활량이 떨어져서 포기했다며 웃으셨다. 강인숙 님은 젊을 때부터 드럼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부로서 살다 보니 일부러 배우러 다니긴 어렵고 일상적인 삶이 바빠서 차츰 잊혀졌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수진동 성당에서 드럼반이 열린



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정희 님은 집에서 가까운 곳인 수진동 성당에서 수강하게 되어 부담이 없다고 대답했다. 드럼이 가진 매력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고 수강 시간에 본보기로 드럼연주를 선보이는 이도희 선생님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만 들어도 속이 다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신다. 다른 수강회원보다 조금 뒤늦게 참여한 최정숙 님도 강인숙 님과 참여동기가 비슷했다. 주부이다 보니 일상적으로 이런 악기를 마음껏 배운다는 생각을 잊고 살기도 하는데, 이제 50대 정도 되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나서 시작했다고 하셨다. 드럼은 예전부터 꼭 배우고 싶은 악기였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덧붙이신다.

“드럼 강습이 없는 날이나, 평소에 그냥 집에 앉아 있을 때도 바닥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을 움직이면서 연습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럼반으로 그치치 않고 각자 배우고 싶은 악기를 파트별로 배워서 밴드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밴드로 활동하는 거지.”라며 한껏 웃으신다. 여름에 진행했던 문화배움터 밴드부의 경우 파트별로 나뉘서 악기를 연주하고,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열린 은행주공문화제에도 함께 공연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더니 더욱 더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강좌들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강인숙 님은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알려지지만 하면 수강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동네의 문화적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며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셨다. 또, 수진동 성당도 주민들을 위해 장소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가 만난다면 더욱 좋지 않겠냐고 하셨다.

수강 회원들에게 오랫동안 살아온 성남에 대해 묻자, 세계적인 수준의 아트센터와 문화배움터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생기고 행사, 강좌 등이 마련된 점은 꽤 즐거운 일이나 재



개발 문제, 주차공간 협소 등의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드럼을 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로크라고 한다. 스트로크 연습은 기본 중에 기본이며, 연습이 되지 않으면 드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매치 그립이라는 스틱 잡는 방식은 양손 모두 동일하게 잡는 방식이다. 손가락 하나라도 스틱에서 떨어지게 되면 전달되는 힘이 달라져 소리가 달라진다고 한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스틱에 모든 손가락이 꼭 붙여야 한다. 드럼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알게 되니 문화배움터가 '스트로크', 구성 요소 및 주변 환경들이 '매치 그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배움터가 주민들의 삶 속에 기본 중 기본이며, 주민과 강사, 공간, 지자체,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등이 함께 연대하여 골고루 힘을 보태야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문화배움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모두 함께 움직여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사랑마루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점이 많아서 아는 만큼 성의껏 대답해드렸다.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있는 있는 만큼, 여러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랑마루 팀원으로 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터뷰를 마치니 소강당 안에는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도 드럼 연습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멋진 무대에서 드럼반 어머니들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색소폰 반

매력있는 악기, 색소폰 따라잡기

문화배움터가 시작되고 1달 남짓 지난 10월 7일, 수진동 성당을 찾았다. 색소폰 반 수강회원 3명이 '먼 옛날에'를 연습하고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알려진 색소폰은 초보자가 연주하기엔 비교적 쉬운 악기라고 하지만, 나는 다루기 쉬운 악기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악기든 기초단계에서 익히긴 쉬우나, 중급 이상의 실력까지 올라가기엔 꽤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악기를 배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날은 색소폰 4번째 강습시간으로 룡틴 연습 중이었다. 룡틴이란 하나의 음을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에 맞춰서 길게 지속적으로 부는 것을 일컬으며 색소폰의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라고 한다. 높은음 옥타브 '도'까지 모든 음의 룡틴 연습이 한창이었다.

색소폰 반 수강 회원은 주부, 자유직 등의 직업을 가진 30대 초반에서부터 50대의 남성,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강 회원 모두가 악기를 대여해서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모이는 날은 레슨과 합주 연습을 한다. 모두 알토색소폰으로 강습을 시작했다.

색소폰 강사를 맡고 있는 서현자 선생님은 신규윈드색소폰클럽에 회원이자, 수진동 문화배움터 강사로 활약 중이다. 현재 회원들의 진도와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묻자 서현자 선생님은 강의 진도는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일주일에 1회 강의로는 연습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평소에 개인 연습이 더 필요해요. 특히 처음에는 호흡도 힘들고 강약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꾸준히 연습하면 안정적인 음정을 만들 수 있죠.”

이 날 참석한 수강회원 3분은 강습시간에 무척 열심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쉬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직 익숙지 않아 다소 힘들 수 있다며 일정시간 연습을 한 후, 꼭 숨이 편해질 때까지는 쉬어야 한다고 하신다.

3주후에 방문했을 때는 텅잉 연습이 한창이었다. 텅잉은 ‘혀’를 움직여 부는 것으로 한 음, 한 음을 명확하게 연주하기 위한 테크닉이라한다. 듣기에 한 음, 한 음을 끊어 표현하는 스톱카트의 느낌과 비슷했다. 소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김건우 님의 말에 서현자 선생님은 반복되는 음의 8분 음표와 16분 음표 연주가 어려운 편이라며 다독겨주셨고 2가지 음표를 박자에 맞춰 여러 번 반복 연습했다.

색소폰 강습을 정식으로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김건우 님은 군포에서 살다가 경원대학교로 진학한 아들을 위해 이사해 성남시민이 된지 3년 되었다고 한다. 그간 색소폰을 부는 모습 등을 보면 기회가 되면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땅히 계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동 성당 앞을 지나가는 길에 ‘수진동 문화배움터 모집’이라는 플래카드를 봤고 바로 신청했다고 한다.

평일에도 연습하냐는 물음에 “색소폰은 소리가 커서 연습하기가 마땅치 않죠. 집에서는 소리가 크게 나서 연습 못해요. 능숙한 연주자들은 소리를 작게 내서 연습하기도 한다던데, 아직 그럴 정도의 실력이 안되니... 이렇게 성당에 강습 나올 때 열심히 하는 거죠.”라고 대답하신다. 서현자 선생님도 회원들이 개인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연습공간이 개방되어 있다면 수시로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개방만 되어 있다면 시간이 나는 대로 이용할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좋을 듯 해요. 자주 연습하면 지금보다 실력도 나아질 테니까요.”라고 대답했다.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무척 좋아한다는 김건우 님이 '수강 회원 중에 내가 가장 못한다, 소질이 없나 보다' 라고 말하자 서현자 선생님은 '축망받는 제자' 라며 치켜 세워 주신다.

“처음에 더딘 분이 있지만, 그렇게 더딘 편은 아니세요. 잘 따라오는 편이세요. 무척 열심히 하시고요.”

12월 17일에 있을 '작은 발표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자, 색소폰 반의 3~4명이 2곡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작한지 3개월 정도의 기량으로는 쉽진 않겠지만, 발표회 전까지 연습하면 어렵지 않는 곡으로 2곡 정도는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연습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귀중한 연습시간을 방해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연습할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더 즐거운 문화생활,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배움이 있는 곳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목표를 세워 행동하고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자극이 되는 광경이다. 12월 17일, 무대에서 만나게 될 색소폰 반 회원들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그날은 8분 음표와 16분 음표 연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한지공예

열정적인 강사와 학생들

10월 7일, 한지공예반을 찾았다. 이 날은 사각휴지케이스를 만드는 날이었다. 수진동성당 세미나실에 모여 앉은 4명의 회원들은 사각휴지케이스의 틀을 조립하여 초배를 하느라 분주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비추는 초가을의 햇살이 환한 오후였다.

9월 9일에 첫 강습이 시작된 한지공예반은 거울과 핸드폰 고리 등 소품으로 시작하여 지난 주에는 육각 연필통까지 마스터했다고 한다. 난이도 있는 큰 작품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초 다지기 시간은 4회의 강의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김명희 선생님은 사랑방문화클럽 '한지마을'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한지공예가이다. 함께 강사로 도움을 주고 있는 최은주 선생님도 '한지마을'에서 함께 활동 중이다.

수진동에서 진행된 한지공예의 만들기 순서는 크게 나누자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만들고 싶은 작품의 틀을 조립한 후, 초배지를 재단하고, 초배지를 바르는 기초작업, 색지를 재단하여 바르고 한지를 배접한 후, 문양오리기와 붙이는 작업인 중간작업, 마감칠을 하는 마무리작업 등으로 이뤄진다.

만드는 아이টে็ม으로는 거울, 핸드폰 고리 등의 소품류로 시작하여, 육각연필통, 사각휴지함, 4서랍장(서랍이 4개라는 의미), 사각 손거울, 사각 찻상 등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었다.

수강 회원들은 모두 한지공예가 처음이라고 하셨다. 회원 중에는 성당의 신도인 분도 있고, 걸려 있는 홍보 현수막을 보고 신청한 일반 주민도 있었다. 또는 여름에 끝난 문화배움터의 발표회에서 체험한 후 이번 기회에 수강 신청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주동안 만든 거울과 핸드폰 고리, 필통 소품은 벌써 가족이나 손주, 친구들에게 선





물하셨다고 한다. 선물을 받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무척 좋아해서 내가 더 기쁘다고 하신다.

김명희 선생님은 “한지공예의 강습에서 주요 기법인 재단 기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틀이 바뀌어도 재단기법만 알면 무엇이든 직접 재단할 수 있거든요.”이라고 말씀하신다. 한지공예는 같은 작품이지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법과 색상, 무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의 작품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많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올해로 연세가 75세인 위관금 어르신은 한지공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강습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양오리기 하기엔 눈이 어두워서 ‘눈물 콧물 다 뻘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활동적인 운동도 좋아해서 스포츠 댄스를 즐겨 하신다고 한다.

“대학생인 외손녀한테 선물할거야. 이번 추석 명절 때,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줬더니 모두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전부 하나씩 다 만들어 줄려고.”라며 바빠 손을 움직이신다.

성남에서 산 지, 40년이 된 터줏대감으로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셨다. 40년이라는 시간만큼 친구도 많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옆의 김명희 선생님이 위관금 어르신께서 ‘손끝이 무척 여무시고 집중력도 강하시다며 숙제도 참 잘해 오신다’고 말씀을 거든다. 한지공예가 재미있으시냐는 물음에 “무척 재밌어. 눈이 침침해서 좀 힘들지만.”라고 대답하신 후, 풀칠한 휴지함 아래쪽 초배지를 재빠르게 가져다 붙이신다.

수강 회원 중, 지난 여름에 열린 문화배움터 축제에서 한지공예를 체험한 후, 이번 문화배움터에 등록하신 주정복님은 신문지공예도 참여하시는 열정적인 주부이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다고 대답하며 종이로 만드는 두 가지 공예 모두 하루빨리 만들고 싶어서 집에서 열심히 풀칠 중이라고 하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진동으로 이사를 왔고 성년이 되어 결혼 후 정착하셨다 한다. 30년간 살아온 주정복님은 ‘성남은 정이 많은 동네’라고 말씀하셨다.

성당축제에서 체험에 참여한 후, 이번 문화배움터에 등록하신 정성자님은 성남에 이사한지 2년

되었는데 성남은 물가가 저렴하고, 교통도 좋은 곳이라고 하신다.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지적장애인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멘토로 활동 중이에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수학과 국어 등의 기본학습을 가르치고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멘티인 학생이 손을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직접 만드는 동작이 자립과 치료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부터 학생과 함께 한지공예를 시작했어요.”라고 한다. 학생도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보였다고 하시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신다. 앞으로 여러 장애인들과 꾸준히 치유 목적으로 한지공예를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셨다. 자신이 만든 작품들도 성당 바자회 등의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지공예반 반장으로 뽑힌 최은경님은 수진동 성당 벽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신청한 일반 주민이다. 원래 공예에 관심이 많아서 비즈공예나 지점토공예 등을 책 보고 독학하기도 했다고 한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습을 이렇게 생활 반경 안에서 배울 기회가 생겨서 참 좋다고 하셨다.

다음주에는 색지와 한지를 바르고 문양을 붙일 예정이다. 문양오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위관금님의 문양을 최은주 선생님께서 오려다 주시기로 했다. 위관금님은 댁에 돌아가셔서 문양을 제외하고는 다 해와야겠다며 한지 재단본을 챙기셨다.

10월 21일에 찾은 한지공예반은 사각휴지함을 모두 마치고 2단, 4개 서랍장을 조립하고 있었다. 수업장소가 세미나실에서 Angels Cafe로 바뀌었다.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 편하다고 하신다.

초배지의 형태였던 사각휴지함은 갈색 몸체의 붉은 꽃 문양, 아이보리색 몸체로 변해서 완성품이 되어 있었다. 갈색 꽃 문양 등, 수강 회원의 수만큼 서로 다른 느낌을 자아냈다. 문양도 꽃 안의 색상을 한지로 채우느냐, 형태인 선만 남기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달랐다. 각기 자신만



의 개성을 담아 선택한 색상과 문양의 위치 변화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이미지와 닮은 듯도 했다. 앞으로 3주간 만들어야 하는 4 서랍장을 조립하면서 액세서리나 잡동사니 등을 정리하는데 좋겠다' 며 기대감이 담긴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막 소품 만들기에서 벗어나 약간의 크기가 있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서일까. 분위기는 더욱 더 활기차고 힘찬 느낌이었다.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운데 함께 나눈 이야기 중 '열심히 해서 크고 멋진 작품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기억이 남았다. 무엇인가를 배운 후, 결과물을 눈 앞에서 본 순간, 다음에는 더 멋지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기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12월에 있을 수진동 문화배움터 전시회에서 한지공예반의 작품이 무척 기대된다.

작은발표회를 앞두고

11월 26일에 다시 찾은 한지공예반은 사각 찻상을 만들고 계셨다. 초배한 찻상을 보니, 2달 가량 만에 작은 생활소품에서 찻상까지 만들 수 있는 기량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다. 일주일에 단 1회, 2시간의 강습시간 외에 각자들 집에서 몰두하여 작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만들 준비하고, 풀칠하고, 말려서 붙이는데 2시간이라는 강습시간은 짧죠. 적당한 강습시간은 일주일에 2회, 1회 3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지금도 거의 3시간 수업을 하는 셈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한지공예반을 들을 때마다 제 시간에 강습이 끝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보통 1시가 넘어서 수업이 끝났다.

찻상이라고 하지만, 작은 소반 정도의 크기이고, 튼튼하기 때문에 상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한다. 틀을 조립하고 초배를 했다. 이전의 소품들 보다는 배접할 면적도 넓어지고 장식무늬도 더욱 정교해졌다.

사각 찻상이 끝나면 4단 꽃서랍을 만들 예정이다. 가로로 긴 서랍이 4단으로 쌓여있는 모양으로 방 한쪽에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변화시킬 듯이 보였다.





오늘 받은 조립틀을 제작한 후, 각자 재단해서 초배를 해오는 숙제가 생겼다.

여러 가지 작품이 담겨있는 책을 넘기며 서로가 만들고 싶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찾상은 중급 정도, 5단 꽃서랍은 고급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17일에 있을 '작은발표회'의 전시는 그때까지 완성할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한지공예반에서 아쉬운 소식과 기쁜 소식이 한 가지씩 있었다. 아쉬운 소식은 정선자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강습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본인께서 만든 육각 연필통을 Angel Cafe에 기증하셨다고 한다. 이 날 뵈 수 없어서 더욱 아쉬웠다. 지난 번에 만나 뵈었을 때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면서 그 곳에서도 본인이 가진 여러 재능과 재주를 이용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하시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쁜 소식은 주정복 님이 수진동 성당의 수녀님 한 분께 한지공예를 가르치며 함께 만드신다고 한다. 작은 소품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수녀님께 가르치는 동안 복습도 되고 함께 만드는 재미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빨리 '배움'이 '나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정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배운 회원들이 스스로 강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회원들이 강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한지공예반도 기초를 갖춘 분이라면 6개월간 꾸준히 기량을 숙련시켜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어요. 이런 뒷받침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전문강사들이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스태프들, 기관으로는 성남문화재단 등이겠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공간도 필요하고 지원금도 필요해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남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동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주민들이 오기도 쉽고 접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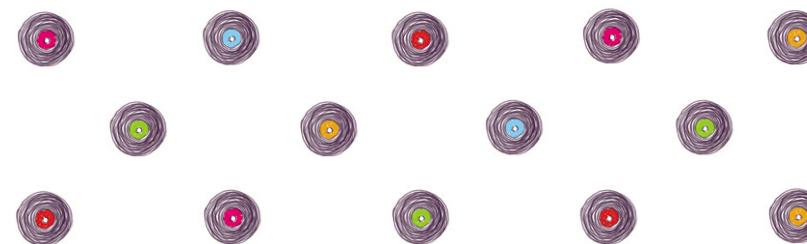
김명희 선생님의 말씀처럼 문화배움터에서 수강한 회원들이 스스로 동네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그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진정한 문화배움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Angel Cafe 매니저 님이 예쁘게 깎은 사과를 한 접시 가져다 주신다. 위관금 님께서 아까 시장에서 오는 길에 사과가 너무 싱싱해 보여서 사왔는데, 한지공예 반이랑 나눠 먹으려고 깎아달라 부탁했다고 하신다. 오늘 초배지를 붙이던 사각 찻상에 사과 접시를 올려놓으니 무척 잘 어울렸다. 결석 한 번 없는 열혈 회원인 위관금 님께서는 “한지공예 있는 날은 안산 딸네 집에 가 있어도 수업 들으러 꼭 와.”라고 하시며 한지공예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셨다.

사과를 먹으며 살아오신 이야기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이야기, 여행 다녀 온 이야기, 따님 이야기, 손주 이야기 등을 하였고, 김명희 선생님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 따님 임신했을 때 이야기 등 삶 속의 회로애락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선생(先生)이라는 말의 뜻처럼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삶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날 먹은 사과는 무척 달고 맛있었다.





二 하늘텃밭

*이

수진동의 비탈진 골목에 서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 여러 집 옥상에서 자라고 있는 갖가지 꽃과 채소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옆집과의 거리가 걸음 한 폭 정도인 두 집의 옥상에 같은 종류의 채소가 나란히 자라는 모습을 보면 사이좋은 이웃사촌이라는 것을 금새 알아차린다.

수진동 문화배움터 영상반 주민이 찍은 영상에서 착안한 ‘하늘텃밭’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텃밭이라는 뜻을 담았다. 새롭게 텃밭을 가꾸고 싶거나 현재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더 가꾸고 싶은 집의 신청을 받아 텃밭틀을 제작,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총 15가구에 텃밭을 설치하였다. 옥상을 방문하여 실측하고 방부목을 하나하나 잘라 이어, 튼튼하고 썩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텃밭틀을 만들었고 이후, 흙을 원하는 가구에는 짐통으로 흙을 지어 날랐다. 11월 초, 내년에 텃밭



을 잘 가꾸고, 텃밭을 매개로 모종과 씨를 나누며 서로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점심 모임을 함께 가졌다.

하늘텃밭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조율되어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식을 익혔고 상호 협력하는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자치모임인 통장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점은 이후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중간 허브역할을 하는 연계자(Linker)가 대상에 따라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실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텃밭틀의 제작장소를 알아보는 시간이 지체되어 초기 계획보다 늦게 하늘텃밭이 설치되었고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어 겨울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된 점이다. 2010년 봄날, 옆집과 나란히 옥상에서 가꿔질 푸릇푸릇한 채소와 예쁜 꽃들을 기대해본다.

하늘텃밭이 진행되기 까지

하늘텃밭은 수진동에 살고 있는 남영옥 님의 영상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실행 시작 전부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었다. 초기 기획은 지대가 높고 골목길이 많은 수진동에서 하나의 번지 또는 골목의 맞은 편끼리 텃밭을 조성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특별한 광경을 연출하고 싶었다. 또, 텃밭을 매개체로 해서 원예정보를 공유하고 모종을 나누며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최종 목표 삼았다.

더운 여름날, 따가운 햇볕이 한풀 꺾이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집 앞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깔개와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운부 팀장은 8월 중순 정도부터 여러 골목을 다니며 더위를 피해 나와 있는 주민들에게 텃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은 낮에 직장가지, 나는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들게 뭘 가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라서 그런지 편잔 아닌 편잔을 주셨다. 그래서 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꾸는 텃밭이 아니면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작정 수진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완우 행정지원팀장을 만났다. 때마침 작은 스티로폼에 모종을 나눠주고 개인이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가꾸도록 하는 사업을 구청 차원에서 준비 중이니 함께 연계할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8월 28일에 있을 통장협의회에 참석하여 하늘텃밭과 소곤소곤 이야기골목에 대한 협조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참석하기로 했다. 태평4동 동네만들기 사업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김성수 팀장이 함께 동행하기로 했고 하늘텃밭 시안이 담긴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8월 28일, 하늘텃밭과 소곤소곤 이야기골목 프로그램은 통장협의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5동 방명에 통장님, 8동 이난영 통장님, 22동 유경순 통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해 주셨다.



이후 동네에 다니면서 직접 홍보해주시고 하늘텃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집해 주셨다. 3분의 협조로 앞선 걱정과 달리 수월하게 신청가구가 모집되었다. 5동 2가구, 8동 4가구, 12동 5가구, 22동 4가구, 총 15가구가 신청하였다. 가구별 실측을 위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한 모든 집의 옥상에 올라가 원하는 텃밭의 위치와 넓이, 특이점 등을 파악하였다.

우리 막내가 옥상 텃밭이 '엄마 마음의 5천평 밭' 이래요.

9월 14일에는 광운부 팀장이 혼자서 약 10가구를 1차 답사를 했다. 답사한 사진을 살펴보니 벽돌과 블록을 이용해서 화단으로 꾸며놓은 집, 스티로폼과 빨간 고무 합지박을 이용해서 키우고 있는 집 등 텃밭의 넓이와 방법이 각 집마다 키우고 있는 식물만큼 다양했다. 주민들은 ‘알아서 예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해달라’ 등의 다양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다세대 주택, 약 4,5층 높이에 위치한 옥상들은 꽤 좁고 급한 경사의 층계로 올라가야 했다.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틈과 흠을 올리는 공정까지도 큰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텃밭틀의 크기, 흙과 비료의 운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했다.

9월 17일, 11가구의 실측을 위해 광운부 팀장, 박진영 팀장, 이초영 작가가 함께 동행했다.

제일 처음 찾아가는 곳은 5동 방명에 통장님 덕이다. 집에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고추, 깻잎, 가지, 방울토마토 등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다. 그 옆, 순흥식품 이순분 님의 덕은 국화, 분꽃, 옥잠화, 사발장미 등의 꽃나무들이 만발해 있었다. 가을에는 쪽파와 얼갈이 배추, 쪽갓을 심을 거라고 하셨다.

8동 부경머리방은 감각있는 미용사의 손으로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특히 천사의 나팔꽃이라는 식물은 탐스러운 꽃송이가 아래쪽으로 얼굴을 내리고 있어서 마치 작은 종을 연상케

했다. 이미 가지를 재배해서 따 먹고, 고구마를 캐고 난 뒤에, 무와 배추를 심었다고 하신다. 한쪽에는 겨울작물인 시금치를 심을 예정이란다.

22통, 2818번지는 6반 윤순재 반장님 댁이다. 벽돌로 따로 화단처럼 꾸며놓은 곳에 대추나무가 자라서 연두색으로 빛나는 대추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함께 올라간 여러 사람마다 2~3개의 대추를 따서 먹으라 쥐어주셨다. 더운 여름날, 대추는 물이 가득 차 올라 싱그럽기 그지없었다. 어디선가 날라와서 자란 대추가 이렇게까지 컸고 해마다 풍성하게 대추가 열린다고 자랑하셨다. 어렸을 적 우리집에 날라와서 자란 포도나무가 생각났다. 한 여름마다 두 양동이씩 포도를 따서 온 동네가 맛있게 나눠먹었던 기억. 남은 포도로 아빠가 좋아하는 포도주를 담그던 기억 등이 떠올랐다.

2817번지 양순록님은 옆집과 뒷집에 모종을 나눠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며 작고 예쁜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22통 유경순 통장님은 대문 위의 공간에 장식용으로 꾸미고 싶다고 하셨다. 대문 오른쪽으로 작은 화단이 있고 그 화단에서 자란 호박과 수세미가 벽을 타고 대문 위까지 뻗어있었다. 대문 전면이 대로변에서 바로 보여서 예쁘게 가꾸게 되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냐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이 날, 산에서 주워왔다면 밤을 한 움큼 싸주셨는데 집에 가지고 와서 맛있게 삶아먹었다.





21통 김만기 님 댁은 유경순 통장님의 추천으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집과는 달리, 생강이 심어져 있었다. 생강잎을 손에 문질러 코에 대니 '생강' 하면 연상되는 아린 맛과는 달리 무척 향기롭고 싱그러웠다. 특히 생강은 겨울에 무척 요긴하다는데 김장 담글 때, 생강차 용으로 재어놓아 목이 칼칼할 때 감기에방으로 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12통의 진미식당 윤한교 님의 옥상텃밭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었고 1313번지 조점동 님은 여름이면 피망을 키워서 잘 드신다고 한다. 1356번지 박춘분 님 댁의 옥상에는 달래, 썸바귀, 잔대 등이 심어져 있었다. 이제 새롭게 꾸미면 약재만 심어서 재배해보고 싶다며 채소가꾸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옥상 텃밭이 '엄마 마음의 5천평 밭' 이라고 해요."라며 환하게 웃으신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1362번지 유영란 님 댁은 각종 채소와 화초를 너무 잘 가꾸고 계셨다. 한 쪽에는 낮은 운동기구에 작은 화분들을 올려놓은 모습이 새롭다는 느낌을 주었다. 두 내외분께서 어떤 종류를

심었는지에 대해 연상 서로 이야기하느라 바쁘셨다. 고추, 상추, 파, 복분자, 마, 단풍, 오가피, 당귀, 야콘, 수세미, 꽃사과, 국화 등등, 갖가지 채소와 꽃 이름이 이어진다.

실측 이후, 원자재 구입과 재단, 공구 등을 비치하여 텃밭틀을 제작할 곳을 물색했다. 수진동 내에서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 은행주공아파트 풀장 옆 공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집집마다 좁고 가파른 옥상 계단 때문에 조립식이 가능하다면 조립식으로 제작하는 방법까지 고민해보기로 했다.





텃밭틀 제작현장을 찾아가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은행주공아파트 풀장 옆 창고에서 텃밭틀을 만들었다. 은행주공 아파트 풀장단장을 함께 해주신 이화섭 작가, 정삼선 작가가 함께 제작에 참여했다. 9월 26일에 방문했을 때는 수진동 하늘텃밭에 쓰일 텃밭틀이 많이 제작되어 있었다. 너비 50cm, 깊이 50cm, 길이 1m로 제작된 텃밭틀은 바깥쪽에 목재용 페인트로 노란색과 연두 색이 번갈아 칠해져 있었는데, 나무의 웅이가 중간에 박혀 있는 모습이 텃밭틀과 더욱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텃밭틀은 각 가구마다 약 2~3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실측한 결과에 따라서 텃밭틀 설치 후, 옆의 공간이 애매하게 남는 5개 가구는 50~70cm 정도의 작은 틀을 하나씩 더 보충해주기로 했다. 모든 가구에 퇴비가 섞인 '상토'를 함께 나눠주기로 하고, 흙은 각 집마다 해결하도록 조율했는데, 이후 흙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들여 필요하고 신청한 집에 제공했다.

하늘텃밭 설치하던 날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텃밭틀 설치와 마무리작업을 실시했다. 5통 순홍식품 이순분 님 댁에는 흙이 다져진 화단이 크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단 외부에 방부목으로 예쁘게 울타리를 쳐 마감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화단을 정리하면서 남은 많은 양의 흙은 옆집인 5통 방명에 통장님 댁으로 옮겨졌다.

모든 가구의 옥상으로 텃밭틀과 상토 2개를 일단 옮긴 후, 이틀에 걸쳐 가구마다 방문하여 최종 설치를 했다. 텃밭틀 아래쪽에 6군데 벽돌을 괴어 땅과 떨어뜨려 옥상에 하중을 줄이



는 한편, 물을 잘 빠지게 하고 가지런히 정렬하여 외관상으로도 정돈되어 보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의 자리에 배치하기 원하는 집이 많아서, 곽윤부 팀장과 박진영 팀장은 각종 식물과 채소가 심어있는 무거운 큰 고무 함지박과 스티로폼 화단 등을 꽤 여러 번 옮겨야 했다. 수고한다며 옥상으로 올려주신 포도 한 송이는 무척 달았다.

연속되는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곽윤부 팀장은 “사진에 찍힌 내가 낯설어, 내가 생각하는 내 얼굴이나 표정이 표현되지 않더라고.”라는 말이 잊혀지질 않는다. 지면을 빌어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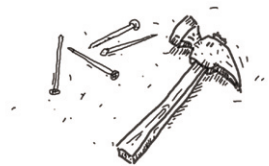
“열심히 일하는 곽윤부 팀장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이 훨씬 잘 생기고 멋지세요.”

하늘텃밭 점심모임

11월 3일, 하늘텃밭 점심모임이 있는 날이다. 1시에 윤한교 님의 댁인 진미식당에 도착하니, 마음의 5천평 밭을 가지고 계신 박춘분 님이 제일 처음 오셨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졌다면 옥상에 얼음이 3센치나 얼었다고 한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옥상에 대추나무를 가지고 있는 윤순재 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다.

성남에서 40년 가까이 사신 박춘분 님은 “재작년에 산 쪽파의 씨를 조금씩 남겨서 올해도 심었어. 지금도 한 바구니 따놓고 온거야.”라며 웃으신다. 텃밭을 잘 가꾸는 비결을 여쭙봤더니 통을 하나 준비해서 겨울 내내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썩혀 따뜻한 봄에 흙에 넣고 같이 뒤섞으면 자연 퇴비로 인해 1년 내내 채소나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신다.

“그게 다 크는 재미야. 잘 자라는 것 보면, 얼마나 신기한데?”



내년 봄엔 채소밭고 약이 될만한 잔대와 더덕, 곤드레, 달래를 심을 예정이라고 한다.

윤순재 님도 수진동에 30년 넘게 사셨다고 하시면서, “10월 초에 텃밭이 설치되어 겨울 작물을 심기에는 조금 늦었어요. 열무나 시금치 심어볼까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라고 대답하며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물어보신다.

곽윤부 팀장은 성남문화재단과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소개, 사업소개, 사업취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하고 있는 도중, 22통 유경순 통장님, 8통 이난영 통장님이 늦게 도착하셨다. 때마침 통장협의회가 열린 날이었던다. 곽윤부 팀장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내년에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렸다. 그래야 일한 우리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당부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번엔 텃밭에 관련하여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흙이 제공되길 원했다. 도시에서 흙을 구하기 어렵고 산에서 퍼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곽윤부 팀장이 ‘이젠 물을 주세요’ 화단 조성을 할 때 흙을 채워야 하니, 그 때 필요한 집에는 채워주겠다고 약속했다.

텃밭틀 넓이가 좁아서 더 넓어졌으면 한다는 이야기에 집집마다 옥상계단에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선 그 정도의 길이와 넓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진미식당 윤환고 님은 집에서 가꿔 먹는 채소 중에 뿌리가 얇은 식물도 있으니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면, 본인은 설치된 텃밭틀의 1단을 잘라서 낮게 만들어 상추를 심어놓았다고 하셨다.

초기 하늘텃밭 시안과는 다르게 사각 상자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경순 통장님은 다음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실용적이면서 미관상으로 조금 더 눈에 떨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난영 통장님은 텃밭틀 지급형태와 더불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텃밭의 외곽을 예쁘게 장식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고 하셨다.

점심모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내년에 잘 가꿔보겠다고 하시며, 이런 사업이 계속 있으면 내 이웃이나, 동네 친구들에게 알려 수진동에 하늘텃밭이 더욱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비쳤다. 꼭 수진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가 잘 되면 다른 동네에서도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우리가 잘해야 이런 류의 사업이 지속되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잘해보겠다고 이야기도 하셨다.

내년 봄, 파종 후 새싹이 날 때 꼭 한번씩 찾아뵙기로 약속했다. 어떤 채소와 어떤 꽃들이 사랑마루 텃밭을 기다리고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흙 올리던 날.

며칠동안 비가 내리고 꽤 추워진 11월 20일. 이 날은 '이젠 물을 주세요'의 5번째 화단이 만들어지는 날이었다. 길거리 화단 4곳과 하늘텃밭에 채울 흙을 구하기 위해 모란에 있는 '경남골재'로 향했다. 오늘 일을 도와주실 분은 최석곤 님과 박시영 님이다. 두 분 모두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다. 커다란 포크레인으로 1톤 트럭에 흙을 가득 쏘아 붓고 수진동으로 향했다.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5통 방명에 통장님 댁. 텃밭틀 안쪽에 씌인 비닐에는 빗물이 가득 담겨 있어 배수를 위한 구멍을 낸 뒤 흙을 자루로 지어 올렸다. 하지만 흙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때마침 짐통 2개가 옥상 저쪽 편에 놓여 있는 것을 본 박시영 님이 '저것을 빌려서 하자'는 말에 다음 집부터는 짐통으로 지어 나르기 시작했다. 총 7집에 흙을 지어 올렸는데, 보기보다 많은 흙이 필요했다. 한 가구에 한 사람당 3회 정도는 올라가야 텃밭틀이 흙으로 꽉 메워졌다. 함께 취재에 나선 이초영 작가도 덩달아 바빠졌다. 안쪽에 비닐에 배수 구멍 뚫는 일, 흙이 비닐 안쪽에 담겨지도록 비닐을 바깥쪽으로 제껴서 잡고 있는 일, 지어 올린 흙을 호미로 평평하게 만드는 일 등이

이초영 작가의 몫이었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점은 따로 있었다. 배수 구멍을 뚫고 비닐을 바깥쪽으로 제껴놓기 위해서는 흙이 올라오기 전에 재빨리 옥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 나중엔 사진 찍으라, 옥상에 빨리 올라가라, 흙 평평하게 맞추라 정신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간 유찬희 님 댁에서 맛있는 고구마를 대접해주셨다. 흙이 언제 올지 가늠할 수 없어서 압력솔에 고구마를 담아놓고 딱근하게 찌주려 기다리셨는데 너무 갑자기 왔다면서 지금 가스불에 올렸으니 잠깐 기다렸다가 고구마를 먹고 가라고 붙잡으신다. 압력솔이라 금방 된다고.

흙을 올리고 난 후, 압력솔째 가지고 내려오신 뜨끈한 고구마에 어제 담궜다는 김장 김치를 걸쳐 한 입 베어먹으니 너무도 맛있었다. 역시 땀 흘린 후에 먹는 밥은 언제나 꿀맛이다.

주민들은 집집마다 흙까지 올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으셨다. 우리도 내년 봄에 꼭 잘 가꿔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잊지 않았다. 서로 고맙다고 인사하며 부탁하는 마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대추나무집 윤순재 님

성남시 수진동 주민으로 산 지 30년이 되었다는 윤순재 님의 고향은 충청도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성남으로 시집을 왔다.

“텃밭 가꾸지는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전부터 채소 가꾸는데 취미가 있었죠. 시골에서 자랐다 보니, 농사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더욱 재미를 느끼나봐요.. 여태까지 옥상에 오이, 호박, 상추, 무우 등 여러 종류를 다 심었고, 수확한 작물은 이웃끼리 나눠먹어요. 오이도 10개 심으면 여름 한 철 동안 100개나 따는데 우리집 혼자 다 못 먹지. 여름에는 거둬들인 채소로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도 여러 번 했어요.”

해마다 오이나 상추, 고추는 사먹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하셨다. 모종을 파는 것보다는 씨앗을 사서 심어 잘 숙여주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데 내년에도 여태까지 심었던 채소류를 심어서 가꿀 예정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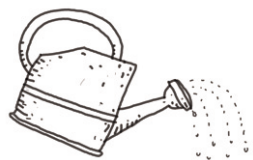
“자라는 것 보면 재미가 있어요. 또 내가 직접 무공해로 키운 것이라 건강에도 좋고.”

남편 분도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함께 가꾼다고 하신다.

30년을 사셨다는 수진동에 대해서는 “시골처럼 이웃과 정겹게 잘 지내요. 오래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날씨 좋을 때는 골목에 평상 놓고 밥도 같이 해먹고 가끔 술도 한 잔 하면서요. 오가는 정이 돈독한 인간미가 있는 동네예요.”라고 대답하셨다.

인터뷰가 끝나자, 조금 있다가 동네로 마실나갈 거라고 하시며 다음에 볼 기회 있으면 또 보자고 하신다. 다음 해에 윤순재 님 댁을 방문할 때는 여름날 삼겹살파티 중 한 자리에 끼어 앉아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오이로 즐거운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옆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한 가득 열려 달디 단 대추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三 이젠 물을 주세요!

*삼

2879번지 세계유통 옆 전봇대에는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김정 비닐에 담겨진 주인 잃은 쓰레기는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통 통장님은 이 곳에 화단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려도 꽃 옆이니까 양심의 가책은 느낄테니 그것으로 족하며 심어진 꽃은 주민들이 잘 가꾸겠다고 약속했다. 화단이 완성된 후, 실제로 쓰레기 투기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결과를 수진 1동 동사무소에 알리고 24곳의 쓰레기 투기 단속지역 중 화단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은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 승낙한 4곳에 더 화단을 만들어 총 5곳에 설치했다.

이젠 쓰레기 대신, 화단의 물을 주자는 바람을 가지고 프로그램명을 ‘이젠 물을 주세요!’ 라고 정했다.

× ○ × ○ × ×



이야기골목, 반대에 부딪히다.

이야기골목은 9월 초까지 총 4곳의 신청을 받았다. 2곳은 아트벤치, 2곳은 평상을 원했다. 평상 중 한 곳은 낡은 평상을 튼튼한 평상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아트벤치와 같은 형식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앉는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사랑마루’의 의지를 담은 프로젝트였다. 실측하고 디자인하는 동안 우리의 의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담벼락, 대문 앞, 골목 사이에 있는 의자와 평상은 쉬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이지만, 집주인들은 관리가 쉽지 않은 장소였다. 지나가는 누군가가 지저분하게 이용한다거나, 밤새 앉아 이야기하던가, 잠자리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 잠자리로 삼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안타깝게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단 1곳만 진행하기로 이야기되어 은행주공아파트 공터에서 작업한 평상을 실어 옮기던 날, 설치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크게 반대했다. 처음에는 승낙했지만, 이후에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통장님께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통장님께 연락해 보니, 본인의 입원 때문에 집주인의 뜻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신다. 안타깝지만 작업공간인 은행주공아파트 창고로 다시 실어왔다. 되돌아 온 평상은 한 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은행주공아파트 풀장환상에 기증되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디든지 쓰일 용도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어린 날, 동네언니네 집 앞에 있던 평상에서 배 깔고 누워 여름방학 숙제를 한 기억이 난다. 이제 매해 여름마다 그 평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장구를 치는 애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친구끼리 여름방학 숙제도 함께 할꺼야. 가을이면 그 평상에 위에 뒹구는 낙엽도 볼 수 있겠지.’

‘이젠 물을 주세요!’ 의 시작

하늘텃밭 때문에 자주 지나다녔던 2878번지 앞 전봇대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금지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검정 비닐에 담긴 여러 봉지의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 있었다.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에 치워도 그 다음날이면 거의 비슷한 양의 쓰레기가 또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의식 없는 몇몇 사람의 행동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늘텃밭에 큰 도움을 주신 유경순 통장님은 텃밭을 제작하는 김에 그 곳에 화단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쓰레기 놓을 공간이 적어지니까 놓기 어려워 질 것이고, 살아있는 꽃 옆에 쓰레기를 버리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조금 느끼지 않겠어요? 화단에 꽃은 나랑,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신경 써서 돌볼게요.”

사랑마루 팀도 시범 삼아 화단을 만들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10월 7일, 화단을 설치하는 곳으로 갔다. 목재 위에 잘 익은 홍시 2개가 예쁘게 놓여있었다. 수고



가 많다며 지나가던 주민이 놓고 갔다고 하신다.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왔다. 화단을 설치해야 할 지대에 살짝 기울기가 있어서 목재 재단부터 이음새를 연결할 때마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했다. 광운부 팀장과 박진영 팀장님이 오늘 늦게까지 설치해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셔서 며칠 후에 완성된 모습을 보러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쯤 뒤, 화단이 완성된 모습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 우선 쓰레기의 양이 무척 줄어 있었고 주변이 무척 깨끗해졌다. 화단 안에는 예쁜 국화꽃도 심어져 있었다.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도로 옆 화단에 국화꽃을 심는 거리미화작업을 했는데 이 곳에 화단이 조성된 것을 알고는 심어주었다고 한다. 유경순 통장님은 ‘여기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다른 쓰레기 투기지역에도 화단을 만들자고 주민센터에 건의했다’고 하시며 다른 곳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이 때, 사랑마루 팀은 소곤소곤 이야기 골목의 실행이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다. 광운부 팀장은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함께 가꿀 수만 있다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화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제안했고, 이렇게 ‘이젠 물을 주세요’가 시작되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24곳을 돌아보다.

곽윤부 팀장과 함께 수진1동 주민센터에 찾아갔다. 이완우 행정지원팀장님도 세계유통 옆 화단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도움을 주시기로 했다. 먼저 수진1동에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이 얼마나 되는냐는 물음에 담당인 김미선님은 스티커로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신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은 총 24곳인데요, 카메라를 설치해도 안내판을 부착해도 별 효과가 없어 서요. 무엇을 만들어 설치하면 좋을지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화단이 생겼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직 언제 설치할지는 세부계획이 잡힌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곽윤부 팀장은 사랑마루 팀에서 24곳 중, 주민들이 동의하는 곳에 화단을 더 설치할 테니 그 곳들의 반응을 본 후, 화단이 좋을지 다른 설치물이 좋을지 가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저희 팀이 24곳을 다녀볼게요. 실제로 가보면 주차 등의 문제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거예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를 선정해서 전해드리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1월 10일에 있을 통장협의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통장님들이 의지가 있어야 하고, 설치할 곳의 집주인을 만나서 의견도 물어봐야 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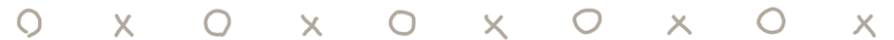
이완우 행정지원팀장님은 적극 돕겠다고 하셨다. 성남문화재단의 정책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색소폰을 1년 반이나 배운 경력이 있다고 하셨다. 역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사랑마루 팀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젠 24곳 중 어디가 좋을지 다닐 차례이다.



후보지는 14곳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24곳을 모두 현장답사 했다. 주택가, 길가, 주차장 등 여러 유형의 장소들이었는데,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는 표지판이 있어도 쓰레기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골목 입구 또는 담벼락, 골목과 골목이 이어진 곳 등,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이었다. 2116번지에는 카메라가 있어도 꾸준히 쓰레기가 쌓인다 했고, 1552번지의 경우 이미 주인집이 만들어놓은 화단이 있었는데 그 앞에도 여전히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지나가는 한 주민의 말로는 ‘위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에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버리고 간다’ 고 했다. 2288번지는 공공주차장 앞이고 사람들이 빈빈히 지나다니는 길이라 공공근로 작업이 끝난 낮시간 인데도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놓여있었다.

이와 반대로 화단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도 많았다. 흔히 골목 입구에 위치하는 곳들이었는데, 주차에만 지장이 없고 설치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모두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485번지, 506번지, 846번지, 1783번지, 1201번지, 1375번지, 1435번지 등, 총 14곳의 의사를 타진해 바주길 수진1동 주민센터에 전달했고 11월 중순 경에 총 4곳에서 설치를 원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지막 5번째 화단 조성한 날

지난 주에 388번지, 1375번지, 2310번지에 화단을 설치했다. 388번지는 원래 옆에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함께 정리하여 깨끗하게 만들었다. 1375번지에 설치된 화단은 제일 처음 설치된 2879번지에서 다음다음 골목 앞이다. 2310번지는 공영주차장 옆, 계단 아래에 넓은 장소로 평소에도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이다. 그곳에는 가장 넓고 큰 화단을 만들었다.

5번째 화단은 미도반점 옆 1435번지에 설치하기로 했다. 12시쯤 도착하니 화단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옆의 서 있는 전봇대까지 이어 ‘ㄴ’ 자의 화단으로 꾸며질 예정인데, 박진영 팀장과 한유진 팀장이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수평과 높이를 맞춰 만든 것이라고 한다. 화단크기를 보니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보였다. 다른 곳들은 사각의 형태였다면 이 곳은 형태가 다르고 지대가 평평하지 않아 일일이 맞춤으로 나무를 잘라서 대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도 우리 사랑마루 팀장님들은 조금만 뚝뚝딱딱해서 어쩔 그리도 잘 만드시는지... 화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늘땃발’의 땃발들에 흙을 보충하는데 따라 나서기로 했다.

‘하늘땃발’의 집마다 흙을 올리고 난 후, 2310번지의 화단에 흙을 채우는 작업 중이었다. 장을 봐 오는 길인지 두 손에 잔뜩 먹거리를 든 아주머니께서 ‘뭘 하는 것이냐 고 묻는 대답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 곳에 만든 화단이다.’ 라고 답변해드렸다.

“아.. 며칠 전에 만들어졌길래, 나는 큰 쓰레기통인가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기 쓰레기가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화단이 생기면 이제 사람들이 가져다 버리는 것도 줄겠네.”

이미 저 위쪽 만들어진 1곳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이런 일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고 물으신다. 성남문화재단과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수진동 문화배움터, 하늘땃발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 하시네요. 땃발 이야기는 들은 적 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



면 참여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남기신다.

하늘땃발에 흙을 올리고 2개의 화단을 채우자 남은 화단들을 채울 흙이 모자랐다. 이초영 작가는 그 곳에 남아서 화단 만드는 모습을 취재하기로 했고, 박윤부 팀장과 다른 2분은 또 다시 흙을 구하러 갔다. 4시경에 미도반점 옆 화단에 도착했을 때는 나무들 둘레가 모두 둘러져 있었다. 날씨가 제법 차가워서 야외작업이 힘들만도 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이초영 작가도 돕겠다며 노란색 페인트 통과 붓을 집어 들었다. 바깥쪽 울타리 나무에 하나씩 건너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다. 처음엔 양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땅에 살짝씩 흘렀으나 금방 익숙해져서 나무결 따라 꼼꼼하게 잘 바를 수 있게 되었다.

저녁 5시쯤, 작업이 완료되었고 흙을 다시 실어온 박윤부 팀장과 다른 분들은 화단 안에 흙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삽으로 퍼넣은지 약 10분 정도가 지나자 절반 정도가 채워졌다. 저 멀리서 “어이?~” 라고 다가오는 두 분이 있었는데, 이화섭 작가와 정삼선 작가였다. 아래 골목에서 벽화작업이 있어서 끝났다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청했다. 흙을 채우는 동안 박진영 팀장과 두 작가가 오늘 썼던 공구와 목재 등을 정리했다. 미도반점 옆에 커다란 합지박에서 자라고 있던 나무를 옮겨 심었고 주변을 정리하니 6시가 되었다. 미도반점에서 추운데 고생한다며 매실차를 타주셔서 따뜻하게 나눠 마셨다. 하루종일 밖에서 고생했던 우리들은 저녁을 나눠 먹으며 모두의 수고스러움을 다독거렸다.

일주일이 지난 후, 찾아간 1435번지 화단은 약간의 쓰레기가 화단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봤던 쓰레기 양보다는 줄어 있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힘들면 조금씩만 줄어도 좋겠다는 처음의 바람이 이뤄진 듯 했다. 앞으로 화단 조성 사례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의 골치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 중 하나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NTERVIEW

"저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화섭 작가

“그림을 전공했지만 문화예술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주민들과 어울려서 공동의 작업을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영역이었죠. 이번에 사랑마루에 참여하면서 저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화섭 작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평소엔 늘 그림을 그린다. 우리소리연구회 ‘숫대’에서 사자춤 공연을 하며 끼를 발산하기도 하지만 10년이 넘게 ‘그림언덕’이라는 벽화모임에서 그림 그리는 일로 돈도 벌고, 봉사도 하는 그림쟁이다.

“도촌동 팀장으로 활동한 박진영 작가와 고등학교 미술부 선후배 사이예요. 하늘텃밭, 풀장환상, 벽화 작업을 함께 진행한 정삼선 작가와 이렇게 셋이요. 프로젝트에 따라 작업에 맞는 작가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셋이 주축이 돼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진영 작가가 함께 해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을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화섭 작가는 수진동 주택 옥상에 ‘하늘텃밭’을 설치하는 작업, 은행주공아파트 ‘풀장환상’ 공간을 꾸미는 작업, 관리사무동 옆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그 중에서 주민들과 함께 완성한 벽화작업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완성한 벽화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이죠. 오히려 교육의 목적과 성향이 더 강해요. 그냥 예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힌 게 아니라 은행주공아파트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조사해서 그림을 그리고 타이틀을 달아 그 옆에 식물에 대한 설명을 작게 적어놨거든요. 식물도 저희가 조사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생태연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조사한 내용으로 책도 만드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벽화에도 접목한 거죠.”

이화섭 작가는 작가가 작품성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재를 선택하고 작가는 주민들이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욱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보였다. 주민들이 지나가다라도 ‘요고 내가 그렸다’라고 자랑도 하고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가들도, 주민들도 즐겁게 참여를 했는데 겨울로 접어들어서. 날씨가 좋았을 때 했으면 훨씬 더 참여하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성남에서 나오고 여전히 성남에서 살고 있는 이화섭 작가는 성남을 ‘고향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다. 고향이 뭔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곳이 아닌가. 언제 떠올려도 그리운 곳, 정이 깃든 성남.

“물론 주민들에게 너무 디테일한 작업을 요구할 수는 없죠. 이런 작업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가능한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성남의 다른 빈 벽, 다른 동네에도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재밌잖아요.”

(인터뷰어 : 서진영)



IV. 키움 - 태평동 이야기



키움

[‘크다’의 사동사인 ‘키우다’의 명사형]

크다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지난 2년간 태평동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결과는 무엇인지,

새로운 식구를 맞은 한울기자단의 생각은 어떠한지,

시간의 기록을 담은 태평4동 주부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키움’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사랑마루는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을 돕습니다.

또, 동네를 위해 일하고 싶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방법을 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영글 때 까지 함께 돕습니다.



M.키움

태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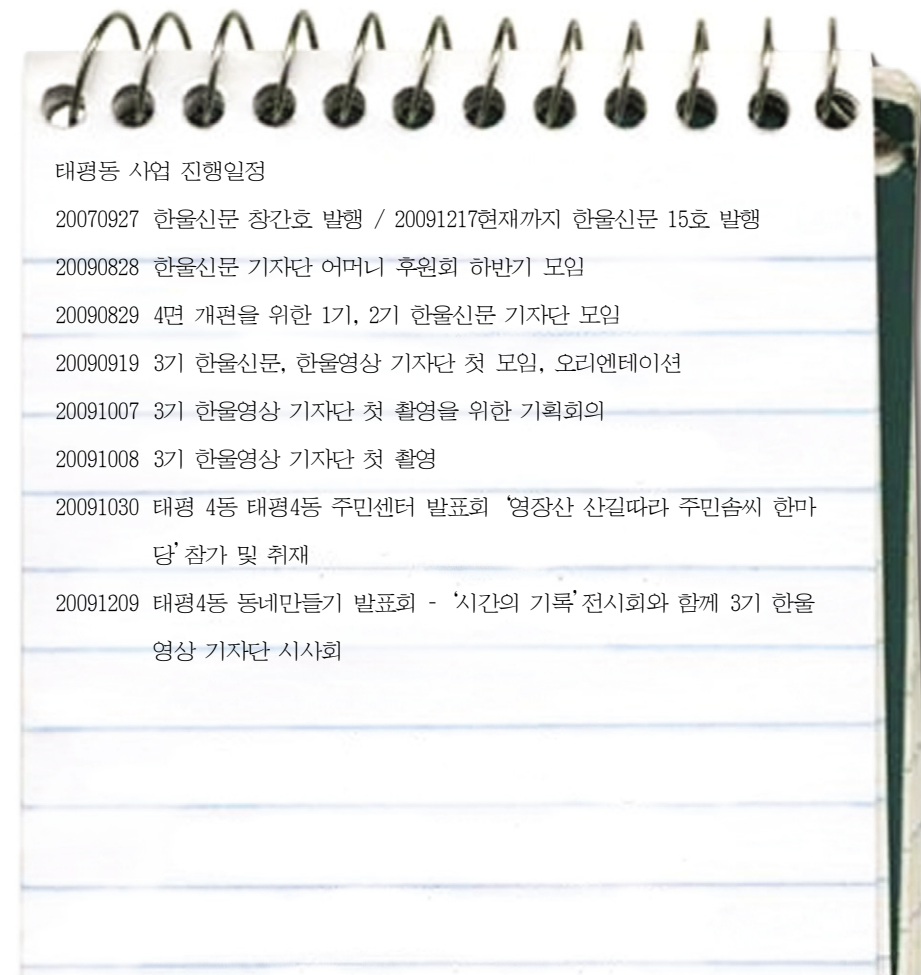
태평4동은 성남시에서 광주대단지 이주 진행 시, 광주출장소가 있었던 곳으로 성남개척사에 있어 가장 우선 마을을 꾸리기 시작한 여러 곳 중 한 곳이다. 등 뒤로 푸르른 영장산을 두르고 있는 언덕배기 동네라서 꼭대기에 올라서 보면 성남이 한눈에 들어온다. 성남에서 가장 노후 되고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이라 말하지만 40년 동안 우리 동네를 일구고 가꾸어온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을 나누면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정 깊은 마을이다. 태평4동은 재건축 예정지이다. 금빛초등길을 기준으로 윗동네는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살던 동네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새로운 가족들이 모여 함께 더불어 사는 동네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태평동 문화예술 프로그램명

한울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영상)

시간의 기록



태평동 사업 진행일정

- 20070927 한울신문 창간호 발행 / 20091217현재까지 한울신문 15호 발행
- 20090828 한울신문 기자단 어머니 후원회 하반기 모임
- 20090829 4면 개편을 위한 1기, 2기 한울신문 기자단 모임
- 20090919 3기 한울신문, 한울영상 기자단 첫 모임, 오리엔테이션
- 20091007 3기 한울영상 기자단 첫 촬영을 위한 기획회의
- 20091008 3기 한울영상 기자단 첫 촬영
- 20091030 태평 4동 태평4동 주민센터 발표회 '영장산 산길따라 주민숨씨 한마당' 참가 및 취재
- 20091209 태평4동 동네만들기 발표회 - '시간의 기록' 전시회와 함께 3기 한울영상 기자단 시사회

한울기자단

한울기자단은 한울신문과 한울영상으로 이뤄진다. 한울신문은 2007년 8월부터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지속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기 기자 6명은 3년째 기자활동을 하면서 중학생이 되었고 2기 기자 3명은 올해 초등학교 졸업반이다. 현재 금빛초등학교 5학년 학생 4명이 신입 수습기자로 선발되었고 기자교육을 마친 후, 2010년 1월호부터 정식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원이 없는 2009년부터는 자력으로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노력 중이다.

한울영상 기자들은 총 11명이 활동 중이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를 영상으로 담는다. 서투른 카메라 조작과 편집이지만 스스로 취재거리를 발굴하고 어떤 소재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 머리를 맞댄다.

한울신문은 매주 토요일 태평4동 제4복지회관, 한울영상은 매주 수요일 태평 4동 주민센터에서 기자단 회의를 가진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한울신문 기자단과의 첫 만남

늦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린 8월 29일, 한울신문 기자단 9월호 준비 첫 모임이 있던 날이다. 모임장소에 도착하니, 3층에서 재잘거리는 소리가 1층까지 들린다. 사실, 그 나이 여자아이들은 별 것이 아닌 소재도 모두 즐겁고 재밌다.

한울신문 발행인이자 사랑마루 태평동 팀장 김성수 님의 작업실에는 6학년 2기 김소윤, 김소명, 이지선 기자3명과 중학교 1학년 1기 전은지, 오시영, 김은하, 안혜빈, 전지혜, 김승민 기자 6명이 모여 있었다. 지난 2년간 프로젝트 북과 영상에 담긴 모습 보다 부쩍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자들의 키가 자란 만큼 한울신문도 자라지 않았을까.

손톱에 봉숭아물을 곱게 들인 소명이와 쌍둥이 동생 소윤이가 맡은 코너인 동네소식이 아직 마감 전이다. 코믹한 말투로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인 지선이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3명은 5학년 3기 기자들이 들어오면 어엿한 선배님이 된다.

카리스마 편집장 은지, 자타공인 시인이자 부편집장인 시영이, 동네 취재와 탐방을 곧잘 하는 승민이, 한울신문의 모든 사진을 도맡고 있는 혜빈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정리하는 지혜, 4컷 만화 ‘한잎이와 한별이’를 그리는 은하까지 1기 기자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를 찾아 손발을 맞추고 있었다.

이 날은 새롭게 만들어질 기사중에 신상정보를 정리한 후, 앞으로 4면으로 바뀔 한울신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 발로 뛰거나 동네소식을 우선으로 하는 취재 기사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리하는 수준의 기사는 지양하자는 의견을 토대로 기사의 중요도에 살려야 할 코너를 정리했다. 이어서 한 면에 들어가는 원고 글자 수를 세고, 판형에 따라 기사량이 얼마나 될지 조절하였다.

사실 아이들은 편집회의는 빨리 끝내고 앞으로 들어올 신입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지원자들이 먼저 쓴 지원서를 읽으면서 어떤 후배일지 상상하고 질문거리들을 찾았다. 그 네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겠냐고 묻자 아이들은 앞다투어 이렇게 대답했다.

“일단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기사를 써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열정도 필요해. 자기가 잘 하려는 열의가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없어. 이걸 기자생활 하면서 계속 가져야 하는 거야.”

“글도 잘 써야겠지만, 인터뷰도 잘 해야 하니까 조금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왕이면 목소리도 좋았으면 좋겠어. 하하.”

“그리고 우리 후배들 오면 우리끼리 너무 친한 척 하지 말자. 원래 처음엔 다들 군기 잡는 거잖아.”

그랬더니, 막대사탕을 먹고 있던 지선이기가 이른다.

“선배님. 그러면 저 3~4주동안은 편집회의 올 때, 90도로 선배님들한테 인사할게요.”

“좋아! 좋아!”

어느 세계든 그 또래만의 규칙이 있다. 모이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는 규칙. 너무 강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내칠 수 있으나, 나는 믿는다. 이렇게 부딪히고 자신들이 만들어 가다 보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순수한 10대라는 것을.

한울기자단 운영위원회 모임

한울신문 9월호 준비 첫 모임의 하루 앞선 8월 28일에는 한울신문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다. 시영이 어머니인 최정란 님, 은지 어머니인 한경희 님, 최성은 시의원, 김성수 팀장, 이상훈 팀장과 늘봄 윤혜숙 실장, 나 이렇게 7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어머니들은 '4월 이후에 격월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다' 며 신문을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는데, 예전처럼 매월 발행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9월부터는 타블로이드 판으로 4면 편성,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발행인과 편집장이 신문발행을 책임 있게 이끌고 나가길 바랐다.

한울신문 기자단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시간의 기록' 도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중단된 상태였다. 앞으로 3기 한울기자단이 가입하면 새로운 기자들의 어머니와 교류할 장치도 필요했다. 그래서, 한울신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한경희 님, 사진동호회 시간의 기록 반장으로는 최정란 님, 후원회장으로 최성은 시의원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한울기자단 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리고, 한울기자단과 시간의 기록 모두 태평4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승인 받았으니 시간의 기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강사를 구해보기로 했다.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인 신문발행비용에 관련해서는 후원회원을 늘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안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 후원회원인 어머니들끼리 서로 친해지길 원했다.

현재 10월 30~31일 양일 중에 하루, 태평 4동 주민센터 작품발표회가 있을 예정이고 한울영상의 경우, 매월 실내 영화제 개최할 때 시작 전에 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며 8월 운영위원회 모임을 마쳤다.



9월 운영위원회

9월 19일 '시간의 기록' 의 첫 강의를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한울신문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한울기자단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울신문에 10명, 한울영상에 5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한울신문은 금빛초등학교를 통해 지원서를 받았고, 한울영상의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5명 중 1명이 한울신문 1기 기자 송민이의 소개로 신청했다.

한울신문은 10월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4면으로 발행하기로 최종결정 내렸다. 인터넷 검색 등으로 채울 수 있는 섹션은 과감히 없애고 발로 뛰는 살아있는 기사 위주로 각 코너를 조절하기로 했다. 한울영상의 경우, 새롭게 들어오는 기자들의 어머니들도 한울신문 운영위원회와 함께 모임을 가지고 '시간의 기록' 의 활동을 함께 해보자는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함께 하는 모임이 정착화되면 모임의 정식 명칭을 '한울기자단 학부모 운영위원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9월 신문은 이전에 발행되지 못했던 6월달 취재기사 중 시기가 늦어진 기사를 제외하고 손봐서 다음주에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장 취재 기사 중 '태평동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이전 신문에서 중앙시장 취재 기사가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태평동에도 취재할 곳이 많은데 중앙시장까지 취재할 필요가 있었냐는 이야기란다. 그 외, 신문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신입기자들을 맞으러 가야 할 시간이다.

요즘 세상에 학원 보내랴, 과외 시키랴, 공부 이외에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학생들과 달리 태평 4동에는 신문을 만들고 영상을 찍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 뒤에는 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마음이 활짝 열린 어머니들이 있었다.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활동하는 동네 커뮤니티.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듯 하다.



반갑다. 후배들!

9월 19일, 오후2시. 한울신문 발행인이자 사랑마루 태평동 팀장인 김성수 선생님의 사회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한울신문과 영상에 대한 역사와 소개, 한울신문 강사 황성현 선생님과 한울영상 강사 이상훈 선생님을 소개하고, 후원회에 대한 간단 소개를 마친 후 한울신문은 2층, 한울영상은 3층에서 각각의 첫 시간을 가졌다.

이전에 한울신문 기자들은 새로운 3기 기자를 선정하기 위해 ‘한울신문 3기 기자는 책임감과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정했다. 1기 기자들이 신입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잘 지킬 지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가 궁금해졌다.

한울신문 3기 기자들은 면접이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자리 때문인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선배기자들은 후배기자들에게 자기 소개와 장래희망, 쓰고 싶은 기사 소재에 대해 물었다. 홍예림, 안혜지, 김민선, 나하영, 김하람 이렇게 5명은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예림이는 화가, 혜지는 변호사, 민선이는 승무원, 하영이는 아나운서, 하람이는 파티쉐가 꿈이라고 대답했다. 후배들의 대답 한 마디, 제스처 하나를 보면서 선배기자들은 연상 ‘귀엽다’, ‘독특하다’, ‘주장이 있어서 좋다’ 등의 감상을 자기들끼리 조그마하게 이야기했다. 후배들을 두번째 맞이하는 1기 기자들이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2기 기자들의 설레임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이끌어 줄 선배와 2인 1조로 맺어지기 위해서 가위, 바위, 보로 선, 후배가 연결되었다. 시영이는 예림이, 승민이는 하람이, 혜빈이는 하영이, 지혜는 민선이, 은지는 혜지와 함께 이어졌다.

선배기자가 된 1,2기의 소감은 어떨까?

“면접 보고, 이야기 나눈 자체가 좋기도 하고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라고 소윤, 소명이 쌍둥이 자매가 대답한다. 은지는 “사실 10명이 5명만 참석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푹뭉뭉 망하고 열정이 그대로 보여서 선배로서 잘 키워나가겠어요.”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시영이는 “5명이 모두 열심히 해서 한울신문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3층에서 진행된 한울영상의 첫 시간은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인사를 나누는 독특한 첫 시간을 가졌다. 한울영상 신입기자 박수빈, 김예은, 이다슬, 황혜연, 김지원 5명이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서로를 찍고 인사말을 적는 모습을 보면서, 먼 훗날 오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랐다.





한울신문의 10월, 11월

마을 소식을 맡은 소윤, 소명이 자매가 기사를 카페에 올리지 않아 10월호 신문 발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일단 마을 소식을 혜빈이가 맡아 정리하여 올렸고 10월 마지막 주에나 10월호가 발행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11월호에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 대한 소개와 도촌동 취재, 새롭게 생긴 서울 광화문광장 탐방 등을 기획했다. 11월 7일, 도촌동 새날복지회를 찾은 1,2기 기자들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 임기수·혜수 가족을 인터뷰 했다. ‘점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은 점’, ‘앞으로의 기대’ 등에 대해 물어보고 기사를 작성해서 11월호에 실었다.

또,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을 본 승민이와 지혜가 취재를 가고 싶다고 하여 직접 다녀왔다. 광화문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과 전시공간. 전시품에 대해서 꼼꼼히 취재하여 11월호에 실었는데, 때마침 취재 나온 경인방송 OBS 인터뷰를 하게 되어 취재 나간 기자가 취재 나온 기자에게 취재를 당하는 재미난 경험을 했다고 한다.

10월에서 11월까지 한울신문 2기 기자 3명이 탈퇴했다. 소윤, 소명이 자매는 마을소식 기사를 펄크넌 후 연락이 없었고, 지선이는 11월 이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하나라는 마음에서 태평4동 주민센터 전시회에 세워 둔 한울신문 기자단 소개에 3명의 사진을 예쁘게 붙였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10주간 신입기자 신문교육이 실시되었다. 중간에 아쉽게도 하람이가 그만두고 5학년 정진주가 10월 3일부터 3기 기자에 합류하였다. 황성현 선생님은 신입기자들에게 기자 정신, 기사 작성법 등을 교육시켰다. 2010년 1월호부터 정식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배 기자들이 기사작성에 도움을 주고 취재도 함께 나가는 등 현재까지 후배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한울영상 3기 기자들 이야기

10월 7일, 태평 4동 주민센터에 한울영상 교육에 참석했다. Story Board와 Q-Sheet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각자가 찍고 싶은 영상의 Story Board를 먼저 작성하고 그것에 맞춰 Conty 를 짜기로 했다. 각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찍을 것인가 고민하며 또박또박 적고 있는데, 개구쟁이 다슬이는 대충 빨리 써 놓더니 판짓하느라 바쁘다.

“제목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상의 중심이 되니까요. 그리고 스토리는 ‘6하 원칙’ 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이상훈 선생님의 세세한 설명을 들으며 지원이는 큰 집에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 다슬이는 본인 소개, 혜연이는 동생과 있었던 일, 형준이는 성남의 환경 이야기 등, 각자 소소한 일상, 사회적 이슈 등을 줄거리로 잡았다. 이 중, 지원이가 작성한 ‘큰집 가는 날’ 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화면구성에 대한 연습을 해본 아이들은 2인 1조가 되어 1명은 아나운서, 1명은 카메라맨이 되어 직접 영상을 찍었다. 본인이 만든 스토리를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아나운서가 전달하듯이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아이들은 쑥쓰러워 하기도 자신감이 넘치기도 했다. 역시 2기 기자인 선배 종원이와 형준이가 선배답게 성남 내 환경관련 뉴스를 다뤄서 칭찬을 받았다.

그 와중에도 끼가 많은 다슬이는 강의실 어디선가 마이크를 찾아서 나오지 않는데도 가요 ‘소원을 말해봐’ 를 부르며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슬이와 친한 수빈이도 장난에 잠시 동참한다.

10월 30일에 있을 태평4동 주민센터 발표회에서 선보일 영상을 촬영, 편집할 시간이 뿔뿔해져 내일인 10월 8일에 우리동네인 태평4동 이야기를 직접 촬영하기로 했다. 희망근로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벽화 그리는 모습을 소재로 3주 동안 영상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내일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촬영을 한 후, 편집하기로 했다. 감독은 형준이, 편집은 혜연이와 종원이, 아나운서는 다슬이, 작가는 지원이, 촬영은 수빈이, 오디오는 예은이가 맡았다. 직접 거리로 촬영을 나간다는 첫 촬영의 설렘으로 들뜬 아이들의 표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얘들아, 내일 태평4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야외촬영

다음날, 약속한 태평4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니, 아이들 모두가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다. 다슬이는 원하던 아나운서가 되어서 마이크를 잡는 것에 신나했고, 수빈이는 카메라의 'recode' 버튼을 직접 조작하는 것에 대해 설레는 눈치였다. 예은이는 카메라 옆에서 이어폰으로 사운드 상태를 확인했고, 지원이는 작은 노트에 여러 가지를 기록하며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담을지 구상하느라 바빠 보였다. 감독인 형준이는 'ready', 'start', 'cut' 을 외칠 준비를, 혜연이는 지원이와 다슬이 옆에서 원고와 멘트를 챙겨주느라 분주했다. 종원이는 이 날의 광경을 카메라로 열심히 담고 있었다.

오늘의 촬영 주제는 희망근로 사업의 태평4동 벽화 이야기이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태평4동 주민센터 맞은편의 다리 난간 작은 벽에 벽화작업을 하고 계셨다. 총 기획은 태평4동 팀장인 김성수 선생님이 하시고 오늘이 작업 마지막 날이란다.

촬영 순서는 벽화를 그리고 계신 어르신들을 멀리서 전체 샷으로 촬영, 가까이 다가가서 일하는 모습을 촬영, 작업 중인 어르신 한 분 인터뷰, 기획자 인터뷰, 동장님 인터뷰를 촬영하여 화면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한울영상 이다슬 기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에서는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저기에서, 무엇을 그리는 것일까요?”

다슬이가 조금 긴장했는지 자꾸 ‘NG’ 가 났다. NG도 첫 촬영에서는 좋은 경험일 것이라 생각했다. 다슬이가 촬영하는 동안 지원이와 혜연이는 나와 함께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출연을 부탁드렸다. 섭외 거절을 받은 지원이가 위축되어 보여 ‘그럴 때도 있으니 다른 분께 부탁드리자’ 고 다독거려줬다. 다른 어르신께서 기꺼이 출연을 승낙하셨다.

“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참여하실 건가요?” 등의 질문을 받은 어르신께서는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고 답하셨다. 기획자 김성수 선생님의 인터뷰도 무사히 마쳤다.

한울영상 아이들이 촬영하는 동안 벽화가 모두 완성되었다. 잠시 후, 완성된 벽화의 보충촬영을 마친 후 태평4동 유광영 동장님을 찾아갔다. 동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하고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들었다. 이것으로 오늘의 촬영이 끝났다. 유광영 동장님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셨다.

처음으로 모두 함께 한 첫 촬영에 아이들은 모두 신난 눈치였다. 직접 카메라를 잡고, 오디오를 체크하며 원고를 작성하였으니 ‘내가 만든 영상’ 이라는 생각이 절로 날 듯 했다. 이제 편집을 맡은 종원이와 혜연이의 활약이 남았을 뿐이다. 얼마 남지 않은 발표회, 바쁘다 바빠!

팀별로 촬영한 영상, 편집하기

12월 2일, 한울영상을 찾았을 때, 아이들은 2개의 팀으로 나뉘어 노트북 1대씩 차지하여 편집에 몰두하고 있었다. 예은이와 혜연이, 형준이가 한 팀, 수빈이, 종원이, 다슬이, 우민이가 1팀으로 각각 영상을 제작해보기로 했단다. 예은, 혜연, 형준네 팀은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할아버지와 학교에 많은 가을 국화를 모델로 촬영하였다. Part1, 2로 나뉘어 있었는데 Part1.은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Part2.는 학교 국화의 모습을 찍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우리 학교를 청소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찍은 거고요, 국화는 학교에 많이 피어있고, 가을이면 국화꽃이니까 찍고 싶었어요.”

촬영 내용에 대해 문자 편집하던 혜연이는 내 질문에 답변해주었다. 어느 정도 프리미어를 다룰 수 있게 된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다.



수빈, 종원, 다슬이, 우민이 팀은 한울영상 3기 소개 영상을 준비하였다. 우민이는 11월에 새롭게 들어온 3기 기자이며, 종원이 친구이다. 종원의 얼굴표정을 보니 촬영분이 적어서 영상이 제대로 편집되지 않는 듯 하다. 이상훈 선생님은 촬영분이 적다면 보충촬영을 하라고 조언하신다.

2주전부터 새로 들어온 5명의 3기 영상기자가 있었다. 종원이 친구인데, 윤도희, 유모란, 김다영, 김보람, 황어진 5명은 모두 금빛초등학교 6학년이란다.

이 날, 신입 5명은 ‘친구’ 라는 주제로 Stop Motion를 통해 촬영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40여장을 이어 붙이고 편집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 화면 효과, 색상 변환 등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법을 배웠고 ‘채피언은 마지막에 죽는다’ 라는 제목을 지었다.

서로 친구끼리 손바닥치기 놀이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모란이가 넘어지면 일어나 손가락을 바닥으로 내리면서 ‘Kill’ 이라는 표시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음에는 주제를 선택하거나 화면을 구성하기 힘들어했으나 완성작을 보니 제법 그럴 듯 하다.

영상의 경우, 태평4동에서 매월 열리던 동네 영화관이 폐지되면서 상영회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이 모든 작품은 12월 초에 있을 태평 4동 동네만들기 발표회에서 모두 상영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생각과 노력이 담긴 영상을 가족과 친구, 주민들이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바라는 마음이다.



二 시간의 기록

*이

사진클럽 '시간의 기록'은 2008년 성남문화재단의 '문화클럽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출발했다. 2009년 하반기 '시간의 기록'이 문화클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진강좌와 출사, 그리고 전시를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서 지원받았다. 10명의 사진강좌 수강생들은 10주 동안 토요일 강의를 듣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출사를 진행했다. 12월이면 재건축사업 때문에 사라지게 될 윗동네의 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10월 30일 태평4동 주민센터 발표회 '영장산 산길 따라 주민숨씨 한마당'과 12월 9일 태평4동 동네만들기 발표회에서 그간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첫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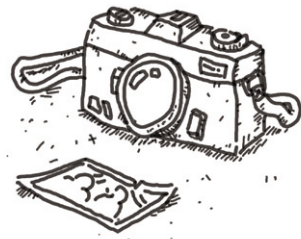
9월 19일, 시간의 기록의 첫 수업이 있었다. 강사섭외가 원활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던 시간의 기록은 회원인 최성은 시의원의 소개로 강사 섭외가 수월하게 이뤄졌다. 김효영 선생님은 전문 포토그래퍼로 활약하다가 결혼 후, 현재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당 주민이다.

시간의 기록은 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태평 4동 사진동호회이다. 처음 생긴 이유는 '한울신문' 기자들의 어머니, 후원자들의 모임으로 사진을 배우며 '한울신문'을 유지시킨다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 날은 사진 이론 수업으로 이뤄졌다. 회원들이 가져온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여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개폐 정도에 따라 사진의 선명도와 밝기 등이 달라지며 촬영장소가 실내, 실외일 때에 차이를 겪어야 한다는 등의 실례를 들면서 1시간 가량 설명해주셨다. 다음 시간에는 아웃포커스 된 사진을 1장씩 찍어오기라는 숙제도 주어졌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 회원은 간식 사는 것을 벌칙으로 정했다. 두번째 강의에서는 구도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다.

이론강의가 끝난 후, 잠깐의 담소를 나눴는데 승민이 어머니 박신아 님은 중학교 사촌언니가 고등학교 사진반에 들어가기 위해 단식 투쟁하는 것을 봤는데, 이후 사진학과까지 진학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직업까지 이어진 모습이 참 인상깊었다고 했다. 김효영 선생님은 프로 작가보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열심히 찍는다고 하며 프로의 경우 찍고 싶지 않은 사진도 많이 찍는 경우가 있어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이 더욱 더 즐겁고 진실해 보일 때가 있다는 코멘트도 했다.





사라질 윗동네를 담은 출사

10월에 있을 태평 4동 주민센터 발표회와 12월에 있을 태평4동 동네만들기 발표회를 위해서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출사를 나갔다. 내년이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윗동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시간의 기록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여러 골목을 누비며 사진으로 남겼다.

연두빛 어린이집을 지나니 골목 끝, 평상에 할머니들이 모여 계신다. 사진을 찍는 회원들에게 '무엇 때문에 찍는 거냐'며 물어보신다.

"동네에 사는 엄마들이 취미로 모여서 사진 찍으러 나왔어요."라는 최정란 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신다. 재개발 문제 때문에 찍어가는 줄 알았다 하시며, 재개발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보셨다. 함께 있던 최성은 시의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약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회원 수가 조금 늘었고 첫 출사는 8명이 함께 했다. 유광영 태평 4동 동장님과 박건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6명의 회원이 함께 했는데, 이 중 5명이 한울신문 기자단 어머니이다. 해빈이 어머님인 이금우 님, 승민이 어머님 박신아 님, 은지 어머니 한경희 님, 사진반 반장이자 시영이 어머니 최정란 님, 안미경님은 3기 신입기자 민선이 어머니이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에 승민이가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일반 평교사였던 선생님이 지금은 승민이 학교 교장선생님이세요."

어머니들에게 태평동에 대한 느낌을 묻자 승민이 어머님인 박신아 님은 어릴 때부터 태평동에서 살아온 성남 토박이라고 하신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정 많은 동네라고 답하셨다.

한경희 님은 1990년에 결혼 후, 태평동에 정착했는데, 태평동 어느 곳이든 대문을 다 열어놓고 살 정도로 옆집과 사이가 좋고 돈독하다고 하신다. 재래시장도 있어서 서민들이 살기에 참 좋은 동네라는 말도 덧붙이셨다. 최정란 님도 40년간 성남에 산 토박이로 자신에게 고향이지만, 내 딸들에게도 고향이라고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셨다.

김효영 선생님은 한경희 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저도 대문이 다 열려 있는 모습이 인상깊어서 그 모습만 찍어보려고요.”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처음에 태평4동 골목을 지나갈 때 열려있는 대문들을 보며 셔터를 눌렀던 기억이 난다. 굳게 닫혀있는 뾰뚱한 서울의 대문과 대비되어 보였었다.

출사 도중 길에서 하얀 수염을 멋스럽게 기르신 임선장 어르신을 만났다. 연세를 전해 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94세. 시간의 기록 회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다. 한 올 한 올 하얗게 변한 수염과 머리카락, 멋스럽게 쓰신 중절모까지 피사체가 되셨어도 크게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역시 최고령자다운 면모이다. 임선장 어르신이야말로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햇볕에 말리는 호박, 그 옆에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하고 있었던 어른들, 구석에 모여 앉아 게임하고 있던 꼬마들, 감이 주렁주렁 달린 집 등 여러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효영 선생님은 회원들의 옆에서 찍는 모습과 자세, 찍은 사진을 보며 코멘트를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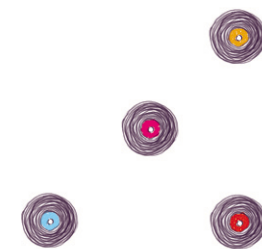
어느 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걷기 좋은 가을날에 오랜만에 나온 출사를 모두 즐거워하며 다음 주의 만남을 기약했다.



11월 28일은 12월 9일에 있을 ‘태평4동 동네만들기 발표회’에 전시할 작품을 찍기 위해 모였다. 그 동안 주말마다 출사를 다니셨다며 오늘은 윗동네 중심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신다. 최정란 님, 안미경님, 혜빈이 어머니 이금우 님과 김성수 태평동 팀장, 최성은 시의원, 유광영 동장님, 박건화 위원장님이 함께 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자신만이 다루고 싶은 소재를 찾아 찍기도 했는데, 이금우 님은 꽃, 안미경 님은 반복되는 이미지, 김성수 팀장은 벽에 있는 낙서 등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

사진을 찍은 후, 태평4동 주민센터로 가서 오늘 찍은 사진을 한 데 모으며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가 찍은 많은 사진 중, 좋은 작품을 김효영 선생님이 골라서 인화까지 맡겨주기로 하셨다.

윗동네의 어떤 모습들이 담겼을까? ‘시간의 기록’이 남긴 시간의 기록은 어떤 모습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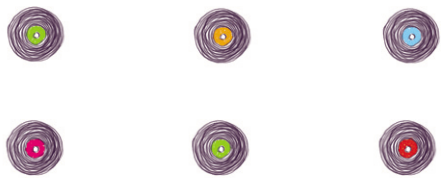




삼태평4동 주민센터 전시회

*삼





10월 30일, 현충탑 다음 정류장인 영장공원에 내리니 1시다. 10월 날씨답지 않게 포근하면서 살짝 더운 느낌도 들었다. 햇빛이 무척 잘 드는 가을 날씨이다.

오늘 영장공원에서는 태평4동 주민센터 전시회가 열린다.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전시와 발표 등이 오후까지 이어진다. 순서가 적힌 안내판을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발표가 쉼 없이 이어질 듯 보였다.

‘시간의 기록’ 회원인 어머니들이 도착했다. 영장 공원 안쪽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공예품 사이에 이젤과 망사벽을 이용해서 어머니들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다.

시간의 기록 회원들의 사진 전시가 끝나는 지점에 한울신문과 한울영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울신문의 테이블에는 기자단 소개와 그간 발행한 신문이 비치되어 있었고, 한울영상이 준비한 노트북에서는 그간 찍은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며칠 전 발행된 10월호 신문과 영상을 지켜보며 행사 시작을 기다렸다.

2시가 가까워지자 객석으로 꾸민 의자와 스탠드 석에는 태평 4동의 많은 주민들이 자리를 채워 나갔다. 이 날, 공원 입구 오른쪽에는 서예, 사군자,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부대행사가 함

께 열렸는데 해당 부스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제일 안쪽에선 국수 1그릇에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먹거리 장터가 함께 열렸다.

드디어 2시. 전체 행사가 시작되었다. 축하 인사와 내빈 소개 등 식순에 따라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3시에는 한울영상 기자들이 오늘 행사를 취재하러 왔다. 이상훈 선생님이 이 행사의 촬영을 맡게 되어 아이들에게도 행사취재를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했다고 한다.



기자 중, 혜연이와 다슬이가 제일 처음 도착했다. 혜연이는 메인 카메라, 다슬이는 서브 카메라를 맡았는데 조금 들고 다니더니 힘들다며 미끄럼틀 안에 앉아 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수빈이와 종원이가 도착했다. 2명씩 1조를 짜서 메인카메라와 서브 카메라를 맡으라 이야기했고 이상훈 선생님이 챙겨주신 식권을 가지고 먼저 온 혜연이와 다슬이를 데리고 국수를 먹으러 갔다. 잠시 후, 수빈이와 종원도 불러서 국수를 함께 먹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 양이 적은 듯 해서 수박과 호빵까지 구워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맛있게 먹으며 “선생님, 정말 짱이에요!”라고 아부 아닌 아부를 한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 아이들은 각자 카메라를 가지고 오늘 행사의 이모저모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촬영 2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몸이 근질근질한가보다. 옆에 놓여진 놀이기구를 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아이들은 이상훈 선생님께 오늘 촬영분을 이야기하고 촬영종료를 허락 받았다. 소중한 카메라를 챙겨 매고 미끄럼틀로 간 아이들, 수빈이, 혜연이, 종원이, 다슬이는 모두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울신문 기자단 3명이 영상공원으로 올라온다. 편집장 은지, 부편집장 시영이, 서기 지혜. 3명은 기자단 소개에 붙은 사진과 설명을 보며 창피하다며 웃는다. 학



교가 늦게 끝나서 이제야 올 수 있었다. 새로 나온 10월호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권했더니 3명 모두 국수 먹고와서 하겠다며 도망갔다. 역시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러운가 보다. 옆에 있던 한울영상 기자 종원에게 부탁 했더니, 스탠드석과 의자에 있는 어른들께 모두 나눠 드렸다.

한울신문을 나눠드리면서 아이들이 만든 신문이라고 설명을 하자, 몇몇 어른들은 ‘이야기 들었다’ 며 이제야 보게 되었다고 하신다. 공연 중간중간 신문을 읽는 어른들을 보니 팬시리 내가 뿌듯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결과물을 소중히 바라보는 그 눈빛들이 태평4동 아이들의내일을 더욱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생각이 들었다.





四 태평4동 주민센터 발표회

*사

12월 9일, 오늘은 태평4동 동네만들기 발표회이다. 한울신문과 한울영상, 시간의 기록이 6개월 동안 활동한 여러가지 결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날이다. 또 3기 기자들에게는 정식기자 임명이라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태평 4동 주민센터 2층 강당 앞에는 '시간의 기록' 의 약 40여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선약으로 행사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태평4동 주민센터 강당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한울신문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한울신문에 관련하여 공중파로 방영된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1기 기자들은 뒤에 앉아서 옛날 본인들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 이어서 한울영상이 만든 영상들이 이어졌다. 영장산을 배경으로 찍어 동네를 홍보하는 영상, 희망근로 벽화작업을 취재한 영상, 조별로 나뉘어서 만든 영상 등, 본인들의 모습이 커다란 스크린으로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작은 탄성을 지르며 부끄러워했다. 그런 모습이 참 귀여웠다.

× ○ × ○ × ○ × × ○ × ○

영상 상영이 끝난 후, 제일 처음 '시간의 기록' 을 소개했다. 일렬로 선 회원들에게 자기 소개와 소감을 물었다. 최정란 님은 "태평동을 주제로 출사를 하면서 항상 했던 생각인데 태평4동은 사람냄새가 가는 정겨운 동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안미경 님은 "처음 활동인데 작품을 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금우 님은 "성남토박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고 어울려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습니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3기 기자들의 기자증 수여식이 있었다.

먼저 한울신문 1기 선배 기자들이 앞에 나와서 오늘의 소감과 3기 후배 기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인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례대로 오늘의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혜빈이는 "후배들은 저희보다 잘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 지혜는 "지금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승민이는 "후배들은 그만두지 말고 계속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편집장 시영이도 "후배들이 기자단을 나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제 한울신문 3기 기자들 기자증 수여순서였다. 제일 앞쪽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3기 기자들은 볼이 상기되어 있었다. 박건화 위원장님이 기자증을 수여할 때마다 꾸밈없는 웃음과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3기 정식기자로 임명받은 하영이, 민선이, 예림이, 혜지에게도 소감을 물었는데,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중, 하영이는 "한울신문을 빛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멋진 소감을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울영상의 3기 기자는 모두 9명이었다. 기자증을 목에 건 아이들은 소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많이 떨고 있었다. 예은이는 "아름다운 영상으로 태평 4동을 알리겠습니다." 고 했고, 수빈은 "중학생까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기자증을 목에 건 아이

들은 본인의 핸드폰으로 기자증을 찍기도 하고, 서로의 기자증을 모아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오늘의 행사가 참으로 뜻깊습니다. 태평 4동은 성남문화재단이 제일 처음으로 동네만들기 사업을 한 곳이지요. 그 열매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벅칩니다.”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부장님은 이러한 사례들이 성남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는 말로 축하인사를 마쳤다.

행사가 끝난 후, 한울영상 기자단의 혜연이 어머니께서 이상훈 선생님에게 인사를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혜연이가 영상모임을 너무 좋아해요. 매주 꼭 가야한대요.”라며 오늘 영상을 보니 너무 기특하다며 혜연이가 꼭 가야한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고 하신다.

복도에서는 ‘시간의 기록’ 어머니들의 사진 작품에 대해 이야기꽃이 한창이었다. ‘사진에 나온 게임하는 아이들을 안다’, ‘이 곳은 어디였는데 이렇게 찍으니까 다른 느낌이다’ 등의 소감을 나누고 있었다. 1기 기자들도 엄마들과 함께 사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오늘의 행사를 끝으로 태평동의 2009년 동네만들기 사업은 모두 끝났다. 하지만, 한울기자단과 시간의 기록 모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년간 이어진 한울신문, 많은 기자들이 충원된 한울영상,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간의 기록 모두, 앞으로 태평4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욱 더 풀어낼 이야기가 많으리라 생각이 든다. 내년, 또 후년에도 그들의 태평4동 이야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 ×
× ○
○ ×
× ○
○ ×
× ○
○ ×
× ○



사랑마루에서 만나다 “세상에서 가장” 한울신문 1기 기자 오시영

태평4동 한울신문을 두번째 찾아간 날, 소명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너무 잘 썼어요.”
그 때 읽은 시가 ‘세상에서 가장’ 이다.

이번 ‘사랑마루에서 만나다’ 에서는 한울신문에 실린 시영이의 시 중에서
‘사랑’ 을 주제로 한 2개의 시를 실으려 한다.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자식의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랑은 스승의 사랑이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은 부모이며, 친구이며, 자식이며, 스승이다.
또한 사랑의 미소이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미소는 달빛이다.
달빛은 사랑을 머금고 노란 미소를 내뿜는다.
무한한 달빛을 껴안고 있으면
내 가슴의 사랑도 넘쳐날 수 있을까.

행복한 사람

아침에 내리쬐는 커다란 태양으로도
점심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으로도
저녁에 부쳐지는 따뜻한 달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어떠한 것으로라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많은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고 들 하지만
‘사랑’보다 몇십 배는 표현하기 힘든 게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별들의 조각 하나하나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반짝이는 그 곳은 아직도
변함없이 가장 크고 굳게 빛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셔 보아도,
투명한 연못에 세수를 해보아도
뜨거운 마음 한 구석만은 식지를 않습니다.
하루종일 태양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도
태양이 없으면 의미 없이 풀 죽어버리듯이
나의 마음도 당신이 없다면
식어버릴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싶으니까요.
흔히 세상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가난이라고들 일컬고 있지만
진정한 가난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에 대해 그리워하고
어떤 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런 감정을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몸은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이 아프면 그대로 구멍이 생겨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구멍이 흉터가 되어 커져게 되면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또한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행복해질 수 있는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
만일 그 사람이 날 바라봐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만으로도 벅차서
24시간을 몽땅 쏟아보내도 모자라는 사람.
그것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가슴 아파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상상할 수도 없이 커다란 그 감정이
맘속에 진정 자리잡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V. 작은 발표회

5

2009년 12월

사랑마루가 활동한 5개 동네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시와 공연을 하며 흥겹게 어울렸습니다.

우리는 '작은발표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까운 미래,

성남시의 모든 동네가 참여하는 '작은' 발표회의 '큰'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5개동 전체 발표회

2009년 12월 17일, 한낮부터 수진동 Angels Cafe는 행사준비로 바빴다. 동네별로 팀장에게 전달된 시품이 속속 도착했고, 가까운 수진동 문화배움터 회원들은 양손 한가득 전시품을 들고 오셨다. 2시간 가량 일찍 오신 수진동 한지공예반 위판금 님은 '수진동'을 알리는 현수막에 본인의 사진이 잘 나왔다고 성당 신도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셨다. 은행동 강현희 님은 은행동 전시작품의 배치를 고민하며 이리저리 바뀌 배치하는 모습을 봤고, 기타반 여러분들은 오늘 부를 노래를 연습하고 계셨다.

사랑마루 팀원들은 무대 현수막과 동네별 현수막을 걸어서 주변을 정리하고 외곽에 사진 액자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가변 벽을 설치하여 사진작품을 걸었다. 테이블과 의자 배치를 새롭게 하여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배치를 새롭게 했다. 전시작품이 있는 은행동, 수진동은 강사님들과 회원들이 일찍 도착하여 정해진 전시공간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하며 전시를 마쳤다. 수진동은 신문지공예, 한지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태평4동은 '시간의 기록'의 사진들이 전시되었으며 도촌동은 아이들이 꾸민 책과 직접 만든 도자기, 솟대를 전시했다. 상대원시장은 신나는 라디오와 각종 프로그램을 찍은 영상을 상영했고, 은행동은 한지공예, 포크아트, 세밀화, 직접 만든 책을 전시했다. 여러 곳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뽐낸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사랑마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었다. 사랑마루 스태프가 즉석에서 찍은 인물사진을 포토프린터로 출력하여 핸드폰 고리, 열쇠고리로 만들어줬다.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한유진 팀장, 김성수 팀장, 늘봄 윤혜숙 실장님, 궤대현 님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바쁘게 몸과 손을 움직였다.

낮으로부터 분주히 움직였던 사랑마루 팀원들은 시간이 가까이 오자, 더욱 더 분주해졌다. 도착한 사람들을 안내하고, 순서를 점검하고... 6시부터는 밴드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음식을 차릴 때는



수진동 신문공예반과 한지공예반 회원 분들이 도와주셨다. 어느덧 행사 시작 시간이 되었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공개방송으로 오늘의 작은발표회가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듣는 흥겨운 '징글벨 Rock'은 행사 분위기를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5개 동네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의 opening을 맡게 되어서 기쁘다는 두 DJ의 멘트가 내 마음을 담은 듯 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도촌동 식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낮에 도촌동 박진영 팀장님이 혜수의 책을 보여주시면서 '꼭 초영쌤이 봐야한다. 혜수가 초영쌤에게 쓴 편지가 있다'며 가르쳐주셨다. 혜수가 책을 꾸미면서 내게 쓴 편지인데 '초영쌤과 함께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고, 카메라를 잘 다루는 선생님이 부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도착한 혜수를 보자마자 "편지 너무 고마워! 혜수야"라고 말하니 예쁜 혜수가 살짝 부끄러워한다.

공개방송 중에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부장님을 초대해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공개방송이 끝난 후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본부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었다.

두 번째 순서는 수진동 문화배움터 색소폰반의 연주이다. 수진동 박윤부 팀장이 5개월간 수진동에서 일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발표한 후, 문화배움터 회원들과 함께 색소폰을 연주했다. 오늘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비둘기집' 연주가 끝나니, 캐롤 '루돌프 사슴코'가 흘러나왔다. 루돌프 사슴코가 연주되자, 모인 아이들과 어른들은 박수를 치며 같이 따라 불렀다.

다음 순서로 도촌동을 대표하여 7살 서현이가 무대에 등장했다. 동화의 제목은 '우리는 단짝친구, 우와와 치'이다.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엔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금세 풍부한 표정과 목소리로 실내 분위기를 압도해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서현이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한다. 동화구연이 끝나자 실내에서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 인기인이 된 서현이. "오늘은 2번 밖에 연습을 못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갈 때는 부끄럽지만 연습할 때는 정말 재밌어요. 작년에는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 받았는데, 내년에는 대상을 탈 거예요. 대상 타면 텔레비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금도 줘요. 상금 받으면 엄마한테 전부 다 줄거예요."

입고 있는 분홍 옷처럼 불이 발그레 상기된 서현이는 동화구연이 참 재밌다고 덧붙였다.

도촌동 박진영 팀장의 '옛날옛날 우리섬밭'에 대한 설명과 도촌동 어머니들 모임에서 반장으로 뽑힌 서현·상혁이 어머니 김은숙님의 인사가 이어졌다.

다음 순서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장미라 님이 유치환 시인의 '행복'을 낭송하고 상대원시장 한유진 팀장이 나와서 원다방과 신나는 라디오, 진행되었던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성당 미사시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이길순 님의 '누님 님우스'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다. 마을소식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처음 소식은 도촌동 박진영 팀장이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부장님을 만나서 '2010년 도촌동에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두번째 소식은 라디오 방송국의 운영위원들과 한유진 팀장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의 오해였던 것이 밝혀졌고 2010년에는 적극적으로 한유진 팀장의 결혼을 추진하겠다는 재미난 내용이었다. 구수한 입담으로 멘트를 끝낸 후, 음악을 이어서 들려주려 하셨는데, "내가 좋은 음악을 가져왔는데 익숙치 않은 컴퓨터 어딜 갔는지 찾지 못하겠네요."라고 하시며 즉석에서 '사랑밖에 난 몰라'를 구성지게 뽐아 생생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셨다.

다음 순서로 여러 동네를 취재하던 이초영 작가를 초대했다.동네별 특징과 차이점 등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각 동네별 사업의 프로그램 특성상 만나뵙게 된 분들이 수진동은 5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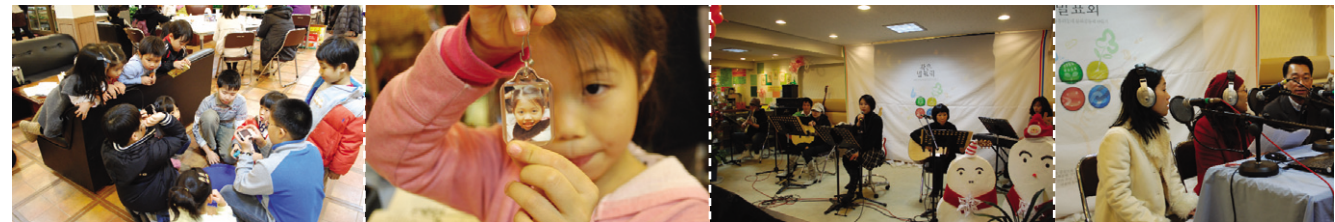
대 어른들, 태평동은 중학생 자녀를 둔 30,40대 주부들, 도촌동은 미취학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동네의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모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통적이었어요. ‘성남은 참 인정 많고 살기 좋은 동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순서는 태평 4동 김성수 팀장이 나와서 한울기자단과 시간의 기록에 대해 소개하였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처음 시작된 곳이고 현재는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진행을 맡은 박윤부 팀장은 혹시 자유롭게 발표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와서 발표하기를 권했고, 도촌동에서 기수·혜수 어머니 송금숙 님이 무대로 나와서 ‘옛날옛날 우리섬말’ 프로그램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도촌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자 도촌동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송금숙님께 환호를 보냈다. 늦게 도착한 현성이 가족까지 모두 8가족이 참석하여 제일 높은 출석율을 보여줬던 도촌동.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토록 탄탄하게 결집될 수 있다는 실례를 남겨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이 힘을 보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장미라 님은 ‘라디오방송국이 이젠 자리를 잡아서 현재 상인들이 알아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이상훈 팀장은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와 Staff을 소개했다. 5개월을 함께 ‘사랑마루’라는 이름으로 함께 달려온 우리들은 서로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쳐다봐주고 눈인사 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전했다.

때마침 미사가 끝난 시간이라 성당 신도 여러분께서 많이 내려와 홀 전체가 사람으



로 꽉 찼다. 이어지는 순서로 수진동 밴드반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기타반의 연합 공연이 시작되었다. ABBA의 ‘I have a dream’ 으로 시작하여 ‘루돌프사슴코’, ‘창박을 보라’, ‘White Christmas’ 로 이어졌다. 모두가 흥겨워하며 함께 따라불렀다. 은행동 아이들이 무대 앞에서 신나게 발을 구르며 박자에 맞춰 춤을 췄고 도촌동 아이들은 엄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마지막 곡으로 ‘울면 안 돼’ 로 알려진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 흘러나오자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다. 곡이 끝나자 아쉬운 마음에 ‘앙코르’ 를 외쳤다. 앵콜송으로 시인과 촌장의 ‘사랑해요’ 를 들려주었다. 잔잔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12월의 밤과 잘 어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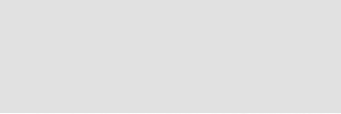
미사를 마치고 내려온 수진동 성당 김동진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소감을 청했다.

“이 곳을 이렇게 귀한 장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회의 이름이 ‘작은발표회’ 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발표회보다도 ‘큰 발표회’ 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올해 사랑마루 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쉽지만 다음해에는 5개 동네 주민들을 도와 누구라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처음 시작한 지점에 우리가 있었음을 자랑스러워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충전하러 한다.

2010년,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태평동, 도촌동의 사업들과 사랑마루의 이름과 만듦과 나눔과 키움의 정신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VI. 부 록

-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워크숍
- 사랑마루 사업홍보물 브로셔

6

들어가며

- 1장. 문화예술 매개자 육성의 배경
- 1) 문화공동체의 예술-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이란 무엇인가?
 - 2) 성남시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현황과 과제
 - 3)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의 필요성

- 2장. 문화예술매개자란 무엇인가?
- 1) 문화예술 매개자
 - 2)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

- 3장. 문화예술매개자 양성 사례
- 1) 타 지역 사례 1. (수유리)
 - 2) 타 지역 사례 2. (시흥)
 - 3) 성남 지역 사례 1. (2008 모니터 교육)

- 4장. 문화예술매개자 양성 방안
- 1)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 2)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의 대상
 - 3)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의 내용과 방법
 - 4) 지속적 성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5장. 문화예술매개자 양성을 위한 2010년 계획 제안
- 1) 준비주체
 - 2) 홍보 및 모집 계획
 - 3) 주요 내용
 - 4) 추진 기간

맺으며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워크숍

들어가며

본 연구는 성남 지역 주민들이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리며, 창조하는 생활문화예술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성남 지역은 2006년 이후 성남문화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1단계 3개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성과를 이어 성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2단계 5개년 사업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고, 전국 각 지역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동체 예술 혹은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확대되고,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 수렴, 각 지역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공간 확보, 행정 및 제도적 뒷받침, 전문적 인력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하며, 실무행정적 능력을 갖춘 인력의 문제가 무엇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09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서는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 과정에는 성남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초기부터 많은 연구 작업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수환 교수와 경희 사이버대학 심보선 교수,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 주체인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의 박승현 부장, 그리고 각 동네와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각 팀장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성남지역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한 학자들,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추진한 성남문화재단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업을 일구는 작가들이 함께 2차례의 워크숍을 비롯한 수차례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예술을 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성남지역 문화 매개자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 문화예술 매개자 육성의 배경

1) 문화공동체의 예술-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이란 무엇인가?

문화공동체의 예술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효율성'의 원칙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적 예술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즉 예술과 삶, 창작과 감상,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지며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상호 연관되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 문화공동체의 예술은 아래로부터 위로, 또한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창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의 예술은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신뢰와 유대를 창출하며, 동시에 이를 갱신함으로써 공동체를 살아 숨쉬고 변화하는 창조적 생태계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 생태계의 주인은 바로 창조적 주체로서의 시민들 자신이다. 그러므로 문화공동체의 예술은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숨겨진 사회적 자산이다.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자양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지 않는 개방적 성격을 갖는다. 기존의 고

급예술·대중문화의 구별을 문제 삼지 않으며 자유롭게 자발적인 표현에 강조점을 둔다.

-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인종, 계급, 성적 차이를 넘어서는 상호작용과 사회적 연결을 창출한다. 사회적 신뢰와 관용,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공공적 장소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적 책임감을 양성한다.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한다.
-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참여와 소통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 삶에 대한 열정, 능동적 태도를 육성한다.
-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기존의 예술 자체를 강화한다. 고급예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관객층의 저변을 넓히고, 전문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삶과 생활속에서 즐기고 누리며 창조하는 생활문화예술이라 할 수 있다.

2) 성남시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현황과 과제

(1) 성남시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진행과정

우리나라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초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96·97년 경원대 정석 교수가 시장개발연구원에서 글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지난 15~16년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체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활동 중에는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밑에서 새

롭게 형성되어서 나오는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이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내고 그들이 마을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힘을 고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좋아서 만드는 동호회에 주목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남북 대결의 역사 100년을 거치면서 동네의 커뮤니티 혹은 동호회는 그 뿌리가 잘려나갔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웹(web) 상에서 커뮤니티가 붐을 일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자발적 역량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겠다는 판단 속에 그때부터 여러 계획과 사업안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2006년 사랑방문화클럽 연구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후 2007년과 2008년까지 3년 동안 성남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클럽들의 주체적 네트워크인 사랑방문화클럽이 결성되고,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한 생활 속 문화공헌 활동과 함께 아마추어 문화예술 클럽 축제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또한 골목길 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던 태평동을 시작으로 아파트 형 은행주공, 시장 상가 형 상대원 시장, 공단 형 상대원 공단 등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 동네 주민들이 주체가 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2) 현황 및 성과

2006년 ~ 2008년 동안 1단계 3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창조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직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클럽 130여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스로 운영위원회와 기획팀을 구성하여 모든 사업을 준비부터 집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3년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클럽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문화공헌 활동을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클럽들이 기획하고 창조하는 사랑방클럽축제가 지역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클럽 간 교류와 소통은 물론 지역 내 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던 태평동, 은행주공, 상대원 시장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태평동 사진 동아리 '시간의 기록' '한울신문' '한울뉴스', 은행주공의 '생태모임' '포토줌마' '나만의 책만들기' '한지공예' 등과 상대원 시장의 '줌마DJ' '퀵모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 조직과 상인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 자치 조직은 물론 동네에 있는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 등과 연계하면서 공간과 홍보는 물론 부분적 예산 지원까지 확보하면서 지역 내 주민 조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범 사업 동네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진동, 도촌동

등 새로운 동네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9년부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이 공연이나 전시 활동을 넘어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클럽이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동네 주민들과 사랑방문화클럽이 함께하는 교류와 연계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주공 주민이 상대원 시장 문화예술 교육의 강사로 가기도 하고, 수전동 밴드팀이 은행주공 통기타 팀과 결합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동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회를 열기도 하는 등 동네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3) 과제

생활문화예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축적해온 것과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먼저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 부족의 문제이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로 인해 이곳저곳을 전전공공하며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보다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공연하고 전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시범 사업 지역의 경우 3년이라는 오랜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나 풀장, 혹은 건물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해결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는 과제로 남아있고 새롭게 개척하는 동네의 경우 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된다.

두 번째는 동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의 문제다.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3년간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프로그램과 홍보, 조직 등이 주요한 과제이고 예산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행정기관의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활동에는 일정 정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으로도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패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주민 스스로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세 번째는 마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매개자의 문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마을 커뮤니티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형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는 소통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관심 있는 소수 몇몇이 하는 활동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학교, 복지관, 종교 등을 비롯한 시설과 기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되었을 때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할 주체들간의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고 이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는 물론, 문화예술과 행정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각 주체들의 소통을 도와 줄 매개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 주체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매개자의 문제가 늘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생활문화예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어떻게 각 동네에서 핵심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과제이다. 결국 주민이 문화예술의 기획자로, 매개자로, 활동가로 성장했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확대 되었을 때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다 활력있고, 안정되며 지속 가능할 것이며, 그런 주민 주체가 많아져 도시 전체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도시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의 필요성

위에서 제기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네가지 과제는 각 각 해결해야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마을의 공간과 예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기획자이자 매개자이며 창조자인 진정한 생활문화예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대상자도 모두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남문화재단이 자발성을 기르는 동호회(사랑방 문화클럽)

와 동네의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결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주체의 문제, 즉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어떻게 공동체를 되살릴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Top-down, 두 번째는 Bottom-up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의 결합이 목표이지만 이는 모순적이다. 자발성이 증가(클럽활동 활성화)하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마을 사업)이 줄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것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발성의 중심이 되는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CoP 조직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조직의 양면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성남의 경우 사랑마루(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자발성에 근거한 사랑방 문화 클럽과 마을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연결하는 전략적 CoP 조직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랑마루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리더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매개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화예술매개자의 필요성을 대상자와 내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활동가 그룹에게는 변화되는 마을 사업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필요하며, 새롭게 마을의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마을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 중 마을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후에도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일상 속의 문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세 번째, 마을의 문화공동체 사업의 의미를 사람들이 공유하고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마을의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마을 사업에 참여를 고양할 수 있는 의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남문화재단의 '2차 5개년 사업 계획'에서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장. 문화예술매개자란 무엇인가?

1) 문화예술 매개자

문화매개자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예술 생산의 실패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80년대 까지 전문 예술 생산자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문화예술정책의 전부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 생산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문화 매개자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엘리트 관료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 현장인 대학에서 매개자 양성 과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예술 정책과 예술 현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문화 매개자는 행정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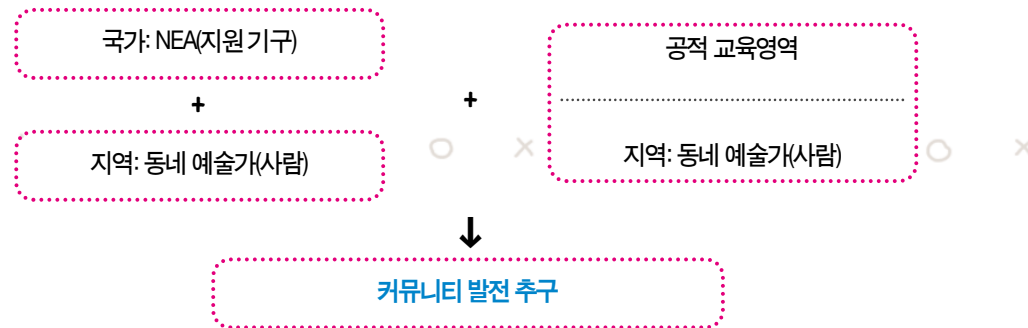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기획 인력이 과잉 생산되고, 행정의 도구화로의 전략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면서 본래 취지에 맞는 예술 그룹과 정부를 중재하는 문화예술 매개자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여기에서 문화 매개자에게 필요한 것은 요소가 자유와 독립이라는 의미에서 생활 문화기획자, 시민문화예술 기획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제기되고 있는 이제는 자기 업이 있으나 그 외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 공간이나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예술기획자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설계할 상황이 되었다.

2)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

문화예술 매개자가 해야 할 역할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해당 지역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문화매개자는 60-70년대 문화 노동자(cultural worker)라 불리는 일종의 동네 예술가로 예술을 매개로 커뮤니티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민주주의 담론이 등장하면서 문화매개자를 지원하는 정부기구인 NEA가 설립되어 지역의 문화를 매개로한 발전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적인 교육 영역에서 예술 경영이 등장하여 예술교육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커뮤니티가 그렇듯이 생활문화예술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활동들이 요구된다.

먼저, 문화예술 매개자는 해당 지역의 역사, 주민들의 생활, 동네의 주요 이슈, 지역 내 존재하는 주민 조직, 주민들의 정서와 요구, 각 종 시설과 기관 등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한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 분석 작업은 문화예술 매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마을 사업을 이끌어 갈 핵심 주민을 발굴하는 작업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을 대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시작부터 시종일관 핵심 주체를 발굴하고, 역할을 높여주는 활동이 문화예술 매개자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중장기적 전망속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만나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프로그램의 기획과정에서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행정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동네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많은 실무적인 것들이 있다. 예컨대 교육을 진행할 강사, 공연자, 홍보, 음향, 무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공간과 예산 확보 등 많은 일들이 함께 따른다.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

트위크를 형성해야 한다.

끝으로 생활문화예술 매개자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체들간에 얼마나 소통이 잘되는가에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을 시작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소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주민과 예술가, 예술가와 행정 등 마을만들기 사업 주체들의 소통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창구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생활문화예술 매개자들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갖추어 갈 때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3장. 문화예술매개자 양성 사례

1) 타 지역 사례 1 (수유리)

수유리의 경우 수유마을시장 프로젝트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마을 시장 카페에 있는 내용 정리했다.

수유마을 시장 프로젝트 “수유문전성시”는 서울 성북구 수유시장에서 시장의 문화와 언어,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패턴과 감각 등 이곳만의 문화를 발굴하고 해석하는 상상력 넘치는 리서치와 기록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참여 작가들은 시장의 이곳저곳을 탐사하며 시장의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게 되며, 잠재된 문화를 새로운 차원의 문화로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형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수유마을 시장 프로젝트의 “오픈 워크숍”을 하였는데 최근 재래시장에서 진행된 문화예술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인접 학문의 방법론을 전문가, 예술가를 초청하여 함께 토론하는 방식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 타 지역 사례 2 (시흥)

시흥 지역에서는 문화놀이터 활동가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워크숍 진행은 참여한 활동가가 모두 자기 발제를 준비해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토론하면

서 공유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문화교육의 가치와 한계〉를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워크숍은 각기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교육현장에 대해 견해와 느낌, 가치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교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현장의 관계, 교육안과 밖 일상의 관계, 교육을 통한 일상의 변화 가능성, 교육 참여자와 교사의 관계, 문화 교육 참여하는 작가들의 고민 등을 공유하였다.

〈공공성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워크숍은 공공성이란 각자가 가진 철학, 또는 그 사회가 선택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런 다층의 개념어들이 출현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개자인 교사의 철학과 윤리의식이라는 토론을 하였다. 또한 공공성과 공동체, 공공성과 국가, 언론의 공공성, 공공미술이 말하는 공공성과 공동체미술이 말하는 공공성, 공공의 가치실현으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결국 교육 안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교안개발 실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번째 워크숍은 교안개발의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와 교안 분석 활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교사 중심의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고민 중에 있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유리나 시흥, 성미산의 경우 교육 활동은 대체로 자체 활동에 대한 평가

나 교사로써의 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었다.

3) 성남 지역 사례 1 (2008 모니터링 교육)

성남 지역에서는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도한 바 있다. 2008년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모니터 교육이 그것이다. 당시 문화예술 기획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을 비롯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간단한 심사를 거쳐 21명을 선정하여 약 1개월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사랑방문화클럽의 공헌활동과 마을 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때 진행한 교육 내용은 성남시 문화예술정책의 이해, 모니터의 역할 및 평가지표 작성법, 사랑방문화공헌지원사업 및 문화통화,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등 개별사업 설명, 활동 계획 및 향후 운영프로그램계획 수립, 문화기획 기초이론 및 실무 등으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후 모니터링 수료자를 중심으로 팀을 편성하여 성남문화재단 사업들에 대해 모니터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관리 주체 부족의 문제로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모집, 교육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매개자 양성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시 모니터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동네만들기 사업이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원 등 국가 단체로부터 개별 마을 사업을 진행 중인 많은 단체에서 매개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마을 단위의 상황과 잘 맞지 않거나, 성남의 구체적 상황과는 맞지 않다.

성남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면, 성남의 각각의 마을 상황에 기초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 이후 진행되면서 계속적인 보강 작업이 요구된다.

4장. 문화예술매개자 양성 방안

지금까지 생활문화예술이란 무엇이고, 성남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당면해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육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매개자 육성은 단지 성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문화 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을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사랑마루’에서 진행한 2차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먼저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을 누가 주체가 되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교육의 주체는 대상자에 대한 요구 분석은 물론, 대상자에 대한 커리큘럼 구성, 교육 진행, 그리고 교육 후 활동 배치와 활동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성남지역 생활문화예술 사업은 성남문화재단이 중심에 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평가하며 기본적인 모든 행정과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육성 사업은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과정속에

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예술 사업이 성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남문화재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모니터링 교육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문화기획부의 인력만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이어가기에도 벅찬 상태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연구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을과 문화예술클럽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에 참가할 주민을 조직할 수 있으며, 교육의 성과와 교육으로 인한 그들의 변화를 세세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문화양성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았고 이는 개별 마을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의 문화예술 기획자의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것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 현 성남문화재단의 프로그램과 유기적 연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남지역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은 성남문화재단이 행정적 지원을 담보하고, 문화예술 관련 학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교육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2)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의 대상

생활문화예술은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예술 매개자도 요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당면해서 성남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역할을 할 문화예술 매개자의 대상은 누구일까?

먼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뜻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이다. 오랜 기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정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미 지난 4년간 추진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역할을 했던 활동가들이 있고, 2009년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지원센터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비롯한 문화예술클럽에서 활동하며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과정을 통해 발굴된 주민이다. 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높고, 지속적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동네 커뮤니티에 대한 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준비와 진행, 평가속에 마을 사업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론적 뒷받침이 있으면서 현장 활동에 대한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외에도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방과후 학교 등에서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사실 누가 대상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요구가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생활문화예술에 대해 어떻게 알릴 것이며, 생활문화예술 매개자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3)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의 내용과 방법

예술 그룹과 정부를 중재하는 문화예술 매개자 혹은 시민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을 위해서는 예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참가자를 모아내고,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던가, 참가자 내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 방안 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콘텐츠와 결합이 돼서 현장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을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는데, 혼한 방법은 역량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 현장에서 동네만들기 할 때 예술컨텐츠, 사회적 스킬 등 필요한 역량을 그룹핑하고, 예술에 대한 식견, 경영능력, 외국어역량, 미디어 역량 등 예술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역량 별로 종류를 두고 그룹핑 하면 역량 맵이 된다. 이것을 현장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 관찰을 통해

서 몇 가지 역량을 묶어놓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사랑방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비교해서 무엇이 있고 없느냐를 매핑할 수 있다. 또한 활동가들을 인터뷰해서 역량 맵을 만들고, 이걸 키워내면서 역량이 오랫동안 쌓이면 교재가 되고 형식지화 된다. 즉 루틴하게 축적되서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전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은 상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지식의 변화가 빨라지니까 전문가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커넥팅 방법이 필요하다. 비슷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형식적인 교재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성 높은, 맥락에 따라가는 자신들의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수평적 네트워크로 도와주는 사람의 역량 즉 교육하는 방식을 코칭하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문화기획자는 생산의 실패에서 왔고(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공적인 큰 프로젝트 생산의 실패에서 옴), 공공적인 문화기획자의 시대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제는 생활 속에서의 문화기획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문화기획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일을 하면서 역량 맵으로 스스로 그려보고, 비슷한 사람들을 네트워킹하고. 성남의 사랑방 모임의 리드는 클럽지기들이 하는 것이 낫고, 네트워크 체계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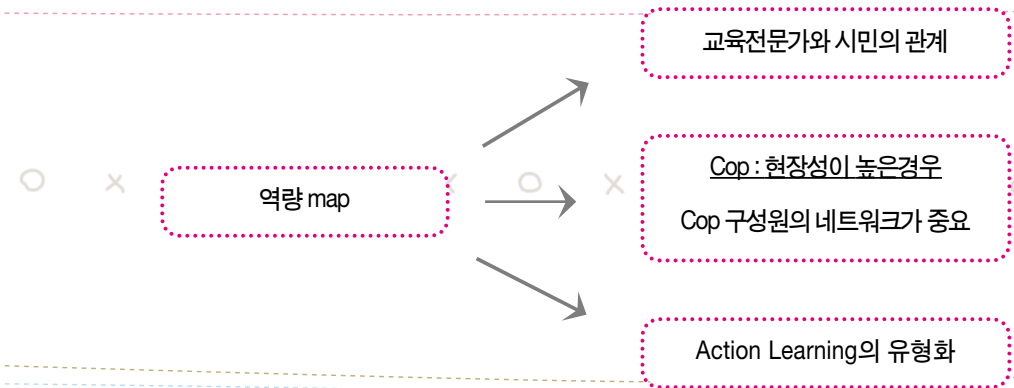
화 시켜서 수준과 레벨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면서 어떤 자원, 도우미가 필요한 것들을 정의해 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교육시스템도 같이 나아가는 것으로 액션러닝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이 필요한가. 네트워킹 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축제 기획도 필요하고, 사랑방 같이 조그만 동아리를 운영하는 역량도 필요하므로 성남 안에서의 문화기획자의 유형을 나누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민 속 문화기획자 유형을 몇 가지로 디파인하고 역량 맵을 만들고 커넥팅 해서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이 끝나면 네트워킹 안에서의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레벨링시키고 그 안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생활속의 시민예술가 중에서도 누구를 더 지원하고 혜택을 줘야하는 지에 대한 평가와 보상시스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종 평가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패키지가 나와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활동가의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육성된 문화 기획자들은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갈등 해결의 solution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문화예술 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map의 작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역량 map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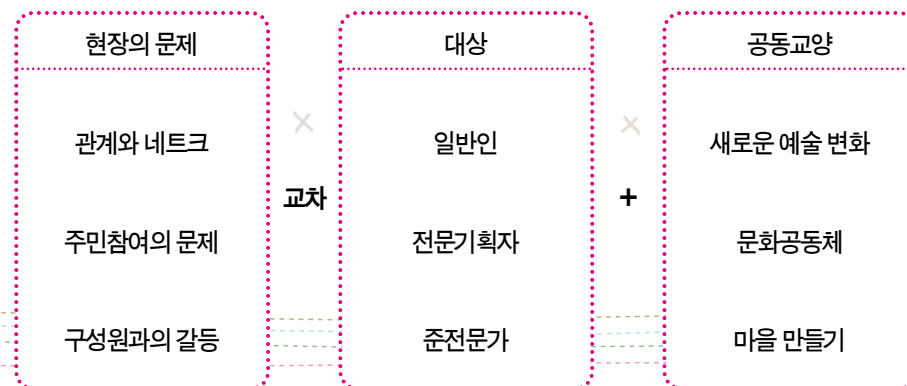
결국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역량 map의 교차로서 구성되며, 현장에서 행위를 통한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히 지식전달이나 양성보다는 지역 사업의 거점같은 역할을 해야하며, 공론과 담론의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는 어떤 주체에게는 교사 역할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 내용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안에서의 역할 정의, 책임감 부여, 구분 등이 중요하며, 거점이 되고 공론장이 되려면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역할 바꾸기 혹은 자리바꾸기가 있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사가 되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실험들이 필요하다.

정리해 보면 ‘과연 마을 단위의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획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교육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교육자와 수강의 관계로는 새로운 문화 기획자(시민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은 어려우며, 문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식인 Action Learning 방식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관련해서는 교육의 대상자와 성남에서 문화 활동의 문제를 교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경험에 적합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발하여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4) 지속적 성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생활문화예술 매개자는 한 번의 교육을 이수했다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교육과 실천 과정을 통해 기본 실무 및 행정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으나 생활문화예술의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운영과 소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문화예술이 체화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과 교육을 보장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간의 네트워크는 모집 시기부터 구성되어 교육과 활동 전반에 함께하며 서로의 관계를 두텁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지속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모집 단계부터 최종 평가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패키지가 나와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활동가의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5장. 문화예술매개자 양성을 위한 2010년 계획 제안

이미 성남지역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또한 활동속에서 생활문화예술 매개자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부터 성남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활동 주체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부분적이거나 행정적 뒷받침도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2010년은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는 명확하다. 하기에 2010년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2010년은 대체로 실험적인 작업들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주체를 세우고, 요구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전제 하에 주요 목표는 교육 주체를 명확히 세우는 것과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주체가 아닌 지속적 활동을 담보될 수 있는 주체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한 해 동안 진행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 준비주체

현재까지 성남지역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 있다. 초기 성남시 문화정책연구를 비롯해 사랑방문화클럽과 마을문화만들기 사업을 연구하고 제안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4년 동안 변화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끊임없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온 전수환교수를 비롯한 심보선교수 등 본 사업에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정책화 하여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성남문화재단, 본 사업을 일선에 추진하면서 주민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사업을 일구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이 주요 준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각각 주체들의 역할을 보면 먼저 성남문화재단은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행정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커리큘럼 및 운영계획, 진행 점검 및 연구에 대한 작업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전수환, 심보선 교수 등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홍보, 모집, 교육참여, 활동 지원 등 구체적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주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획, 집행,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홍보 및 모집 계획

홍보 및 모집에 대한 계획에 앞서 2010년에 주력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한정된 역량과 예산을 바탕으로 집중적 활동을 통해 사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 설

정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2010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발굴된 핵심 주민과 사랑방문화클럽 회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결합하여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인원 역시 현 지도 역량의 실정에 맞춰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모으거나 너무 적은 인원만으로 진행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지로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Action Learning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동네 주민이나 클럽의 회원들은 각자의 요구나 준비 정도가 각기 다양하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요구와 인식 정도에 알맞게 모집하여 가능한 비슷한 상황에 맞게 팀 편성 및 역할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 할 것인지 새로운 형태로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대 각 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틀로 조직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주요 내용

세부적 커리큘럼은 교육 주체와 대상자를 확정된 후에 교육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크게 보면 생활문화예술과 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 해당 지역 사업

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의 역할, 그리고 각종 운영 틀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물론 교육 내용 역시 각 대상자와 대상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마을만들기 팀과 사랑방문화클럽의 대상자의 역할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교육 내용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토론과 실천을 병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4) 추진 기간

2010년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활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아마도 3월 중순 경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 평가 과정속에 각 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이 개시 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추진 주체를 세우고, 세부적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동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에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계획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맺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서는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육성과 관련하여 수유마을시장, 시흥 문화놀이터, 성미산 공동체, 하자센터 등 다른 (지역, 마을의)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이들의 경험과 현재 성남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결합하여 토론회와 2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각 마을 팀장 및 프로젝트 작가 등 주요 스태프들과 외부 전문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수환 교수와 경희사이버대 심보선 교수, 그리고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스태프들이 함께 했으며,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의 박승현 부장과 이종필 마을 사업 담당자가 함께 참여했으며, 1차 워크숍은 2009년 12월 3일 성남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각 마을 별 현실 상황과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진행되었다. 2차 워크숍은 2009년 12월 28일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 도출을 위해 1차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전수환 교수와 심보선 교수의 제안에 이어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워크숍은 생활문화예술 매개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성남문화재단, 학계,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그리고 생활문화

예술의 주체인 주민 등의 역할 나눔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방향을 모색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공유와 모색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그리고 평가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의 토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생활문화예술 활동, 혹은 문화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나아가 삶의 모습과 내용, 즉 문화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상당한 시간과 품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하기에 소통의 창을 넓히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2009년

사랑마루는 일주일에 한 번 석 고박고박 회의를 진행합니다. 일주일간 동네별로 있었던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마루'는 지난 5개월 동안, 동네간 구분없이 서로를 도와가면 일했습니다. 도촌동 박진영 팀장님은 물장환상의 새 단장과 벽화, 수진동 텃밭을 만들었고, 은행동 이상훈 팀장님은 태평동 한울영상 기자단의 선생님을 맡았습니다. 수진동 곡윤부 팀장님은 상대원시장 공개방송과 은행주공문화축제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의 설비를 담당했고 상대원시장 한유진 팀장님은 수진동 화단만들기와 물장환상의 새 단장에 참여했습니다. 태평동 김성수 팀장님은 12월 17일, 오늘 행사의 전시감독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랑마루'는 지난 5개월 동안, 동네에서 친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은행동 프로젝트북 김소연 작가는 은행동 사진반과 함께 남이섬으로 출사를 갔고,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북 정혜원 작가는 주부들과 함께 원다방에서 함께 밥해먹는 사이가 되었으며, 수진동 프로젝트북 이효영 작가는 태평동, 도촌동 아이들과 무척 친해졌습니다.

'사랑마루'는 지난 5개월 동안, 동네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은행동 영상담당 확대현 작가는 포토존과 사진반 감사까지 맡아 활약 중이고, 상대원시장 영상담당 윤해숙 작가는 시장의 24시간을 담느라 하루밤 촬영작업을 했으며 수진동 영상담당 김걸 작가는 수진동 트럭이의 눈으로 어릴적부터 누웠던 동네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사랑마루'는 지난 5개월 동안,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도야 문학예술코디네이터' 워크숍을 준비한 이수철 팀장, 카페 및 웹사이트를 관리해주고 있는 글글글글 김유진 씨, 멋진 글 솜씨와 예쁜 구성으로 '사랑마루'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는 서진영 씨, 벽화 및 물장단장, 수진동 텃밭 제작을 도와주신 이화섭, 정상선 작가님들, 도촌동 역사 감의를 해주셨던 송병주 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외 감사님들...

여기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동네만들기의 주인공, 수진, 은행, 상대원, 태평, 도촌동 5개 동네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지면에 담지 못하지만, 사랑마루에게 보여주신 애정과 믿음, 감사합니다.

12월, 17일 오늘 동네만들기의 주인공인 5개 동네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모여 음식과 공연을 나누며 2009년 12월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마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를 기반으로 지역 예술가와 활동가, 동네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그리는 동네 문화예술. 배려 깊은 소동으로 더 나은 성년의 미래를 꿈꾸며 '사랑마루'가 되었습니다.



연계 : 2009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가 : 지역 예술가 및 활동가
어디서 : 은행주공아파트, 상대원시장, 수진1동, 태평4동, 도촌동에서
어떻게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무엇을 :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과 만나서 커뮤니티를 만들다
왜 :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진 일상을 통해 나,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바라니까
주최 : 성남문화재단
주관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성남문화재단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를 소개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성남문화재단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활동가, 동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문화예술 통합프로젝트입니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문화클럽, 주민과 동네, 동네와 동네의 소통고리를 만드는 것을 시작해 주민과 주민, 동네와 동네가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능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음

사랑마루를 통해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동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고민합니다. 목소리를 담은 과정에서 주민과 예술가, 활동가, 단체, 관공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때, 사랑마루는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나눔

사랑마루는 동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나'와 '이웃',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성남을 구성합니다. 시민(주민) - 예술가 - 문화클럽 - 동네 - 성남시로 이어지는 자유로운 소통문화의 형성을 거둬고 동네에서 행복을 찾는 주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만들

사랑마루는 동네가 원하는 생활문화예술 공간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합니다. 이 때, 문화예술 활동은 소통의 도구와 매개체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공예품을 만드는 행위에서부터 작품을 선보이고, 이웃에게 가르쳐주는 행위까지 전 과정을 모두가 함께 합니다.

키움

사랑마루는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을 돕습니다. 또, 동네를 위해 일하고 싶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방법을 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영글 때 까지 함께 도우려 합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가 하는 일

1. 동네만들기 운영위원회를 함께 조직합니다.
 - 동네 주민과 예술가, 활동가, 단체, 기관이 포함된 동네별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함께 고민하고 돕습니다.
2. 동네마다 생활 문화예술 배움터를 엽니다.
 -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3. 동네 문화클럽을 네트워킹 합니다.
 - 먼저 만들어진, 앞으로 생겨날 동네 문화예술 동호회를 도와 지속적으로 서로 간의 결함을 시도합니다.
4. 동네별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 동네마다 숨겨진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알려지지 않 이야기를 찾아내고 다듬어서 개인의 역사에서 동네의 역사를, 동네의 역사에서 개인의 역사를 투영합니다.
5. 그 과정을 글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글과 사진, 영상으로 흔적과 자취를 만들어 자료로 보관하며 앞으로 동네만들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 동네들과 나눌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은,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주요 축으로 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화도시 성남시 정책성 구축사업,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개별사업들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통합적 체계를 모색하게 된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은, 나와 이웃들의 힘으로 내가 사는 공간을 문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3년간, 주민들의 애착을 높이고 동네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예술가와 지역을 연결하여 태평4동, 은행동, 상대원공단-시장에서 공공예술 활동을 펼쳤다. 또,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삭막해진 도심이 이웃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공동체로 거듭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는, 사랑마루라는 명칭은 사랑방과 사랑마당 사이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연결 공간으로 기능했던 사랑마루에서 따온 개념으로 지난 3년간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이어나갈 지원센터를 의미한다. 2009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예술가와 문화활동가들이 연대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5년간 자발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지역 활동가들의 성장을 도와 성남 곳곳의 지역 정체성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수진1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진1동 문화배움터

수진1동 문화배움터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사랑방문화클럽 2009 문화공헌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여 2개월 동안 강습을 받고 7월 13일, 작품들을 모아 수진동 성당에서 문화제를 열었고,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강사가 되어 한지공예, 신문지공예, 영상 등을 직접 가르쳤고 그 외에 강수사진 봉사, 도배·장판 봉사, 지역답방기행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덧붙여 진행된 마을잔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진동 성당은 지역사람들을 일컫는 '사랑방 7호'로 지칭되었고 공간나눔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사랑방'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문화배움터를 이어가기로 했고, 9월부터 진행된 강좌는 총 5개입니다. 공예분야로는 한지공예, 신문지공예가 진행되었으며 음악장르로는 드럼, 색소폰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분야는 이전에 활동하고 있던 강좌반의 기량이 향상되어 자체적인 커뮤니티로 움직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마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의 기쁨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 작품을 나누는데 훌륭한 재미를 느낀다는 한지공예반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리고 드럼과 색소폰에 대한 열정으로 감회를 빠짐없이 출석하는 열혈 수강생 주민들을 매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진동 성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 땃발

비탈진 골짜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여러 집 옥상에서 자라고 있는 갖가지 꽃과 채소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열질과의 거리가 걸을 한 폭 정도인 두 집의 옥상에 같은 종류의 채소가 나란히 자라는 것을 보면, 사이좋은 나들을 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수진1동 주민이 찍은 영상에서 착안한 '하늘땃발'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땃발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젠 물을 주세요

2879번지 세계유등 열 진땃대에는 항상 스레기가 쌓여있었습니다. 경정 비닐에 담겨진 주인 열은 스레기는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28통 통장남은 이 곳에 화단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고, 무단으로 스레기를 버려도 꿀 얻이니까 양심치 않은 놈들이네요. 그것으로 축하하며 심어진 꽃은 주민들이 잘 가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롭게 땃발을 가꾸고 싶거나 현재 땃발을 가꾸고 있는데 더 가꾸고 싶은 집의 신청을 기다렸고, 총 15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모든 집의 옥상을 방문하여 실측하고 설치에 관련하여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하나하나 잘라 이어, 튼튼하고 찍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땃발들을 만들었습니다. 땃발을 설치하는 날에, 수고했다며 옥상으로 올라우신 포도 한 송이는 무척 달았습니다.

화단이 완성된 후, 실제로 쓰레기 투기장이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기뻐했습니다. 이 결과를 수진 1동 통사무소에 알리고 24곳의 스레기 투기 단속지역 중 화단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은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 승낙한 4곳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화단을 만들며 이웃을 위하고 생각하는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젠 물을 주세요!

2009. 5월 ~ 2009. 7월 _ 사랑방문화클럽 강좌 및 행사 (한지공예교육, 신문지공예교육,수진동 밴드오감, 어린이 동영상 강좌, 영정 사진촬영, 독거노인 집수리 및 반찬봉사) 20090510 _ 우리지역전통축제-단오제 기행 20090719 _ 수진동 마을문화제 (작품전시, 한지체험, 신문지 체험, 강수사진봉기)

20090901 ~ 20090910 _ 하늘땃발 신청 완료 20090917 _ 하늘땃발 실측 20090918 ~ 20090928 _ 땃발들 제작 20090930 ~ 20091002 _ 하늘땃발 설치 20091007 _ 2879번지 화단 1호 설치 20091103 ~ 20091105 _ 화단 설치 장소 탐사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20091118 ~ 20091120 _ 화단 설치 (4곳, 총 5곳 설치)



수진1동은,

수진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세종대왕때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인 평원대군인 18살이라는 나이로 요절하자, 영랑산 남쪽에 장사를 치내고 그 묘를 돌보게 하기 위해 수진궁(壽進宮)을 지운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수진동에는 유난히 언덕과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골짜기를 걷다 보면 오래된 가게, 문닫은 가게, 새로생긴 가게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 사이 1층에 상점이 자리잡은 건물도 있어서, 주택가 중간에서 큰 간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진역 4거리에서 사랑방항으로 가는 길, 수진동 성당이 있습니다. 60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지역 명소로 자리잡은 수진동 성당은 지역사랑방의 거점을 고명할 때, 가까이 문화배움터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협력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수진동성당은 매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화배움터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유유공간을 가진 성당 곳곳의 기관들은 지역주민을 위해 공간을 개방하고 스스로 지역사랑방이 되길 원했던 수진동 성당 사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하지 않을까요?

은행주공아파트는,

남한산성 자락 아래 23개 동, 1,900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입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앞 다투어 내미는 인공소 아파트가 아닌, 남한산성 자락의 푸르름 위에 지어진 사람 냄새나는 진짜 생태아파트입니다.

104동 아래에 있는 300살 은행나무를 보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다하여 은행동이란 이름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꾸지 않아도 흥로운 자연이 4개월 내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런 아침 잠을 깨우는 곤충박이, 침묵마구리가 배웅하는 출근길이 있는 곳, 딱딱구리가 집을 짓는 오래된 나무의 거친 껍질을 느낄 수 있는 곳, 달고나처럼 달달한 계수나무의 향기가 후각을 자극하는 곳, 은행, 감, 도토리 열매를 주워 이곳 간에 맛을 나눌 수 있는 곳, 5칸이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플랑쉬상에 이은 '플랑쉬단장'

2007년,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던 은행주공아파트 플랑쉬 '플랑쉬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플랑쉬 건물들 아지트 상아, 아파트 곳곳에 낡은 벽에 벽화를 그리고 동네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화재로 인해 플랑쉬상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아이들이 만든 나무 이름표와 때론은 플랑쉬상 간판만이 남아있던 공간에 박진영 작가를 비롯한 3명의 작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작가들의 상상력과 은행주공아파트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주민들의 손길이 더해져 검은 그릇들과 먼지를 걸러내고 활짝달록 색을 입혀 다시 한 번, 플랑쉬를 살아 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은 개관판을 모아 하나씩 붙여 번드 연주실을 만들고, 생태 세밀화, 포크아트, 한지공예 등 문화배움터에서 갖고 닦은 솜씨로 관리사무소길 벽의 벽화를 그리는 등, 은행주공아파트의 곳곳에 내가 사는 공간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꾸미진 플랑쉬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냐는 주민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봄, 따뜻해진 플랑쉬에서 또 다른 신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는 1,900세대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소풍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문화배움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동네안들기 지원센터' 사람마루와 운영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2009 문화배움터를 재탄생시켰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나만의 책만들기', 락밴드, 풍물패, 주부 대상으로는 사진, 포크아트, 생태연구모임,

한지공예, 토키타반 등의 동아리가 꾸려졌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클레이아트, 어린이 문인화, 리본공예 등의 수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주1회 모임으로 20회차 씩 운영된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는 10월 17일, '은행주공문화축제'를 열어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연주회와 전시 발표를 통해 이웃들에게 뽐냈습니다. 이 날 부대행사로 어린이버룩시장, 한지공예 체험 등 문화배움터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2007년 문화회관, 2008년 문화배움터는 은행주공아파트 부녀회를 주체로 운영되었으나 2009년에는 주민들의 열의를 담아 각 동아리의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진, 한지공예, 쿼터, 나만의 책만들기, 어린이 풍물 등을 동아리로 만들어 모임을 지속했습니다. 각 동아리의 열혈 참여자들이 합류하여 꾸려진 운영위원회는 부녀회실을 문화배움터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버려진 플랑쉬를 새로 단장하여 문화배움터의 공간으로 재생시켰습니다. 아울러 직접 '은행주공문화축제'라는 동네행사를 기획,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문화배움터의 수강자료만 머물지 않고 주체로 우뚝 선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2010년에는 이어질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20090226 _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반장 모임에서 사업공모 및 운영위원회 구성 협의 20090602-1030 _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강의 시작 (20차시 강의-주1회) (은행주공생태모임, 나만의책만들기, 어린이풍물, 어린이밴드, 포크아트, 한지공예, 토키타, 포토콜라 등등 소모임 강의 시작) 20090819-0825 _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여름방학특강 20090813-0817 _ 플랑쉬상 오른식 20090907 _ 플랑쉬상 오른식 20091017 _ 은행주공문화축제 20090511 _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홍보 시작 20090529 _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오리엔테이션 20091123-1127 _ 벽화제업

상대원 시장 문화예술 프로그램

주부들의 아나운서 도전, '아나듀오'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은 지난 해 12월부터 자발적인 지역주부 모임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부 1명이 PD, DJ, 엔지니어로서의 1인 3역을 수행하여 방송을 진행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송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부들은 큰 곤란을 겪었지요. 이에 지난 해 방송국을 운영했던 '바셀린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주부들을 위한 '1인아나듀오 양성 과정'을 열었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으로 발전한 기타반

기타에 합창 재미를 붙여 가고 있는 기타반 회원들은 내년에는 이 기타반을 동호회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동호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의 마찬가지로 매주 한 번씩 모이기로 하고, 2주에 한 번씩은 강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강사료는 호주머니를 털어 모으기로 했지요."

원다방 리모델링

원다방에 놀러오세요.
새롭게 탄생한 원다방을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 재생 프로그램. 가구와 벽지, 바닥, 조명을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작업기간 9월 24일~27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미디어 동화

동화책은 여럿이 함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보는 동화, 즉 미디어 동화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동화는 말 그대로 동화책을 영상으로 담는 것입니다. 동화책을 거울 삼아 배경도 그리고, 이 배경을 배경으로 그 앞에서 손가락에 인형을 끼우고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열심히 만든 미디어 동화. Coming Soon~

화요일은 소내 마을되기, 시낭송반

시인인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 정미라 국경님에게 상상으로 시낭송을 배우다 탄생한 시낭송반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직접 도토리를 따다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 부쳐 온 도토리전 등 매년 다양한 간식으로 시낭송을 시작한 우리 상대원동 주부들. 시낭송에는 그녀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소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악기 배우기, 소금반.

소금이라는 악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면 우리 아이들, 지난 몇 개월 사이, 이제 제법 능숙하게 우리 소리의 음계를 우리의 악기로 소리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선생님께 손가락을 하나 하나를 맡기며 점점 더 능숙한 음씨로 깊은 소금 소리를 내는 아이들 역시, 소금에 빠져 갑니다.

2009. 1월 ~ 2009. 12월 _ 라디오 방송	20090921~20091222 _ 미디어이여가기금소스
2009. 5월 ~ 2009. 7월 _ 선두도	20091023 _ 상대원 시장 가을잔치
2009. 6월 ~ 2009. 10월 _ 시장 음악회 (매월 3패주 금요일)	20091105 _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운영위원회 (총) 1차 모임
20090824~20090925 _ 1인아나듀오교육 '글머디'	20091119 _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운영위원회 (총) 2차 모임
20090913 ~ 20090916 _ 원다방 리모델링	
20090925 _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 경계방송	



상대원시장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상대원동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부 상거리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 상대원 1, 2, 3 공단 입주업체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대개 상대원동에서 보금자리를 꾸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거지 역시 공단과 함께 발달했습니다. 당시 상대원 공단 입주업체들의 급여일은 보통 10일이었는데 월급날만 되면 공단 근무자들은 최근길에 오래 상대원 시장에 둘러 그 동안 봐 두었던 옷가지에 신발, 찬거리를 샀습니다. 덕분에 그리 넓지 않은 상대원 시장의 도로는 일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인근 신도시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옛 '영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상대원 시장은 상대원동 주민들의 만나고 헤어지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도촌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옛날옛날 우리섬말

2009년 9월, 도촌동에서 '옛날옛날 우리섬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옛날 우리섬말'은 초등학교와 부모님이 한 팀을 이뤄 도촌동 내 유물을 답사하여, 내가 사는 동네의 역사를 배우는 문화역사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한 주는 유물을 답사하고, 그 다음주는 유물과 관련된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유서 깊은 곳을 찾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동네를 조금 더 잘 알고 이웃간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새날복지회의 협력을 얻어 모임정소를 정하고 10가족을 모집했습니다. 이어서 9월 26일 첫 모임을 가지고, 앞으로의 성과들을 담은 '가족책'을 만들었습니다.

첫 답사는 중앙공원의 지식요를 다녀왔으며, 최근에는 메화마을을 3단지에 우뚝 서 있는 40살이 넘는 느티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그 동안, 만들기 프로그램으로는 책, 도자기, 판화, 솜대 만들기, 동암화 그리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도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 '옛날옛날 우리섬말' 1기 참여가족 어머니 중 반장과 총무를 선임하였고, 12월 19일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모두 모여 수평적으로 놀라갑시다.

20090926 _ 첫 모임. 참여가족소개와 책 만들기 첫 시간	20091107 _ 옛 그릇(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팝업카드 만들기
20091010 _ 책 만들기 둘째 시간, 나만의 색상 만들기	20091114 _ 느티나무 답사, 나뭇잎 이용하여 풀리슈 하기
20091017 _ 중앙공원 지식요 답사	20091121 _ 느티나무 민화 만들기
20091024 _ 동암화 그리기	20091128 _ 도촌동 참숯과 솜대 강의, 솜대 만들기
20091031 _ 유물산포지 강의(우원으로 인한 실내강의).	20091205 _ 책 꾸미기
가족책 레크리에이션	20091219 _ 자발적인 첫 모임



도촌동은,

성남시내에서 대원터널을 통과하면 이항산과 천진산을 배경으로 도촌동(道村洞)이 있습니다. 도촌동은 마을의 앞과 뒤에 하천이 있어서 마치 섬처럼 생겼다고 하여 '섬마을'이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또는 1925년, 윤옥남 대호수 때 마을만 섬처럼 남아 '섬마을'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화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도촌지구 개발로 인해, 도촌동의 주민 구성원 대부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모인 새 가족들이 많습니다.



태평 4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영상'을 아시나요?

한울신문은 2007년 8월부터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지속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40년동안 우리 동네를 일구고 가꾸어온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을 나누면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정 깊은 마을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금빛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윗동네는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예전에 살던 곳이 달라진다는 마음은 아쉽지만, 이제 몇 년 후면 모두들 또 다른 곳에 정을 붙이며 살것지요.

'시간의 기록'

사건클럽 '시간의 기록'은 2008년 성남문화재단의 '문화클럽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시간의 기록'이 문화클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전강좌와 출사, 그리고 전시를 지원받았습니다. 10명의 사전강좌 수강생들은 매주 토요일 강의를 듣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출사를 진행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윗동네의 시간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명장들을 모아 지난 12월 9일 '시간의 기록' 첫 번째 전시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20070927 _ 한울신문 창간호 발행 / 20091217현재까지 한울신문 15호 발행	20091007 _ 3기 한울영상 기자단 첫 촬영을 위한 기획회와 20091008 _ 3기 한울영상 기자단 첫 촬영
20090828 _ 한울신문 기자단 어머니 후원회 하반기 모임	20091030 _ 태평 4동 축제 '영랑산 산길'에 주민들 참여 및 축제
20090829 _ 4년 개관을 위한 17, 2기 한울신문 기자단 모임	20091209 _ '시간의 기록' 전시회와 함께 3기 한울영상 기자단 시상회
20090919 _ 3기 한울신문, 한울영상 기자단 첫 모임, 오라클데이	



2009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사업 참여자

총감독 이상훈

수진동 팀장 곽윤부

상대원시장 팀장 한유진

은행동 팀장 이상훈

태평동 팀장 김성수

도촌동 팀장 박진영

공공미술 담당

작가 이화섭

작가 정삼선

프로젝트북 팀장 이초영

은행동 프로젝트북 집필 김소연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북 집필 정혜원

취재 도움 김희윤, 우장순

수진동 영상 김걸

상대원시장 영상 윤혜숙

은행동 영상 곽대현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자문 전수환, 심보선

기획 및 진행 이수철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웹 아카이브 구축

기획 김유진

진행 및 관리 서진영

디자인 함수현

협력기관 및 단체, 도움주신 분

수진동

수진동 성당, 수진1동 주민센터, 수진1동 통장협의회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 은행2동 주민센터, 보탬미술학원,

상대원시장

상대원시장 상인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바셀린프로젝트, 미디어공동체 늘봄

태평동

태평4동 주민센터, 태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도촌동

새날복지회, 도촌 YMCA, 도촌초등학교, 도촌동 주민센터



